

# 의료 관광 마케팅조사

2008



# 목 차

<b>I. 조사 개요</b>	<b>1</b>
<b>II. 주요 조사 결과</b>	<b>7</b>
1. 아시아 의료관광 경험자	7
2. 한국 의료관광 경험자	31
3. 향후 아시아 의료관광 이용의향자	61
4. 국내외 의료관광 전문가	73
<b>III. 요약 및 결론</b>	<b>93</b>





# I.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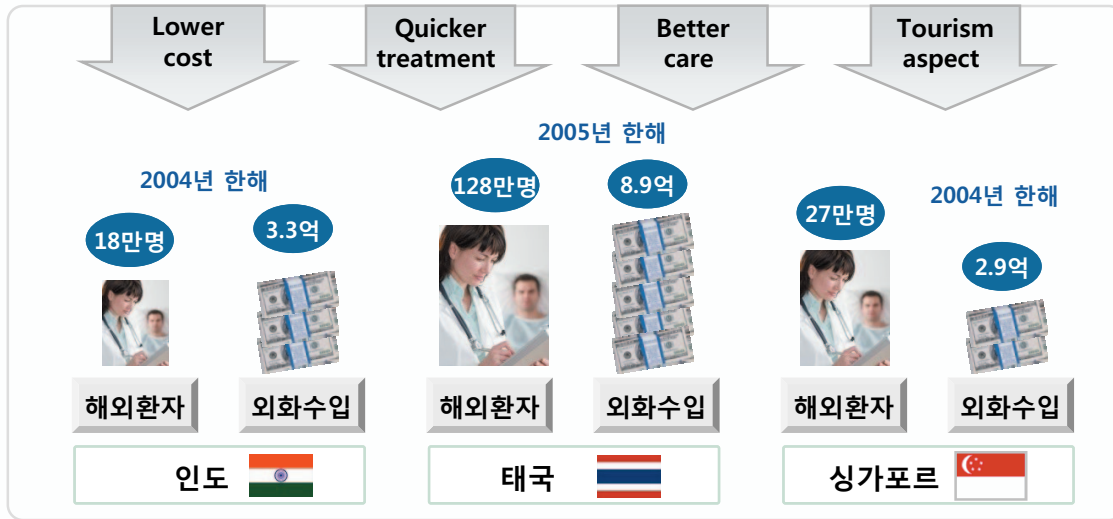


# 1. 조사 배경

## 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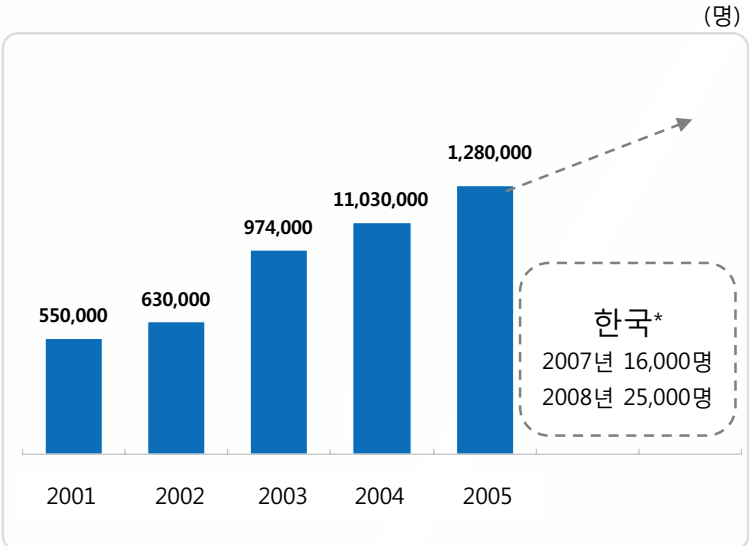
-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휴양, 레저, 문화 등 관광 활동이 결합된 복합 산업 형태로서 일반관광에 비하여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지출액 규모도 높은 저비용 고효율의 산업임
- 이에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 경쟁국에서는 이미 의료관광을 국가적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수준은 선진국에 근접하면서도 의료서비스 가격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편으로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또한 자연환경, 휴양 여건과 함께 의료 관광지로써의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태국 등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의료관광객 비중은 매우 낮아 향후 시장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아시아 주요국의 의료관광산업 현황



출처: 한국경제인연합회 CEO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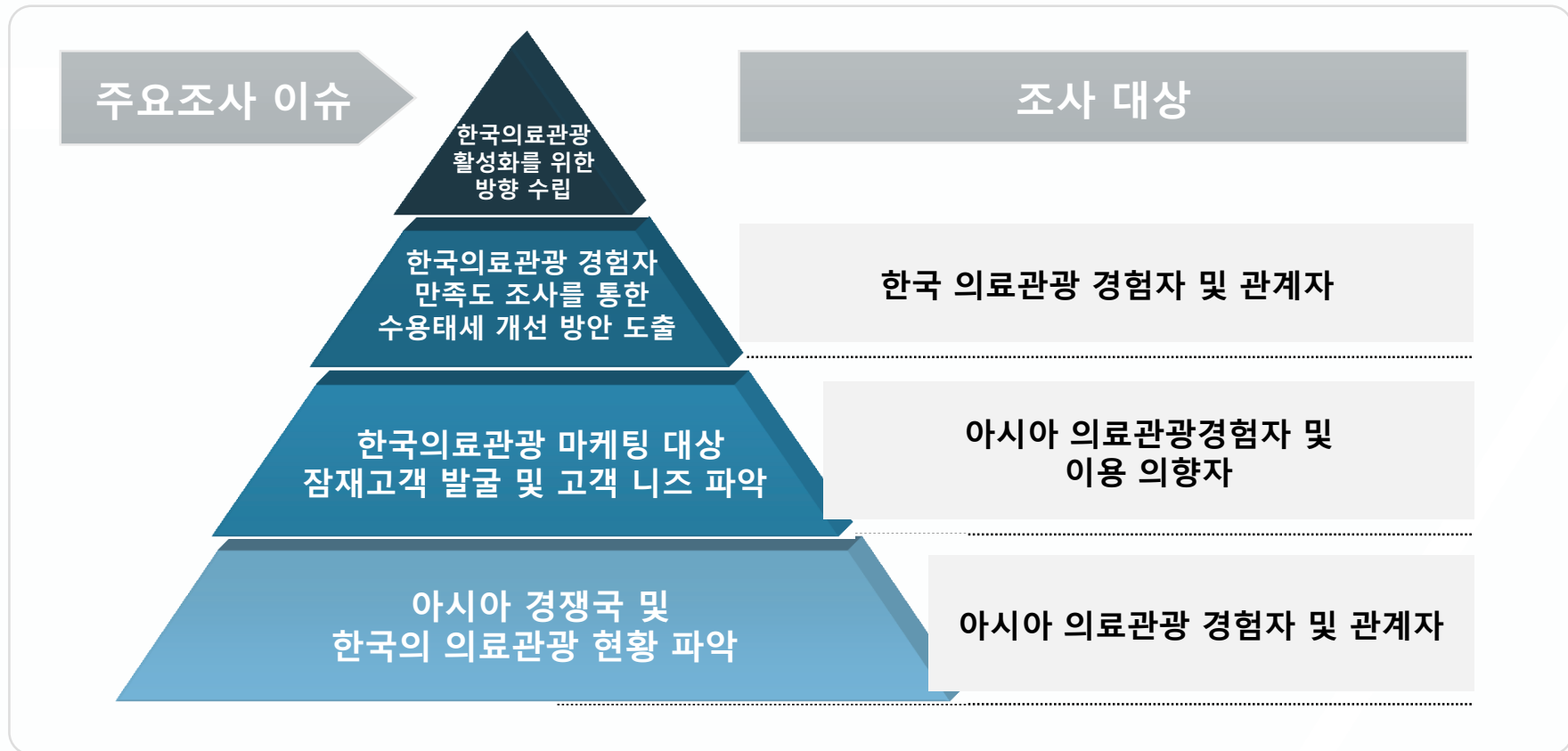
### 태국의 해외환자 수



출처: Kasikorn Research Center of Thailand-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2006)에서 재인용  
(한국 수치는 보건산업진흥원)

## 2.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한국 의료관광 시장의 잠재력과 불만요인 및 활성화 요인 발견을 통해, 한국으로의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됨





# 3. 조사 설계

## I. 조사개요

○ 조사 이슈 해결을 위해 조사대상 및 조사 방법 별로 다음과 같은 3단계 조사가 진행됨

조사명	아시아 의료관광 소비자 조사	한국 의료관광 경험자 조사	국내외 의료관광 관계자 조사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Online survey)	일대일 면접 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심층면접조사 (In Depth Interview) (방문, 이메일, 전화조사 보조적 사용)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2년 내 아시아지역 의료관광 경험자 및 향후 2년 내 아시아 의료관광 의향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기간 (2008년 10월~11월)내 한국 의료관광 이용경험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관광관련 실무를 통해, 현황을 잘 알고 있고 전문가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자</li> </ul>																																																												
표본 구성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국가별</th> <th rowspan="2">Total</th> </tr> <tr> <th>일본</th> <th>중국</th> <th>미국</th> </tr> </thead> <tbody> <tr> <td>의료관광 경험자</td> <td>100</td> <td>108</td> <td>102</td> <td>310</td> </tr> <tr> <td>의료관광 의향자</td> <td>200</td> <td>215</td> <td>201</td> <td>616</td> </tr> <tr> <td>sub total</td> <td>300</td> <td>323</td> <td>303</td> <td>926</td> </tr> </tbody> </table>	구분	국가별			Total	일본	중국	미국	의료관광 경험자	100	108	102	310	의료관광 의향자	200	215	201	616	sub total	300	323	303	926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국적별</th> <th colspan="2">일본</th> </tr> </thead> <tbody> <tr> <td>미국/캐나다</td> <td>57</td> </tr> <tr> <td>기타</td> <td>50</td> </tr> <tr> <td rowspan="4">이용한 의료 서비스별</td> <td>Medical Skin Care</td> <td>33</td> </tr> <tr> <td>건강검진</td> <td>40</td> </tr> <tr> <td>한방</td> <td>34</td> </tr> <tr> <td>기타</td> <td>30</td> </tr> <tr> <td>total</td> <td>36</td> <td>140</td> </tr> </tbody> </table>	국적별	일본		미국/캐나다	57	기타	50	이용한 의료 서비스별	Medical Skin Care	33	건강검진	40	한방	34	기타	30	total	36	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별 5~15명</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일본</th> <th>중국</th> <th>미국</th> <th>러시아</th> <th>한국</th> <th>total</th> </tr> </thead> <tbody> <tr> <td>9</td> <td>5</td> <td>5</td> <td>6</td> <td>15</td> <td>40</td> </tr> <tr> <td colspan="3">email 조사</td> <td colspan="2">심층면접조사</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국 정부 및 민간 의료관광관련 연구기관</li> <li>해당국 언론 및 여행사</li> <li>해당국 해외환자 진료 전문병원 관계실무팀</li> <li>의료지원업체 및 일반병원 운영자</li> </ul>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	total	9	5	5	6	15	40	email 조사			심층면접조사		
구분	국가별			Total																																																											
	일본	중국	미국																																																												
의료관광 경험자	100	108	102	310																																																											
의료관광 의향자	200	215	201	616																																																											
sub total	300	323	303	926																																																											
국적별	일본																																																														
	미국/캐나다	57																																																													
기타	50																																																														
이용한 의료 서비스별	Medical Skin Care	33																																																													
	건강검진	40																																																													
	한방	34																																																													
	기타	30																																																													
total	36	140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	total																																																										
9	5	5	6	15	40																																																										
email 조사			심층면접조사																																																												
표집 방법	유의할당표본 추출 (Purposive Quota Sampling)																																																														
조사 기간	2008년 10월 10일 ~ 10월 24일 (총 15일 소요)	2008년 9월 30일 ~ 11월 22일 (총 46일 소요)	한국 2008년 9월 10일 ~ 10월 9일 (총 20일 소요) 해외 2008년 10월 13일 ~ 11월 14일 (총 25일 소요)																																																												





## Ⅱ . 주요 조사 결과

### 1. 아시아 의료관광 경험자

2. 한국 의료관광 경험자

3. 향후 아시아 의료관광 이용 의향자

4. 국내외 의료관광 전문가



# □ 아시아 의료관광 경험자 응답자 특성

##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

		전 체	국가		
			일본	중국	미국
사 례 수		(310)	(100)	(108)	(102)
성 별	남	57.4	50.0	57.4	64.7
	여	42.6	50.0	42.6	35.3
연 령	14-19세	4.8	9.0	-	5.9
	20-29세	36.5	13.0	60.2	34.3
	30-39세	29.7	23.0	34.3	31.4
	40-49세	11.0	18.0	5.6	9.8
	50-59세	11.9	23.0	-	13.7
	60세 이상	6.1	14.0	-	4.9
교육수준	전문대 이하	40.1	36.7	12.1	72.5
	4년제 대학이상	59.9	63.3	87.9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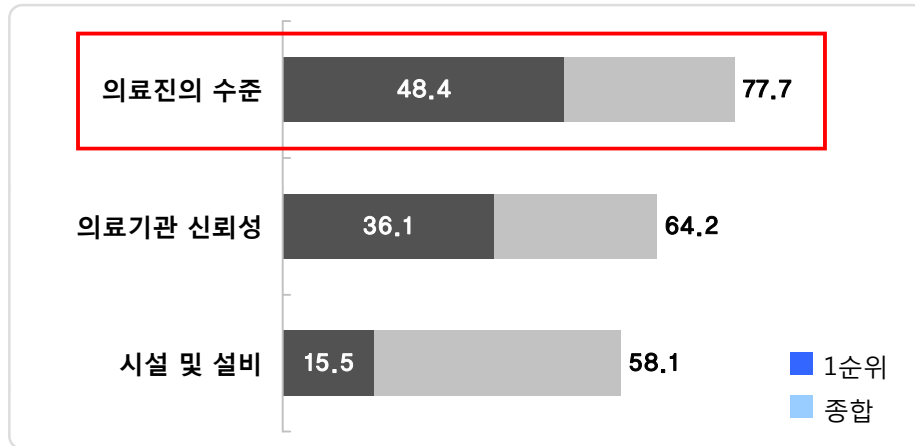
		전 체	국가		
			일본	중국	미국
사 례 수		(310)	(100)	(108)	(102)
직 업	전문직/자영업	45.5	19.0	54.6	61.8
	사무/서비스/생산직	30.3	47.0	32.4	11.8
	학생	10.3	12.0	6.5	12.7
	주부	5.2	15.0	-	1.0
	기타	8.7	7.0	6.5	12.7
월평균 가구소득	500 USD 이하	3.1	8.0	0.9	-
	501~1500 USD	21.2	4.0	54.7	-
	1501~3000 USD	28.3	26.0	26.4	33.3
	3001~4500 USD	11.3	17.0	4.7	12.6
	4501~6000 USD	13.7	19.0	-	24.1
	6001~7500 USD	8.5	6.0	3.8	17.2
	7500 USD 이상	14.0	20.0	9.4	12.6
한국 방문경험	있음	35.5	51.0	41.7	13.7
	없음	64.5	49.0	58.3	86.3

# 1. 의료서비스 이용 시 고려사항

- 서비스 차원에서는 '의료진의 수준'을, 서비스 지원 차원에서는 '인적 서비스'와 '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
-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서비스 차원에서 인적 요소에 대한 고려수준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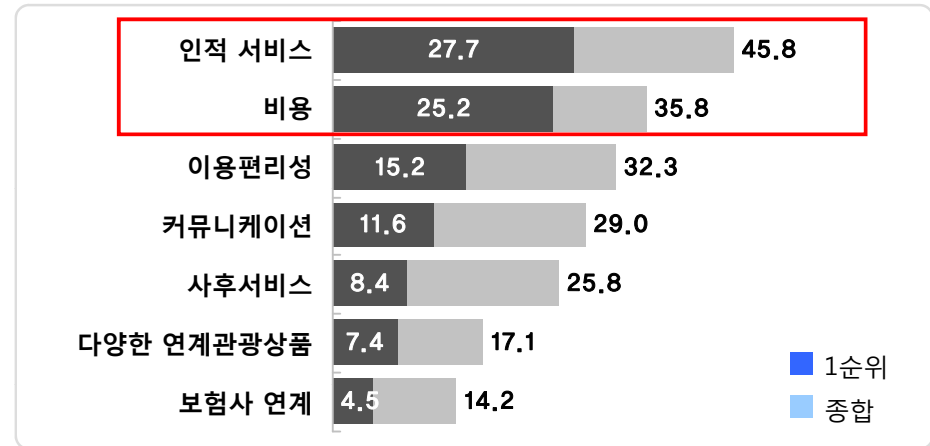
## 서비스 차원

(Base:최근 2년 이내 아시아 의료관광 경험자,n=310, 복수응답, 단위: %)



## 서비스 지원 차원

(Base:최근 2년 이내 아시아 의료관광 경험자,n=310,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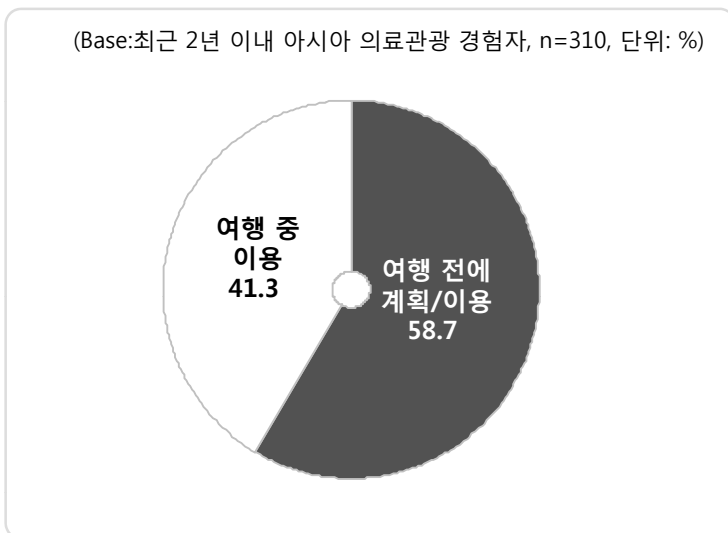
	전 체	국가별			월평균 가구소득			
		일본	중국	미국	1500 USD 이하	1501~3500 USD 이하	3501~7000 USD 이하	7001 USD 이상
사 례 수	(310)	(100)	(108)	(102)	(71)	(86)	(77)	(59)
의료진의 수준	48.4	40.0	42.6	<b>62.7</b>	36.6	48.8	49.4	57.6
의료기관 신뢰성	36.1	37.0	<b>43.5</b>	27.5	42.3	37.2	33.8	28.8
시설 및 설비	15.5	23.0	13.9	9.8	21.1	14.0	16.9	13.6

	전 체	국가별			월평균 가구소득			
		일본	중국	미국	1500 USD 이하	1501~3500 USD 이하	3501~7000 USD 이하	7001 USD 이상
사 례 수	(310)	(100)	(108)	(102)	(71)	(86)	(77)	(59)
인적 서비스	27.7	27.0	<b>33.3</b>	22.5	<b>35.2</b>	26.7	18.2	27.1
비용	25.2	27.0	10.2	<b>39.2</b>	16.9	31.4	<b>35.1</b>	13.6
이용편리성	15.2	19.0	12.0	14.7	14.1	14.0	16.9	18.6
커뮤니케이션	11.6	16.0	8.3	10.8	5.6	8.1	14.3	<b>23.7</b>
사후서비스	8.4	5.0	9.3	10.8	5.6	12.8	6.5	5.1
다양한 연계관광상품	7.4	4.0	16.7	1.0	14.1	4.7	5.2	8.5
보험사 연계	4.5	2.0	10.2	1.0	8.5	2.3	3.9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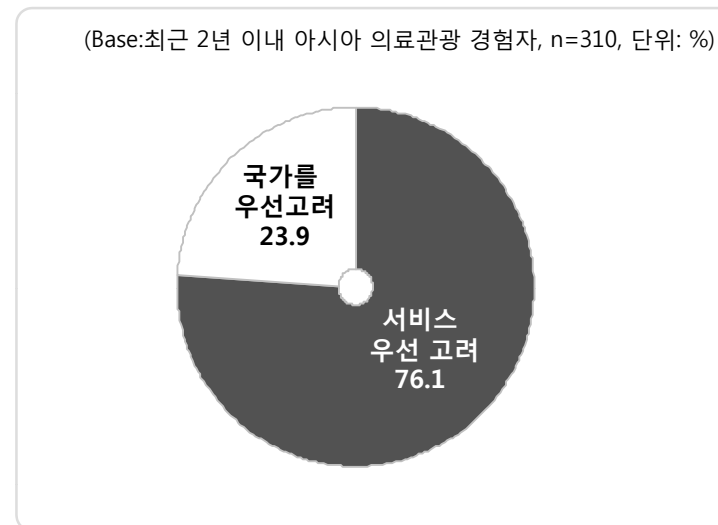
## 2. 의료서비스 이용의향 의사결정

- 아시아 의료관광 경험자의 58.7%가 여행 전에 미리 의료서비스 이용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의료서비스를 이용 할 때, 국가보다는 서비스를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  
이용  
사전  
계획  
여부



서비스  
VS.  
국가



	전 체	국가			가장 최근 의료서비스 이용국					
		일본	중국	미국	태국	한국	일본	중국 (본토)	홍콩	싱가포르
사례수	(310)	(100)	(108)	(102)	(70)	(52)	(37)	(33)	(31)	(21)
여행 전 계획	58.7	<b>62.0</b>	46.3	68.6	50.0	<b>69.2</b>	59.5	48.5	38.7	66.7
계획 없이, 여행 중 이용	41.3	38.0	<b>53.7</b>	31.4	50.0	30.8	40.5	51.5	<b>61.3</b>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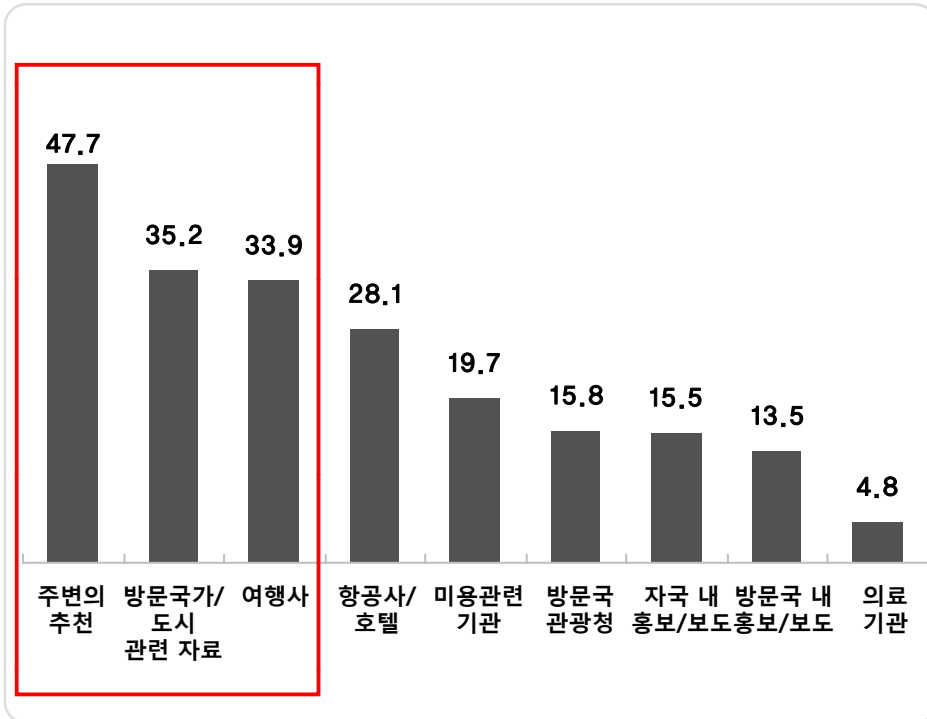
	전 체	국가			성별	
		일본	중국	미국	남	여
사례수	(310)	(100)	(108)	(102)	(178)	(132)
서비스 우선 고려	76.1	75.0	71.3	<b>82.4</b>	71.9	<b>81.8</b>
국가 우선 고려	23.9	25.0	<b>28.7</b>	17.6	<b>28.1</b>	18.2

### 3. 의료서비스 정보접촉 경로

- 정보접촉 경로로 '주변의 추천 (Word Of Mouth)'이 약 4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어 서비스 이용 시 민감도가 높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그 다음으로 '방문 국가/도시관련 자료'와 '여행사'를 통한 정보접촉 경험이 높게 나타남

#### 정보접촉 경로

(Base: 최근 2년 이내 아시아 의료관광 경험자, n=310, 복수응답, 단위: %)



\*그 외 기타 0.6%

#### 응답자 특성별 분석

(단위: %)

	전 체	국가			한국 의료관광 경험	
		일본	중국	미국	경험	비경험
사 례 수	(310)	(100)	(108)	(102)	(101)	(209)
주변의 추천	47.7	33.0	<b>58.3</b>	51.0	50.5	46.4
방문국가/도시 관련 자료	35.2	32.0	38.0	35.3	35.6	34.9
여행사	33.9	31.0	41.7	28.4	35.6	33.0
항공사/호텔	28.1	23.0	39.8	20.6	27.7	28.2
미용관련기관	19.7	5.0	<b>30.6</b>	22.5	<b>24.8</b>	17.2
방문국 관광청	15.8	10.0	15.7	21.6	17.8	14.8
자국 내 홍보 및 보도를 통해	15.5	5.0	27.8	12.7	<b>21.8</b>	12.4
방문국 내 홍보 및 보도를 통해	13.5	5.0	27.8	6.9	<b>20.8</b>	10.0
의료기관	4.8	-	-	<b>14.7</b>	3.0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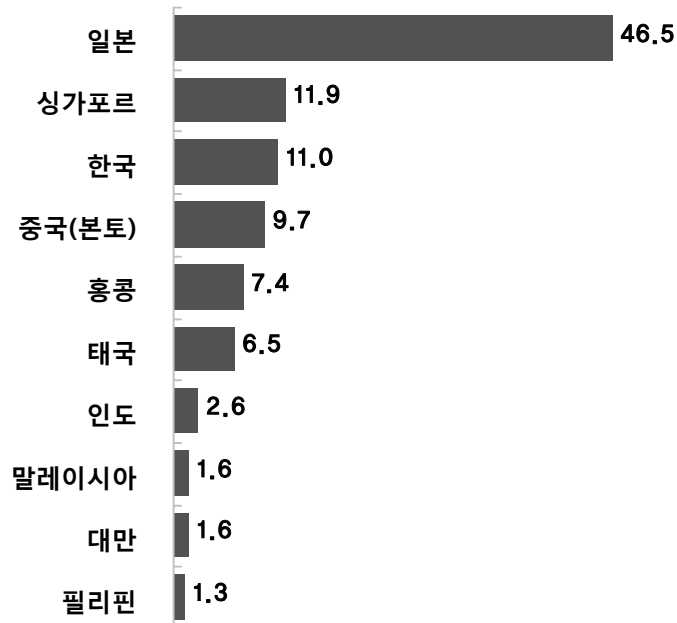


## 4. 의료서비스 측면 경쟁우위 국가

- 전반적 의료서비스 수준에서 경쟁우위를 가진 국가는 '일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국'은 중국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일본, 미국에서의 인식률이 낮게 나타남
- 한국 방문 경험자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함

### 서비스 수준 경쟁우위 국가

(Base: 최근 2년 이내 아시아 의료관광 경험자, n=310, 복수응답,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단위: %)

	전 체	국가			한국 방문경험	
		일본	중국	미국	있음	없음
사 례 수	(310)	(100)	(108)	(102)	(110)	(200)
일본	46.5	<b>79.0</b>	23.1	39.2	52.7	43.0
싱가포르	11.9	6.0	23.1	5.9	9.1	13.5
한국	11.0	5.0	<b>24.1</b>	2.9	<b>21.8</b>	5.0
중국 (본토)	9.7	-	13.9	14.7	4.5	12.5
홍콩	7.4	2.0	11.1	8.8	3.6	9.5
태국	6.5	6.0	2.8	10.8	4.5	7.5
인도	2.6	-	-	7.8	0.9	3.5
말레이시아	1.6	1.0	-	3.9	-	2.5
대만	1.6	1.0	1.9	2.0	0.9	2.0
필리핀	1.3	-	-	3.9	1.8	1.0

## 5. 아시아 경쟁국간 의료서비스 분야별 비교우위

- 한방진료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서 전반적으로 '일본'의 서비스가 우위에 있다고 인식함
- 한국의 경우, Medical Skin Care, 한방진료, 성형외과, 척추 등 외과수술이 타 서비스대비 우수하다고 인식함

의료서비스 분야별 비교우위

(Base: 최근 2년 이내 아시아 의료관광 경험자, n=310, 복수응답, 단위: %)

BASE: 경험자	Medical Skin Care	한방진료	건강검진	치과진료	성형외과	척추 등 외과수술	안과진료	장기요양	산부인과
태국	29.7	9.7	10.6	9.4	17.7	11.6	8.7	12.3	9.7
한국	35.5	41.0	26.1	29.4	41.9	32.6	27.7	21.3	31.0
홍콩	22.6	22.6	22.9	24.2	14.5	20.6	24.2	17.4	23.5
싱가포르	21.3	11.0	27.4	25.8	21.9	18.4	26.8	28.7	23.2
일본	55.8	35.8	67.7	64.5	61.0	61.0	65.2	64.2	58.7
중국 (본토)	17.4	60.0	23.9	26.5	20.3	32.9	27.4	27.7	27.4

## 6. 아시아 경쟁국간 의료서비스 속성별 비교우위

- 일본은 '비용절감' 차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 속성에서 우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한국은 아시아 국가 내 일본 다음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우위가 뚜렷하지 않음

의료서비스 속성별 비교우위

(Base: 최근 2년 이내 아시아 의료관광 경험자, n=310,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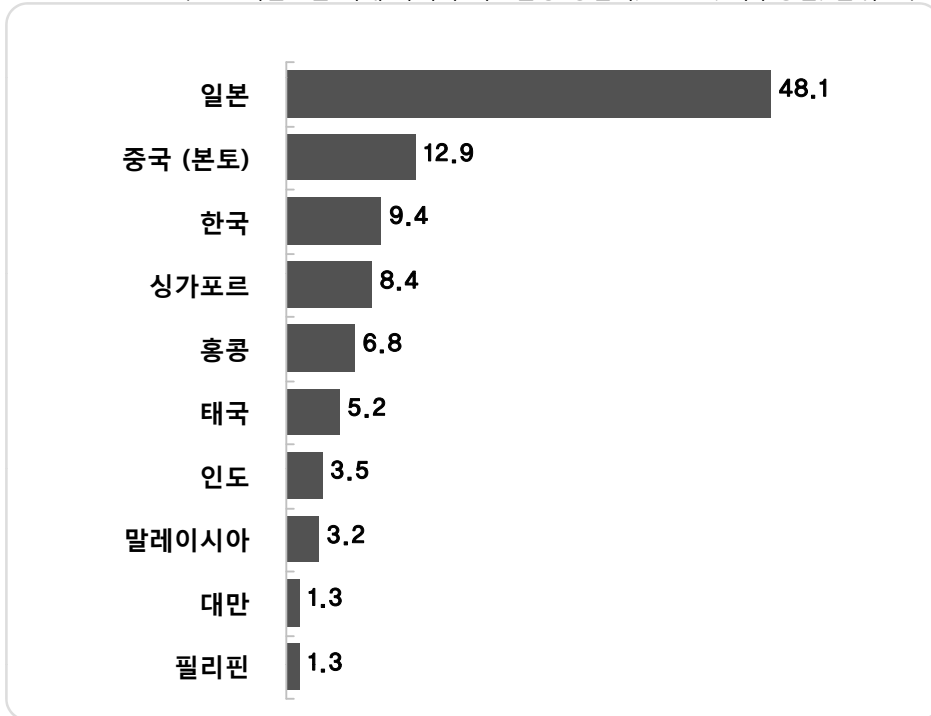
BASE: 경험자	의료진	시설 및 장비	의료기관 신뢰성	비용절감	이용 편리성	의사소통	사후서비스	관련 관광 상품 다양성	인적 서비스	보험사 연계
태국	10.6	9.7	8.1	26.8	12.9	10.0	8.4	13.5	7.4	6.1
한국	33.9	33.5	31.0	27.1	33.2	27.4	33.2	31.9	36.5	33.2
홍콩	20.0	19.7	22.9	19.7	22.6	30.0	22.6	22.6	24.5	25.8
싱가포르	26.1	28.1	30.0	16.5	22.9	22.6	28.7	27.4	26.1	27.1
일본	72.6	74.8	70.0	33.5	57.1	59.4	62.6	53.2	66.1	68.4
중국 (본토)	19.7	14.5	19.4	37.1	27.7	23.5	21.0	20.3	17.1	20.0

# 7.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국가

- 아시아 국가 중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 '일본'이라는 응답이 48.1%로 나타남
- 중국인은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미국인은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낮음
- 한국 방문 경험자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국가

(Base: 최근 2년 이내 아시아 의료관광 경험자, n=310, 복수응답,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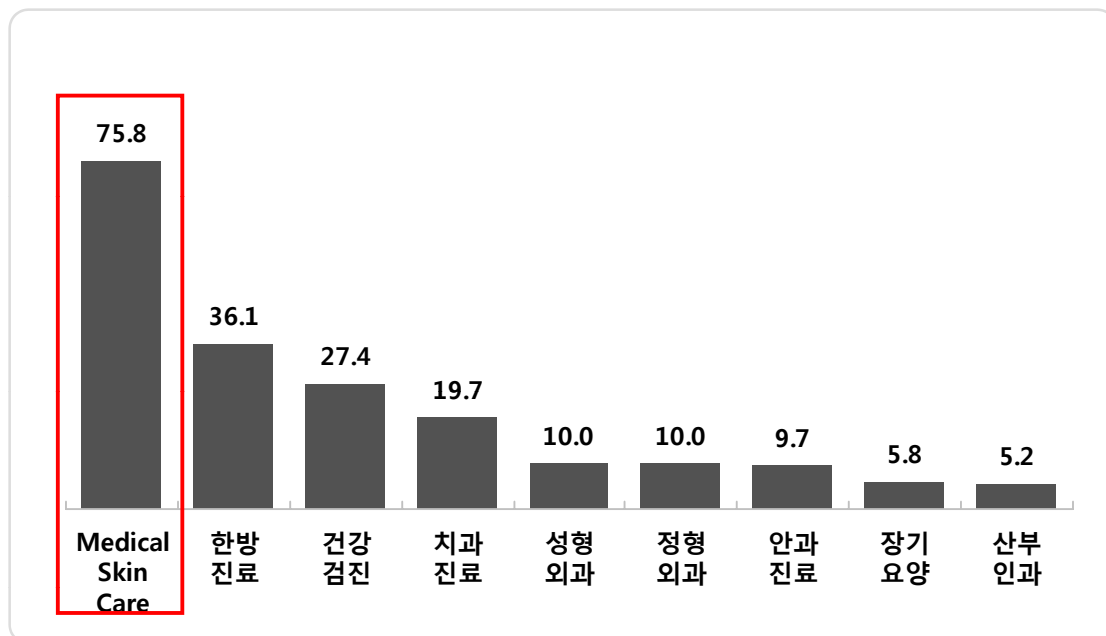
	전 체	국가			한국 방문경험	
		일본	중국	미국	있음	없음
사 례 수	(310)	(100)	(108)	(102)	(110)	(200)
일본	48.1	<b>74.0</b>	24.1	48.0	51.8	46.0
중국 (본토)	12.9	-	<b>25.0</b>	12.7	10.9	14.0
한국	9.4	7.0	19.4	1.0	<b>13.6</b>	7.0
싱가포르	8.4	8.0	14.8	2.0	10.0	7.5
홍콩	6.8	1.0	8.3	10.8	2.7	9.0
태국	5.2	4.0	3.7	7.8	5.5	5.0
인도	3.5	2.0	-	8.8	1.8	4.5
말레이시아	3.2	3.0	2.8	3.9	1.8	4.0
대만	1.3	1.0	1.9	1.0	0.9	1.5
필리핀	1.3	-	-	3.9	0.9	1.5

## 8. 최근 2년내 이용한 아시아 의료서비스

- 최근 2년 내 아시아 국가에서 이용한 의료서비스는 'Medical Skin Care'가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중국인의 경우 '건강검진' 서비스를, 미국인의 경우 '한방진료'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최근 2년내 이용한 아시아 의료서비스

(Base:의료관광 경험자, n=310, 복수응답, 단위: %)



\* 기타 서비스 제외

\*그외 기타 10.6%

응답자 특성별 분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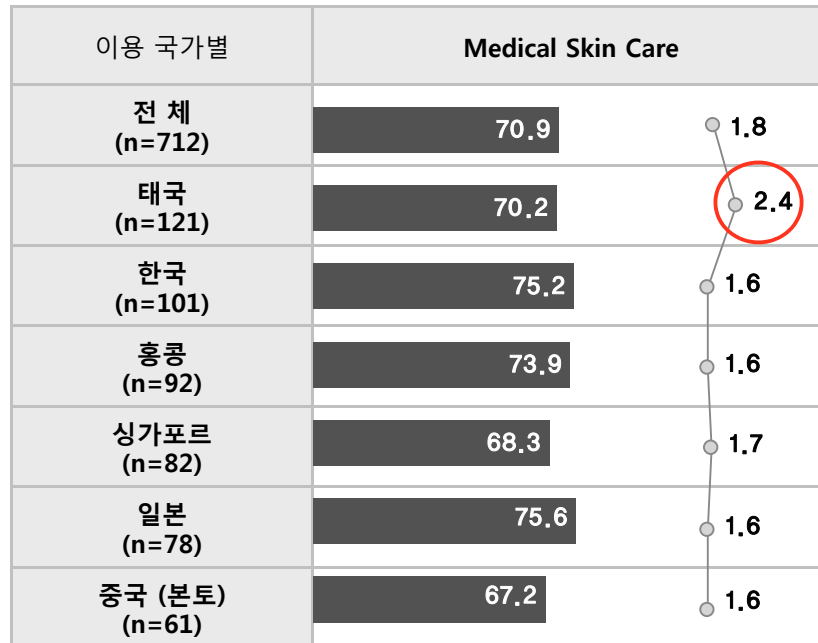
	전 체	국가별		
		일본	중국	미국
사 례 수	(310)	(100)	(108)	(102)
Medical Skin Care	75.8	70.0	76.9	80.4
한방진료	36.1	12.0	34.3	<b>61.8</b>
건강검진	27.4	5.0	<b>46.3</b>	29.4
치과진료	19.7	2.0	28.7	27.5
성형외과	10.0	1.0	17.6	10.8
척추 등 외과수술	10.0	4.0	6.5	19.6
안과진료	9.7	-	18.5	9.8
장기요양	5.8	-	1.9	15.7
산부인과	5.2	-	4.6	10.8

## 9. 최근 2년내 이용한 의료서비스별 아시아 방문국가

- Medical Skin Care의 경우, '일본', '한국', '홍콩' 순으로 이용경험이 높게 나타남
- 한방진료의 경우, '일본', '홍콩', '중국(본토)' 순으로 이용경험이 높게 나타남
- 이용 횟수 면에서는 태국의 Medical Skin Care, 한국의 한방진료 횟수가 높아 이들 서비스에 대한 해당국가의 재방문 비율이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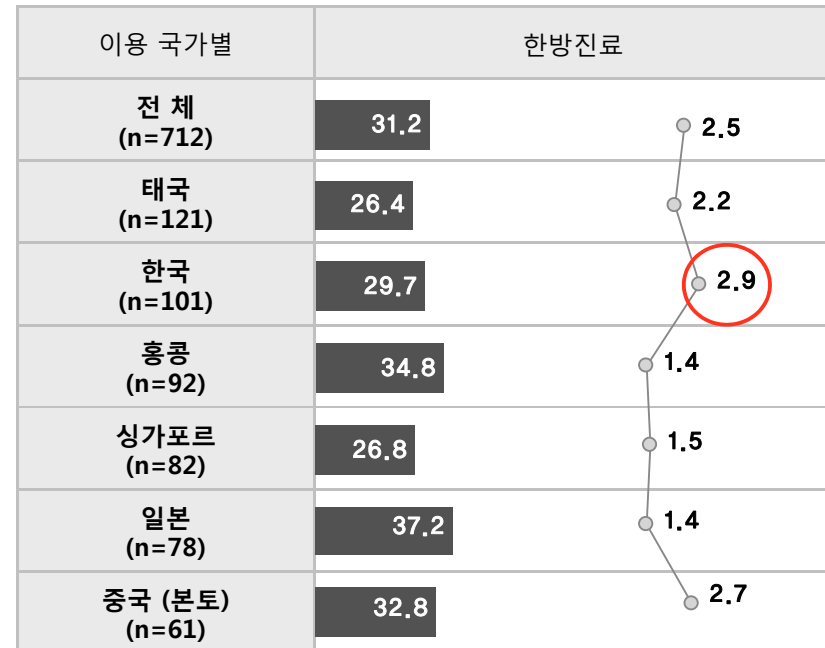
Medical Skin Care 이용경험 및 이용횟수

■ 이용비율(단위:%) —○— 이용횟수(단위:회) (Base:의료관광 이용경험자, 복수응답)



한방진료 이용경험 및 이용횟수

■ 이용비율(단위:%) —○— 이용횟수(단위:회) (Base:의료관광 이용경험자, 복수응답)



# 10. 의료서비스별 주 이용 국가

- Medical Skin Care는 '태국', 한방진료 와 건강검진은 '일본', 치과는 '홍콩', 성형외과는 '한국'의 경험률이 높은 편임
-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높은 Medical Skin Care와 한방의 경우, 인식상의 서비스 우수국가(일본/중국본토)와, 실제 이용 경험국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별 국가의 마케팅 활동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의료서비스별 주 이용 국가

(Base: 해당 의료서비스 이용자, 단위: %)

	Medical Skin Care (n=235)	한방진료 (n=112)	건강검진 (n=85)	치과 (n=61)	성형외과 (n=31)	척추 등 외과수술 (n=31)	안과 (n=30)	장기요양* (n=18)	산부인과* (n=16)
태국	18.7	14.3	9.4	9.8	9.7	9.7		11.1	12.5
한국	18.3	9.8	9.4	16.4	35.5	12.9	6.7	16.7	6.3
홍콩	10.6	14.3	11.8	18.0	6.5	12.9	20.0	11.1	12.5
싱가포르	8.1	8.9	16.5	13.1	16.1	6.5	10.0	5.6	
일본	14.0	17.9	17.6	14.8	19.4	19.4	30.0	27.8	25.0
중국 (본토)	8.9	9.8	5.9	3.3		12.9	3.3		6.3

(\*사례수 30미만의 %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11. 의료서비스별 서비스 기관 선택 이유

- 해당 의료서비스 기관을 선택한 이유로는 크게 '특정 진료/서비스로 권위 있는 곳이어서'와 '의료진이 유명해서'로 나타남

의료서비스별 서비스 이용기관 선택 이유

(Base: 해당 의료서비스 이용자, 복수응답, 단위: %)

	Medical Skin Care (n=235)	한방진료 (n=112)	건강검진 (n=85)	치과 (n=61)	성형외과 (n=31)	척추 등 외과수술* (n=29)	안과 (n=30)	장기요양* (n=18)	산부인과* (n=16)
특정 진료/서비스로 권위 있는 곳이어서	48.5	43.8	47.1	47.5	48.4	34.5	50.0	38.9	43.8
그 나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서	41.3	39.3	32.9	34.4	25.8	37.9	26.7	16.7	25.0
의료진이 유명해서	37.4	40.2	58.8	42.6	71.0	31.0	63.3	38.9	37.5
유명 저널 및 잡지에 소개된 곳이라서	29.8	25.9	37.6	21.3	19.4	31.0	26.7	16.7	6.3
자국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26.8	32.1	32.9	27.9	38.7	34.5	23.3	33.3	25.0
자국 국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서	22.6	28.6	24.7	9.8	22.6	27.6	16.7	16.7	18.8
자국 의료진이 추천한 곳이라서	17.9	18.8	24.7	16.4	16.1	13.8	13.3	5.6	12.5
내가 가입한 보험사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14.0	8.9	23.5	4.9	3.2	10.3	13.3	22.2	6.3
특정 진료서비스 외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8.1	7.1	9.4	3.3	3.2	3.4	3.3	5.6	
주변의 추천	0.4	0.9	1.2						

\* 기타 제외

(\*사례수 30미만의 %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12. 의료서비스별 이용시간 및 여행 일정 내 비중

- 서비스 이용시간은 'Medical Skin Care', '한방진료', '성형외과' 순으로 높음
- 전체 여행일정 중 서비스 이용시간의 비중은 '장기요양', '척추 등 외과수술'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특성상 타 관광활동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여짐

서비스별 이용시간 및 전체 일정 내 비중

(Base: 해당 의료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시간 (일)	여행 일정 중 서비스 이용시간 비중(%)
Medical Skin Care(n=235)	5.5	25.2
한방진료 (n=112)	2.9	21.1
건강검진(n=85)	2.1	21.2
치과진료(n=61)	2.2	25.0
성형외과(n=31)	2.9	26.9
척추 등 외과수술(n=31)	2.1	31.7
안과진료*(n=30)	1.5	25.3
장기요양*(n=18)	2.0	34.3
산부인과*(n=16)	0.9	24.4

(\*사례수 30미만의 %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13. 의료서비스별 이용금액

- 아시아 국가의 의료서비스 비용은 과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1,500 USD 전후로 나타나고 있음
- 응답자 국적별 자국에서의 이용금액 대비 아시아 국가의 의료서비스 비용 수준은 일본의 60~70%, 중국의 110~130%, 미국의 70~80% 수준으로 보여짐

## 의료서비스별 자국 대비 비용체감도

(Base: 해당 의료서비스 이용자)

BASE: 경험자	아시아 국가 서비스 이용금액 (USD)	국가별 자국대비 비용 체감도*(%)		
		일본	중국	미국
Medical Skin Care	1,444	75.0%	108.7%	79.1%
한방진료	989	112.5%	101.1%	86.5%
건강검진	823	76.7%	118.2%	77.1%
치과진료	823	-	122.3%	73.5%
성형외과	6,885	-	125.0%	130.0%
척추 등 외과수술	1,639	30.0%	141.7%	83.3%
안과진료	1,648	-	106.2%	85.0%
장기요양	1,228	-	130.0%	60.0%
산부인과	1,174	-	100.0%	100.0%

(\*자국의 동일 서비스 이용경험자를 기준으로 환산한 %이므로, 일부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14. 자국대비 의료서비스 평가

- 아시아 국가에서 이용한 의료서비스를 자국에서의 서비스 이용경험과 비교했을 때, '자국대비 우수'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남

의료서비스별 자국대비 서비스 평가

■ 긍정평가% ● 5점 평균(점)

(Base: 자국 해당 의료서비스 이용자, 단위: %)

	자국대비 서비스 평가 (긍정평가 기준)		국가별 자국대비 서비스 체감도 (긍정평가 기준)		
			일본	중국	미국
Medical Skin Care (n=165)	78.2	3.93	41.7	88.2	88.7
한방진료 (n=49)	75.5	4.00	50.0	67.9	94.1
건강검진 (n=65)	73.8	3.85	-	77.8	76.5
치과진료 (n=46)	78.3	3.98	-	73.1	85.0
성형외과* (n=7)	100.0	4.57	-	100.0	100.0
척추 등 외과수술* (n=13)	76.9	3.92	-	83.3	83.3
안과진료* (n=17)	76.5	3.94	-	76.9	75.0
장기요양* (n=5)	80.0	4.20	-	100.0	75.0
산부인과* (n=7)	71.4	3.86	-	100.0	60.0

(긍정평가%= 만족도 평가 중 4점(만족), 5점(매우 만족) 응답자의 비율을 말함)

(\*사례수 30미만의 %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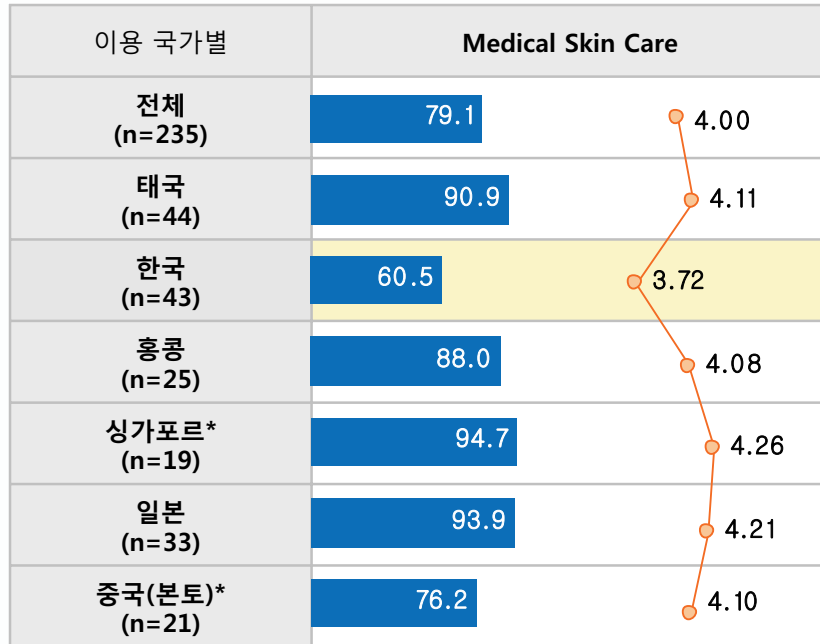
(\*자국의 동일 서비스 이용경험자를 기준으로 환산한 %이므로, 일부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15. 의료서비스별 만족도

- 긍정평가 기준으로 Medical Skin Care의 경우, '싱가포르', '일본', '태국'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한방진료의 경우에는 '중국(본토)', '싱가포르', '홍콩'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Medical Skin Care와 한방진료 모두 한국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타 국가 만족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

**Medical Skin Care 만족도 (긍정평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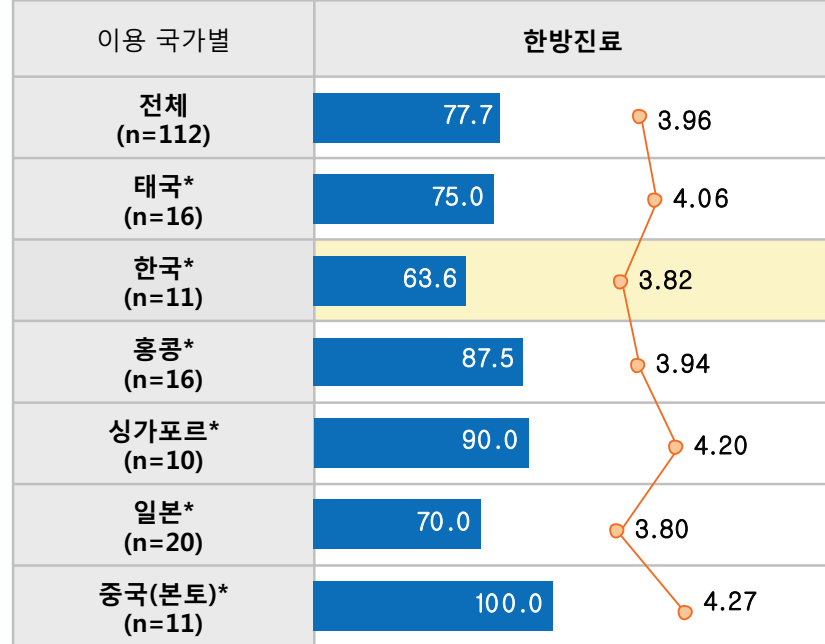
■ 긍정평가% ● 5점 평균(점) (Base:각 서비스 이용 경험자, 단위: %)



(긍정평가%= 만족도 평가 중 4점(만족), 5점(매우 만족) 응답자의 비율을 말함)

**한방진료 만족도 (긍정평가 기준)**

■ 긍정평가% ● 5점 평균(점) (Base:각 서비스 이용 경험자, 단위: %)



(긍정평가%= 만족도 평가 중 4점(만족), 5점(매우 만족) 응답자의 비율을 말함)  
(\*사례수 30미만의 %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16. 국가별 Medical Skin Care 서비스 속성 평가

- 대부분의 항목에서 싱가포르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의료진 수준은 '일본', 의료기관의 명성과 의사소통 면에서는 '홍콩', 저렴한 진료비는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은 거의 모든 속성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음

국가별 Medical Skin Care 속성 평가 (긍정평가 기준)

(Base: 각 서비스 이용 경험자, 단위: %)

	태국 (n=44)	한국 (n=43)	홍콩 (n=25)	싱가포르 (n=19)	일본 (n=33)	중국(본토) (n=21)
의료진 수준(전문성)	84.1	55.8 (6 위)	76.0	84.2	84.8	66.7
시설 및 장비	63.6	53.5 (6 위)	88.0	89.5	87.9	66.7
의료기관의 명성	77.3	55.8 (6 위)	96.0	94.7	90.9	66.7
의료기관 인지도	65.9	55.8 (6 위)	84.0	94.7	93.9	57.1
보험적용범위	45.5	39.5 (5 위)	72.0	73.7	69.7	38.1
패키지 진료상품	68.2	48.8 (6 위)	68.0	89.5	78.8	57.1
저렴한 진료비	75.0	37.2 (6 위)	60.0	68.4	54.5	76.2
접근 편의성	75.0	53.5 (6 위)	84.0	84.2	81.8	66.7
편리한 예약 및 수속 절차	77.3	48.8 (6 위)	68.0	78.9	66.7	66.7
짧은 대기시간	84.1	53.5 (6 위)	56.0	89.5	72.7	76.2
능숙한 의사소통	54.5	41.9 (6 위)	76.0	73.7	63.6	42.9
사후 환자관리서비스	43.2	44.2 (5 위)	60.0	57.9	81.8	47.6
다양한 의료관광상품	63.6	51.2 (6 위)	60.0	68.4	78.8	52.4
환자지원인력의 수준(전문성)	72.7	58.1 (6 위)	84.0	84.2	84.8	61.9
보험사 연계	45.5	37.2 (6 위)	56.0	68.4	57.6	42.9

(긍정평가%= 만족도 평가 중 4점(만족), 5점(매우 만족) 응답자의 비율을 말함)  
(한국의 ( )는 6개 국가 중 한국의 순위를 말함)

# 17. 국가별 한방진료 서비스 속성 평가

- 싱가포르와 중국(본토)에 대해 긍정평가 수준이 높은 편임
- 한국은 '보험적용범위'와 '보험사 연계' 속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한방진료 속성 평가 (긍정평가 기준)

(Base: 각 서비스 이용 경험자, 단위: %)

	태국 (n=16)	한국 (n=11)	홍콩 (n=16)	싱가포르 (n=10)	일본 (n=20)	중국(본토) (n=11)
의료진 수준(전문성)	75.0	63.6 (6 위)	75.0	100.0	75.0	100.0
시설 및 장비	62.5	63.6 (3 위)	62.5	100.0	75.0	63.6
의료기관의 명성	68.8	63.6 (5 위)	56.3	100.0	80.0	90.9
의료기관 인지도	81.3	54.5 (5 위)	62.5	80.0	55.0	81.8
보험적용범위	43.8	54.5 (2 위)	37.5	70.0	45.0	36.4
패키지 진료상품	75.0	63.6 (5 위)	43.8	70.0	65.0	90.9
저렴한 진료비	68.8	54.5 (6 위)	56.3	50.0	75.0	100.0
접근 편의성	75.0	63.6 (5 위)	75.0	60.0	65.0	90.9
편리한 예약 및 수속 절차	81.3	63.6 (4 위)	62.5	70.0	70.0	90.9
짧은 대기시간	75.0	72.7 (4 위)	68.8	80.0	55.0	81.8
능숙한 의사소통	56.3	63.6 (3 위)	50.0	90.0	65.0	72.7
진료 후/출국 후 환자관리 서비스	62.5	54.5 (5 위)	37.5	100.0	75.0	81.8
다양한 의료관광상품	56.3	54.5 (5 위)	68.8	90.0	70.0	54.5
환자지원인력의 수준(전문성)	75.0	45.5 (6 위)	62.5	100.0	75.0	90.9
보험사 연계	56.3	63.6 (2 위)	37.5	70.0	70.0	45.5

(긍정평가%= 만족도 평가 중 4점(만족), 5점(매우 만족) 응답자의 비율을 말함)  
(한국의 ()는 6개 국가 중 한국의 순위를 말함)

# 18. 국가별 Medical Skin Care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

- 전반적으로 자국어 통역 및 서비스 상세정보, 외국인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경험자의 경우, 자국어 통역 및 서비스 상세정보에 대한 불만이 타 국가 경험자 대비 높은 편임

Medical Skin Care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

■ 1순위    ■ 종합 (Base:각 서비스 이용 경험자, 복수응답, 단위: %)

BASE:경험자	Medical Skin Care 이용 경험국 별						
	전체 (n=235)	태국(n=44)	한국(n=43)	홍콩(n=25)	싱가포르(n=19)	일본(n=33)	중국(본토)(n=21)
사후 환자관리 및 서비스 미흡	3.8 12.8	11.4	4.7 14.0	8.0 16.0	5.3	3.0 9.1	
내가 가입한 보험사 연계 안됨	8.9 16.2	11.4 18.2	2.7 7.0	16.0 24.0	10.5 26.3	9.1 21.2	4.8
병원 수속/예약처리절차 불편	5.5 14.5	4.5	2.3 14.0	12.0 28.0		6.1 15.2	14.3 23.8
입국 수속 및 심사가 불편	11.1 22.1	4.5 18.2	9.3 14.0	12.0 32.0	15.8 31.6	15.2 24.2	4.8 28.6
서비스 상세 정보 부족	17.4 30.2	18.2 25.0	20.9 39.5	12.0	10.5 21.1	24.2 39.4	23.8 38.1
외국인 편의시설/전용창구 없음	14.9 28.5	18.2 31.8	14.0 27.9	16.0 28.0	15.8 26.3	15.2 30.3	14.3 28.6
교통편 불편	5.5 13.6	9.1 13.6	4.7 14.0	8.0 16.0	15.8 15.8	3.0 12.1	9.5
자국어 통역 및 의료상담 불편	22.6 36.6	22.7 45.5	34.9 51.2	20.0 28.0	26.3 42.1	12.1 24.2	28.6 42.9
환자 지원 인력 부족	3.4 6.8	4.5 9.1	4.7 7.0		10.5	3.0	4.8
연계된 관광상품이 없음	6.4 17.0	11.4 22.7	2.3 11.6	8.0 16.0	21.1	9.1 18.2	4.8 14.3

# 19. 국가별 한방진료 이용 시 불편사항

- 전반적으로 한방치료에 대한 보험사 연계, 서비스 상세정보 등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경험자의 경우, 자국어 통역과 진료 기관 이동 시 교통편, 연계 관광상품 부족에 대한 불만이 타 국가 대비 높은 편임

한방진료 이용 시 불편사항

■ 1순위 ■ 종합 (Base:각 서비스 이용 경험자, 복수응답, 단위: %)

BASE:경험자	한방진료 이용 경험국 별						
	전체 (n=112)	태국(n=16)	한국(n=11)	홍콩(n=16)	싱가포르(n=10)	일본(n=20)	중국(본토)(n=11)
사후 환자관리 및 서비스 미흡	5.4 12.5	6.3	9.1 18.2	6.3 18.8	10.0	5.0 15.0	
내가 가입한 보험사 연계 안됨	10.7 29.5	31.3	9.1 18.2	12.5 25.0	10.0 40.0	10.0 25.0	9.1 18.2
병원 수속/예약처리절차 불편	5.4 15.2	6.3	18.2 18.2	18.8	10.0	5.0 15.0	
입국 수속 및 심사가 불편	7.1 22.3	6.3 18.8		25.0	10.0 20.0	25.0 55.0	9.1
서비스 상세 정보 부족	29.5 37.5	31.3 37.5	9.1 18.2	25.0 25.0	20.0 30.0	25.0 35.0	45.5 63.6
외국인 편의시설/전용창구 없음	9.8 15.2	18.8 25.0		12.5 25.0	10.0 20.0	15.0 20.0	9.1 18.2
교통편 불편	8.0 16.1	6.3 6.3	9.1 27.3	12.5 18.8	10.0 30.0	5.0	9.1 27.3
자국어 통역 및 의료상담 불편	15.2 25.9	25.0 37.5	18.2 54.5	18.8 18.8	30.0 40.0	5.0 15.0	27.3 45.5
환자 지원 인력 부족	1.8 6.3		9.1	6.3 12.5			
연계된 관광상품이 없음	7.1 17.0	12.5 31.3	18.2 27.3	6.3 12.5		10.0 15.0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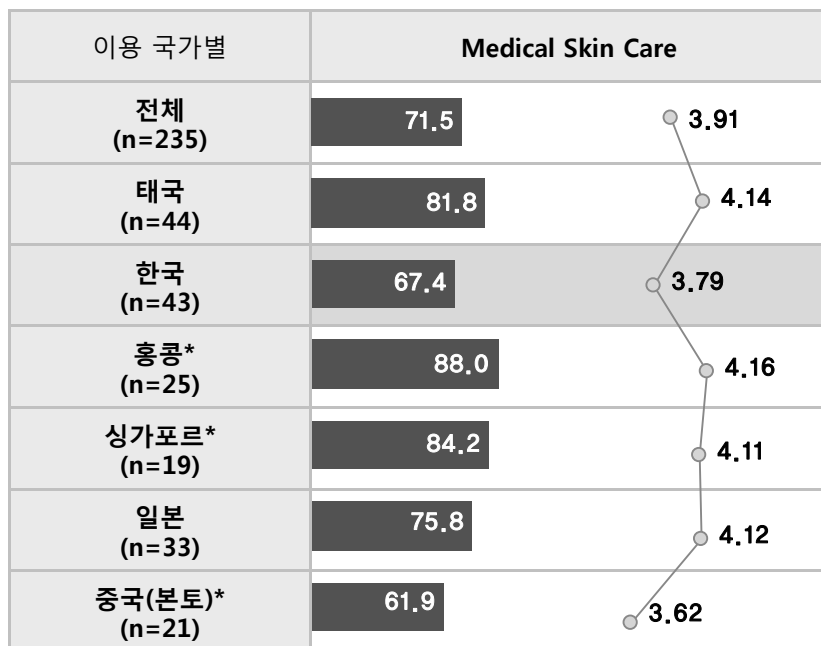


## 20. 국가별 의료서비스 재이용 의향

- Medical Skin Care의 경우 재이용 의향은 '홍콩', '싱가포르', '태국' 순으로 나타남
- 한방진료의 재이용 의향은 '중국(본토)', '싱가포르', '홍콩/태국'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Medical Skin Care와 한방진료 모두 재이용 의향이 타 국가 대비 낮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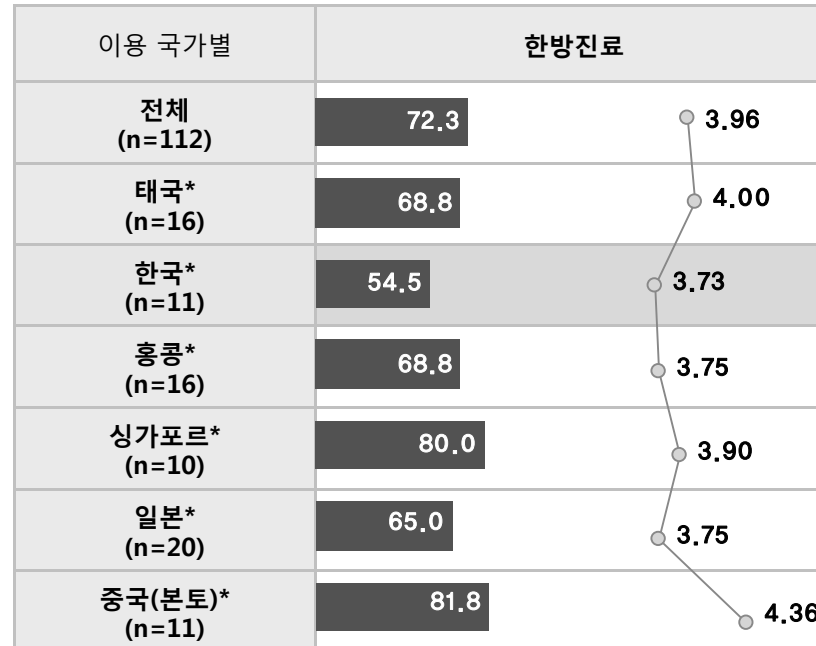
Medical Skin Care 재이용 의향 (긍정평가 기준)

■ 긍정평가% ● 5점 평균(점) (Base:각 서비스 이용 경험자, 단위: %)



한방진료 재이용 의향 (긍정평가 기준)

■ 긍정평가% ● 5점 평균(점) (Base:각 서비스 이용 경험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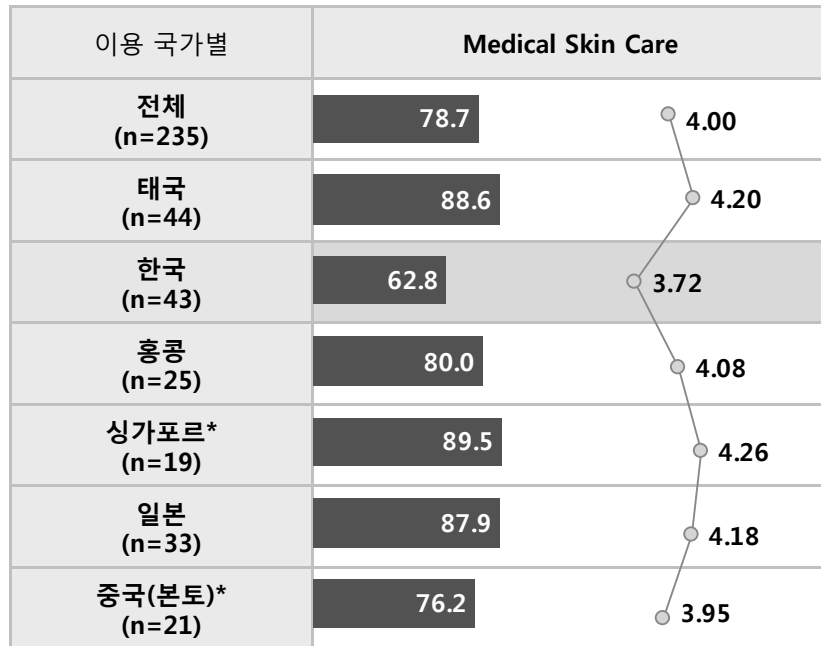
(긍정평가%= 재이용 의향 평가 중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응답자의 비율을 말함)(긍정평가%= 재이용 의향 평가 중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응답자의 비율을 말함)  
(\*사례수 30미만의 %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21. 국가별 의료서비스 추천의향

- Medical Skin Care를 주변에 추천하겠다는 응답은 '싱가포르', '태국', '일본'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한방진료의 추천의향은 '중국(본토)', '싱가포르', '일본'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재방문 의향과 함께 추천의향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Medical Skin Care 추천의향 (긍정평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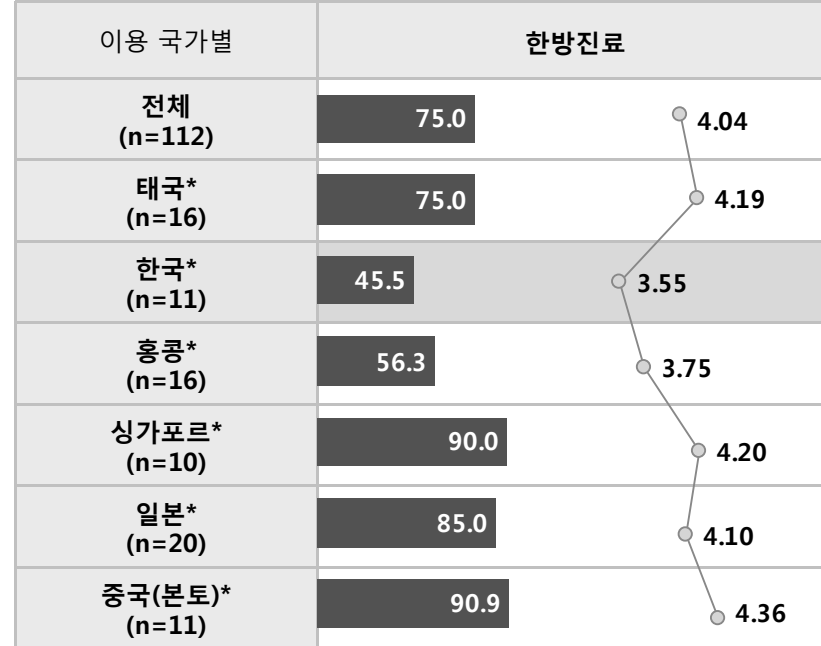
■ 긍정평가% ● 5점 평균(점) (Base:각 서비스 이용 경험자, 단위: %)



(긍정평가%= 만족도 평가 중 4점(만족), 5점(매우 만족) 응답자의 비율을 말함)

한방진료 추천의향 (긍정평가 기준)

■ 긍정평가% ● 5점 평균(점) (Base:각 서비스 이용 경험자, 단위: %)



(긍정평가%= 만족도 평가 중 4점(만족), 5점(매우 만족) 응답자의 비율을 말함)  
(\*사례수 30미만의 %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 Ⅱ . 주요 조사 결과

1. 아시아 의료관광 경험자
- 2. 한국 의료관광 경험자**
3. 향후 아시아 의료관광 이용 의향자
4. 국내외 의료관광 전문가



# □ 한국 의료관광 이용경험자 응답자 특성

##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 모름/무응답 제외)

전 체		(140)	100.0
국적	일본	(57)	40.7
	미국/ 캐나다	(50)	35.7
	기타	(33)	23.6
성별	남자	(43)	30.7
	여자	(97)	69.3
연령	20대 이하	(18)	12.8
	30대	(43)	30.7
	40대	(29)	20.7
	50대	(31)	22.1
	60대 이상	(19)	13.6
학력	전문대 이하	(60)	45.1
	4년제 대학 이상	(73)	54.9
월평균 가구 소득	1500 USD 이하	(15)	10.7
	1501~ 3000 USD	(17)	12.1
	3001~ 4500 USD	(10)	7.1
	4501~ 6000 USD	(15)	10.7
	6001~ 7500 USD	(6)	4.3

## 한국 의료관광 이용특성

(단위: %, 모름/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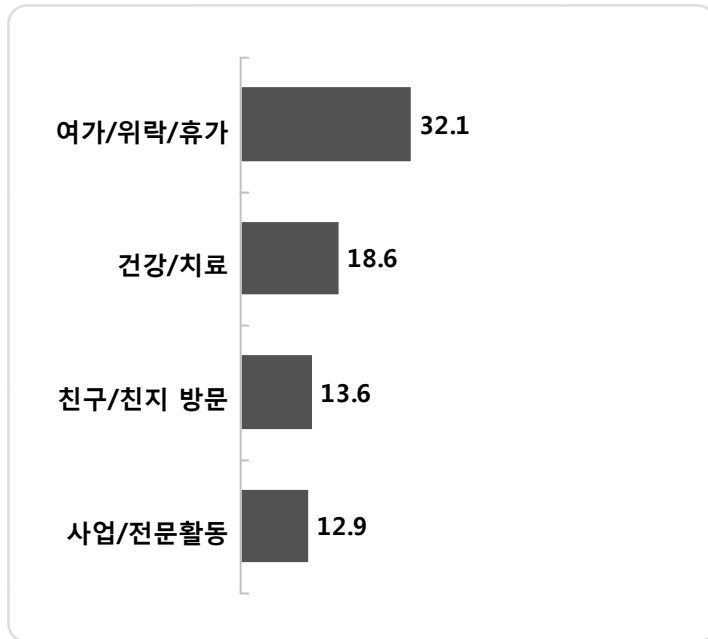
전 체		(140)	100.0
한국의료관광 경험 (회)	1회	(65)	46.4
	2회 이상	(75)	53.6
한국 방문 기간	5일 미만	(42)	32.6
	5~9일	(18)	14.0
	10~19일	(22)	17.1
	20~29일	(10)	7.8
	30일 이상	(37)	28.7
한국 여행 경비	500 USD 이하	(10)	7.1
	501~ 1000 USD	(26)	18.6
	1001~ 2000 USD	(18)	12.9
	2001~ 5000 USD	(35)	25.0
	5001 USD 이상	(14)	10.0
현재 이용 의료서비스	Medical Skin care	(40)	28.6
	건강 검진	(34)	24.3
	한방진료	(30)	21.4
	기타	(36)	25.7

# 1. 한국 방문 목적

- ‘건강/치료’(18.6%)보다는 ‘여가/위락/휴가’(32.1%)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국, 남자 및 40세 이상 연령층에서 ‘친구/친지 방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한국 방문 목적

(Base: 한국방문 경험자, n=140,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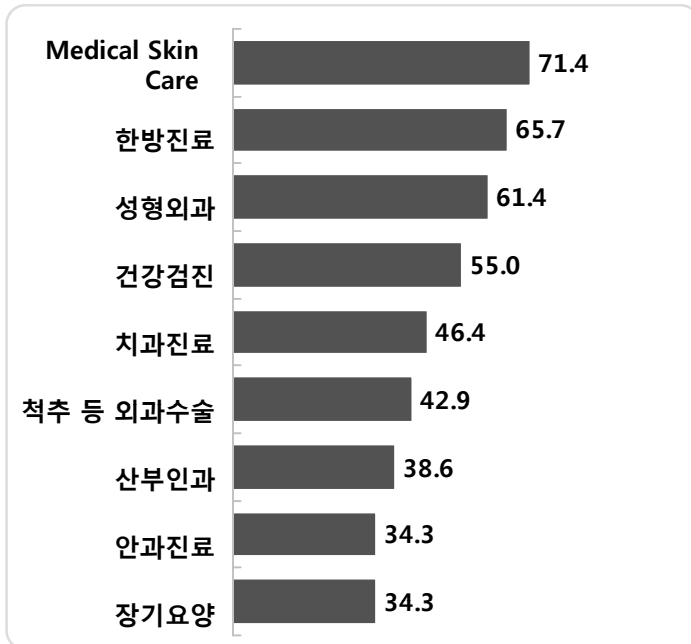
	전체	현이용 의료서비스				국가			성별		연령	
		Medical Skin Care	건강 검진	한방 진료	기타	일본	중국	미국	남	여	30대 이하	40대 이상
사 례 수	(140)	(40)	(34)	(30)	(36)	(57)	(50)	(33)	(43)	(97)	(61)	(79)
여가/위락/휴가	32.1	<u>72.5</u>	14.7	26.7	8.3	<u>50.9</u>	14.0	27.3	14.0	<u>40.2</u>	<u>37.7</u>	27.8
건강/치료	18.6	5.0	29.4	3.3	36.1	21.1	24.0	6.1	14.0	20.6	18.0	19.0
친구/친지 방문	13.6	-	<u>47.1</u>	6.7	2.8	-	<u>38.0</u>	-	<u>27.9</u>	11.3	1.6	<u>22.8</u>
사업/전문활동	12.9	10.0	8.8	33.3	2.8	5.3	14.0	<u>24.2</u>	18.6	10.3	13.1	12.7

## 2. 한국 방문 전에 알고 있었던 한국의 의료서비스

- 방문 전 한국 의료서비스 인지도는 'Medical Skin Care', '한방진료', '성형외과'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본인은 'Medical Skin Care', 미국/캐나다인은 '건강검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 한국을 의료관광 목적으로 2회 이상 방문한 경험자의 'Medical Skin Care'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방문 전 이용가능 인지 의료서비스

(Base: 한국 경험자 전체, n=140, 복수응답,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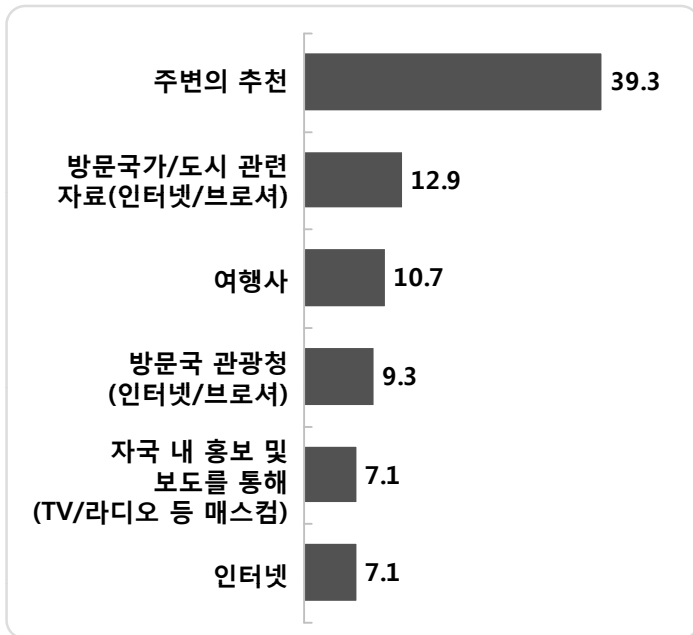
	전체	현 이용 의료서비스				국적			한국의료관광 경험 (회)	
		Medical Skin Care	건강검진	한방진료	기타	일본	미국/캐나다	기타	1회	2회 이상
사 례 수	(140)	(40)	(34)	(30)	(36)	(57)	(50)	(33)	(65)	(75)
Medical Skin Care	71.4	<u>100.0</u>	70.6	53.3	55.6	<u>82.5</u>	66.0	<u>60.6</u>	63.1	<u>78.7</u>
한방진료	65.7	52.5	70.6	<u>76.7</u>	66.7	64.9	74.0	54.5	63.1	68.0
성형외과	61.4	72.5	76.5	43.3	50.0	52.6	74.0	57.6	63.1	60.0
건강검진	55.0	17.5	<u>100.0</u>	36.7	69.4	38.6	<u>84.0</u>	39.4	53.8	56.0
치과진료	46.4	25.0	73.5	43.3	47.2	29.8	74.0	33.3	47.7	45.3
척추 등 외과수술	42.9	20.0	73.5	30.0	50.0	19.3	72.0	39.4	<u>50.8</u>	36.0
산부인과	38.6	7.5	61.8	30.0	58.3	33.3	54.0	24.2	33.8	42.7
안과진료	34.3	10.0	73.5	26.7	30.6	17.5	60.0	24.2	35.4	33.3
장기요양	34.3	5.0	50.0	36.7	50.0	19.3	56.0	27.3	33.8	34.7

### 3. 한국 의료서비스관련 정보 접촉경로

-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촉 경로 중, '주변의 추천'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Medical Skin Care 서비스의 경우, '방문국가/도시 관련자료'를 통한 정보 접촉이, 건강검진은 '주변의 추천'을 통한 정보 접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미국/캐나다인의 경우, '주변의 추천'에 대한 의존도가 60% 이상이 넘는 특징을 보임

한국 의료서비스 정보 접촉경로

(Base: 한국 경험자 전체, n=140, 복수응답, 단위: %)



응답자 특성별 분석

(단위: %)

	전체	현 이용 의료서비스				국적			연령	
		Medical Skin Care	건강 검진	한방 진료	기타	일본	미국/캐나다	기타	30대 이하	40대 이상
사 례 수	(140)	(40)	(34)	(30)	(36)	(57)	(50)	(33)	(61)	(79)
주변의 추천	39.3	12.5	<b>67.6</b>	33.3	47.2	31.6	<b>62.0</b>	18.2	32.8	<b>44.3</b>
방문국가/도시 관련 자료(인터넷/브로셔)	12.9	<b>27.5</b>	5.9	6.7	8.3	<b>22.8</b>	4.0	9.1	18.0	8.9
여행사	10.7	12.5	14.7	10.0	5.6	3.5	10.0	<b>24.2</b>	14.8	7.6
방문국 관광청 (인터넷/브로셔)	9.3	20.0	-	10.0	5.6	19.3	-	6.1	9.8	8.9
자국 내 홍보 및 보도 (TV/라디오 등 매스컴)	7.1	12.5	5.9	6.7	2.8	5.3	6.0	12.1	8.2	6.3
인터넷	7.1	5.0	-	16.7	8.3	7.0	8.0	6.1	8.2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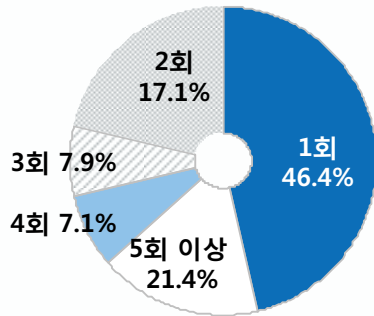
## 4. 한국 방문 시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

-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는 평균 4회 정도로 '2회 이상'이용자는 53.6%임
- 의료서비스 별로는 '한방진료' 가, 국적별로는 '일본'의 평균 이용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국 내에서 동일한 서비스 경험이 없는 계층에서 한국 방문 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4.78회)가 상대적으로 높음

### 한국 방문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

(Base: 한국 경험자 전체, n=140, 단위: %)

평균 횟수\*: 3.87 회



(\* 극단치를 제외한 값임)

### 응답자 특성별 분석

(단위: %)

	전체	현 이용 의료서비스				국적			자국 내 동일서비스 이용경험	
		Medical Skin Care	건강 검진	한방 진료	기타	일본	미국/캐나다	기타	있음	없음
사 례 수	(140)	(40)	(34)	(30)	(36)	(57)	(50)	(33)	(62)	(75)
1회	46.4	35.0	<b>67.6</b>	40.0	44.4	28.1	<b>56.0</b>	63.6	<b>53.2</b>	40.0
2회	17.1	22.5	17.6	3.3	22.2	17.5	18.0	15.2	16.1	18.7
3회	7.9	12.5	5.9	6.7	5.6	14.0	4.0	3.0	9.7	6.7
4회	7.1	10.0	-	6.7	11.1	15.8	2.0	-	6.5	8.0
5회 이상	21.4	20.0	8.8	<b>43.3</b>	16.7	<b>24.6</b>	20.0	18.2	14.5	<b>26.7</b>
평균 : (회)	3.87	3.03	1.79	<b>6.69</b>	4.50	<b>5.28</b>	3.12	2.55	2.61	<b>4.78</b>

# 5. 한국에서 이용한 의료서비스 및 한국 방문 전 고려국가

- 한국 방문 시 'Medical Skin Care' 서비스 이용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본인은 'Medical Skin Care', 미국/캐나다인은 '건강검진' 이용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한국 방문 전에 고려한 국가로는 '일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홍콩'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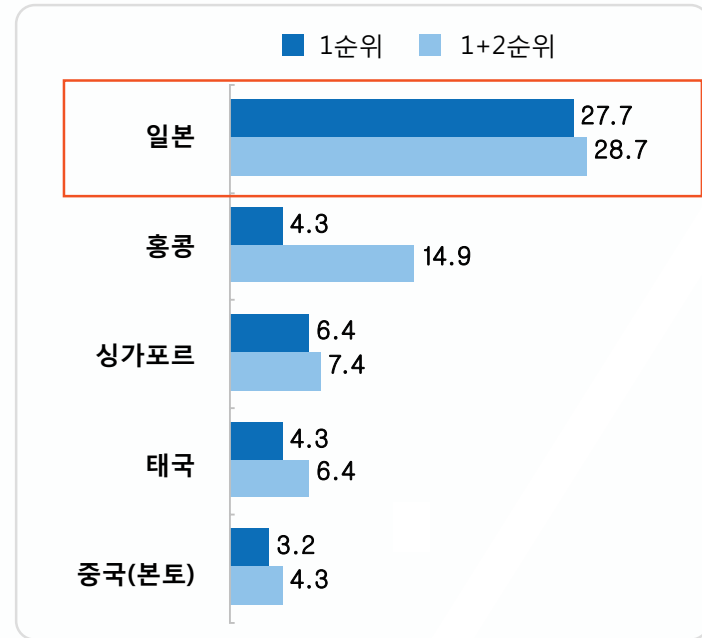
## 한국 방문 시 이용한 의료서비스(현재 방문 포함)

(Base: 한국 경험자 전체, n=140, 복수응답, 단위: %)

Base: 전체		국적별		
		일본	미국/캐나다	기타
사 례 수	(140)	(57)	(50)	(33)
Medical Skin Care	42.1	<b>73.7</b>	8.0	39.4
건강검진	36.4	12.3	<b>76.0</b>	18.2
한방진료	36.4	38.6	26.0	48.5
척추 등 외과수술	18.6	10.5	14.0	39.4
산부인과	12.1	28.1	2.0	-
치과진료	8.6	3.5	8.0	18.2
성형외과	6.4	3.5	6.0	12.1
장기요양	3.6	3.5	4.0	3.0

## 한국 방문 전 방문 고려 국가

(Base: 여행전 계획 응답자, n=94, 복수응답, 단위: %)



## 6. 현재 한국 방문 중 이용한 의료서비스

- 현 한국 방문 중에 이용한 의료서비스도 아시아 의료관광 경험자와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며, 'Medical Skin Care'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일본인은 'Medical Skin Care', 미국/캐나다인은 '건강검진' 이용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국 의료관광 2회 이상 경험자의 'Medical Skin Care' 이용 경험률이 높음

### 현재 한국 방문 중 이용경험 의료서비스

(Base: 한국경험자 전체, n=140,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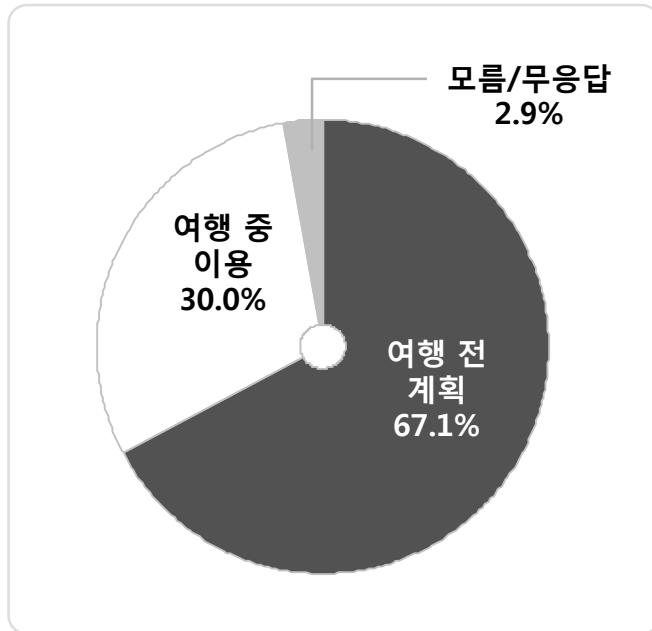
	전체	현 이용 의료서비스				국적			한국의료관광 경험 (회)	
		Medical Skin Care	건강검진	한방과 진료	기타	일본	미국/캐나다	기타	1회	2회 이상
사 례 수	(140)	(40)	(34)	(30)	(36)	(57)	(50)	(33)	(65)	(75)
Medical Skin Care	35.0	100.0	2.9	10.0	13.9	<b>59.6</b>	6.0	36.4	26.2	<b>42.7</b>
한방진료	28.6	-	-	100.0	27.8	26.3	20.0	45.5	23.1	33.3
건강검진	27.1	-	100.0	10.0	2.8	-	<b>70.0</b>	9.1	<b>36.9</b>	18.7
척추 등 외과수술	16.4	-	-	26.7	41.7	10.5	10.0	36.4	15.4	17.3
산부인과	11.4	-	-	3.3	41.7	28.1	-	-	6.2	16.0
성형외과	4.3	7.5	5.9	3.3	-	1.8	4.0	9.1	1.5	6.7
장기요양	2.9	-	-	3.3	8.3	3.5	2.0	3.0	3.1	2.7
치과진료	2.1	-	-	6.7	2.8	-	2.0	6.1	1.5	2.7

## 7. 현재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 사전 계획 여부

- 한국 방문 전에 의료서비스 이용을 계획한 응답자가 67.1%로 전반적으로 사전 계획 비중이 높은 편임
- 한방진료 경험자는 '여행 중 알고 이용'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국 의료관광 2회 이상 경험자의 경우 '여행 전 계획'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사전 계획 여부

(Base: 한국 경험자 전체, n=140, 단위: %)



응답자 특성별 분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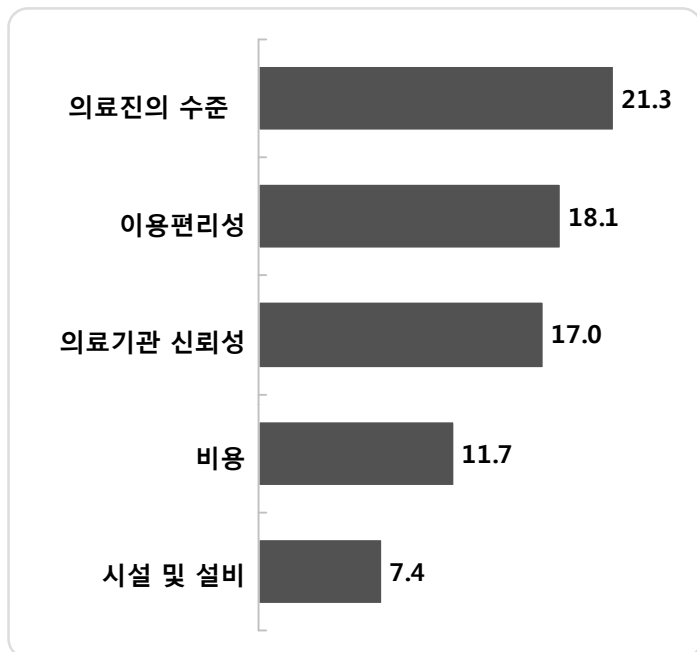
	전체	현 이용 의료서비스				국적			한국의료관광 경험 (회)	
		Medical Skin Care	건강 검진	한방 진료	기타	일본	미국/캐나다	기타	1회	2회 이상
사 례 수	(140)	(40)	(34)	(30)	(36)	(57)	(50)	(33)	(65)	(75)
여행 전에 계획	67.1	75.0	<u>100.0</u>	30.0	58.3	<u>80.7</u>	78.0	27.3	63.1	<u>70.7</u>
여행 전 계획 없이, 여행 중에 알고 이용	30.0	25.0	-	<u>70.0</u>	30.6	12.3	22.0	72.7	33.8	26.7

## 8. 현재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선택한 이유

-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 '의료진의 수준'이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건강검진은 '이용 편리성', 한방진료 경험자는 '의료기관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높은 편임
- 한국 의료관광 2회 이상 경험자는 '의료기관 신뢰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

### 한국 선택 이유

(Base: 여행 전 계획 응답자, n=94,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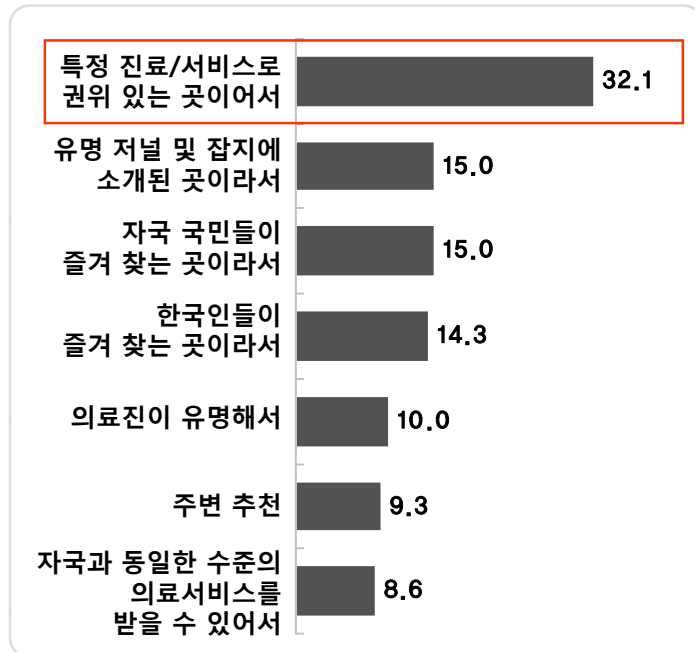
	전체	현 이용 의료서비스				국적			한국의료관광 경험 (회)	
		Medical Skin Care	건강 검진	한방 진료	기타	일본	미국/캐나다	기타	1회	2회 이상
사 례 수	(94)	(30)	(34)	(9)	(21)	(46)	(39)	(9)	(41)	(53)
의료진의 수준	21.3	26.7	8.8	22.2	33.3	23.9	15.4	33.3	<u>26.8</u>	17.0
이용편리성	18.1	3.3	<u>44.1</u>	-	4.8	2.2	<u>38.5</u>	11.1	<u>26.8</u>	11.3
의료기관 신뢰성	17.0	16.7	5.9	<u>33.3</u>	28.6	<u>28.3</u>	5.1	11.1	4.9	<u>26.4</u>
비용	11.7	23.3	8.8	-	4.8	17.4	7.7	-	12.2	11.3
시설 및 설비	7.4	13.3	2.9	-	9.5	8.7	2.6	22.2	4.9	9.4

## 9. 현재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기관 선택 이유

- 최근에 이용한 서비스 기관을 선택한 이유로 '특정 진료/서비스로 권위 있는 곳'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방진료 경험자는 '권위 있는 곳', 건강검진 경험자는 '유명 저널 및 잡지에 소개된 곳'이라는 이유가 높음
- 일본인의 경우 '자국 및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서'라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의료서비스기관 선택 이유

(Base: 한국 경험자 전체, n=140, 복수응답,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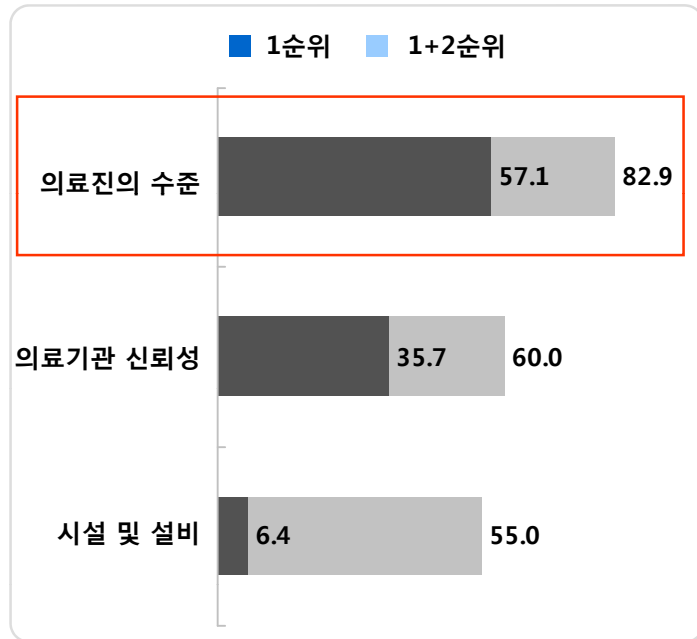
	전체	현 이용 의료서비스				국적		
		Medical Skin Care	건강 검진	한방 진료	기타	일본	미국/캐나다	기타
사 례 수	(140)	(40)	(34)	(30)	(36)	(57)	(50)	(33)
특정 진료/서비스로 권위 있는 곳	32.1	22.5	2.9	<u>43.3</u>	61.1	33.3	26.0	39.4
유명 저널 및 잡지에 소개된 곳	15.0	15.0	<u>26.5</u>	20.0	-	15.8	20.0	6.1
자국 국민들이 즐겨 찾는 곳	15.0	22.5	11.8	-	22.2	<u>24.6</u>	10.0	6.1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	14.3	<u>22.5</u>	11.8	13.3	8.3	<u>21.1</u>	10.0	9.1
의료진이 유명해서	10.0	10.0	8.8	10.0	11.1	3.5	14.0	15.2
주변 추천	9.3	2.5	17.6	13.3	5.6	-	16.0	15.2
자국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8.6	17.5	-	10.0	5.6	12.3	-	15.2

# 10.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 시 고려사항 (서비스 차원)

- 서비스 차원의 주 고려요소로는 '의료진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남
- Medical Skin Care 경험자는 '의료기관 신뢰성'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높고 일본인은 '의료기관 신뢰성', 미국/캐나다인은 '의료진의 수준'을 중시하는 편임

## 서비스 차원

(Base: 한국 경험자 전체, n=140, 복수응답,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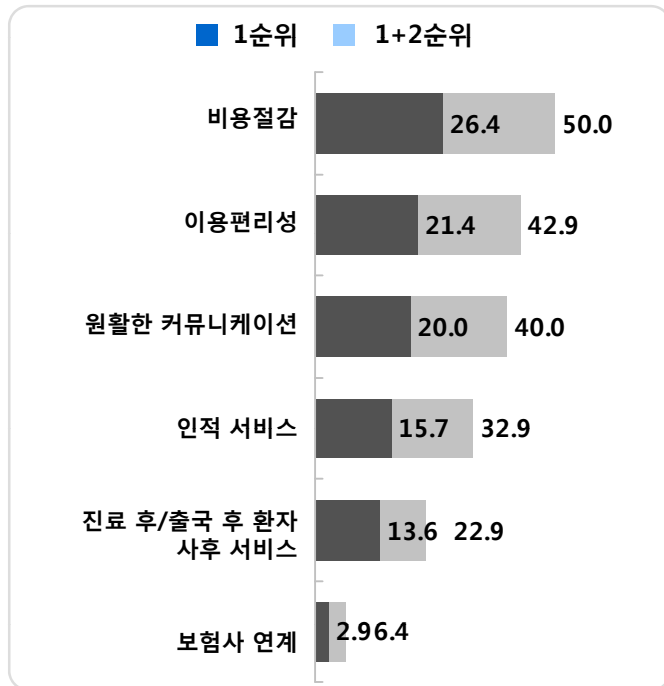
1+2순위 기준	전체	현 이용 의료서비스				국적			한국 의료관광 경험 (회)		자국내 동일 서비스이용경험	
		Medical Skin Care	건강 검진	한방 진료	기타	일본	미국/캐나다	기타	1회	2회 이상	있음	없음
사 례 수	(140)	(40)	(34)	(30)	(36)	(57)	(50)	(33)	(65)	(75)	(62)	(75)
의료진의 수준	82.9	67.5	91.2	<b>93.3</b>	83.3	75.4	<b>92.0</b>	81.8	83.1	82.7	79.0	<b>86.7</b>
의료기관 신뢰성	60.0	<b>80.0</b>	17.6	70.0	69.4	<b>80.7</b>	30.0	69.7	52.3	66.7	51.6	66.7
시설 및 설비	55.0	52.5	85.3	36.7	44.4	43.9	72.0	48.5	63.1	48.0	67.7	44.0

# 11.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 시 고려사항 (서비스 지원 차원)

- 서비스 지원 차원 중 '비용'을 우선 고려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건강검진 경험자는 '이용편리성', 한방진료 경험자는 '커뮤니케이션'이 주 고려요소 임
- 한국 의료관광 2회 이상 경험자는 '비용' 및 '인적 서비스'를 고려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서비스 지원 차원

(Base: 한국 경험자 전체, n=140, 복수응답,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단위: %)

1+2순위 기준	전체	현 이용 의료서비스				국적			한국의료관광 경험 (회)		자국내 동일서비스 이용경험	
		Medical Skin Care	건강 검진	한방 진료	기타	일본	미국/캐나다	기타	1회	2회 이상	있음	없음
사 례 수	(140)	(40)	(34)	(30)	(36)	(57)	(50)	(33)	(65)	(75)	(62)	(75)
비용	50.0	<b>70.0</b>	35.3	36.7	52.8	<b>68.4</b>	36.0	39.4	43.1	<b>56.0</b>	<b>56.5</b>	42.7
이용편리성	42.9	20.0	<b>79.4</b>	36.7	38.9	31.6	<b>58.0</b>	39.4	<b>55.4</b>	32.0	46.8	40.0
커뮤니케이션	40.0	42.5	35.3	<b>50.0</b>	33.3	43.9	36.0	39.4	41.5	38.7	33.9	<b>45.3</b>
인적 서비스	32.9	22.5	17.6	36.7	55.6	36.8	28.0	33.3	24.6	<b>40.0</b>	33.9	33.3
진료 후/출국 후 환자 사후서비스	22.9	35.0	20.6	20.0	13.9	15.8	24.0	33.3	23.1	22.7	25.8	20.0
보험사 연계	6.4	5.0	8.8	6.7	5.6	-	12.0	9.1	9.2	4.0	1.6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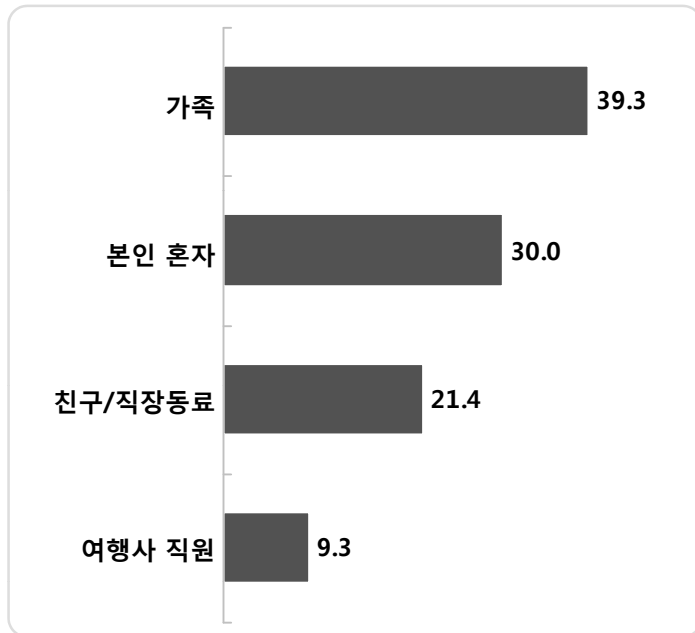


## 12. 현재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 동반자

- 동반자로는 '가족'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본인 혼자', '친구/직장동료'의 순임
- Medical Skin Care는 '친구/직장동료', 건강검진 경험자는 '가족'과 함께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의료관광 경험이 많을수록 혼자 방문하는 비율이 높음

의료서비스 동반자

(Base: 한국 경험자 전체, n=140, 복수응답, 단위: %)



응답자 특성별 분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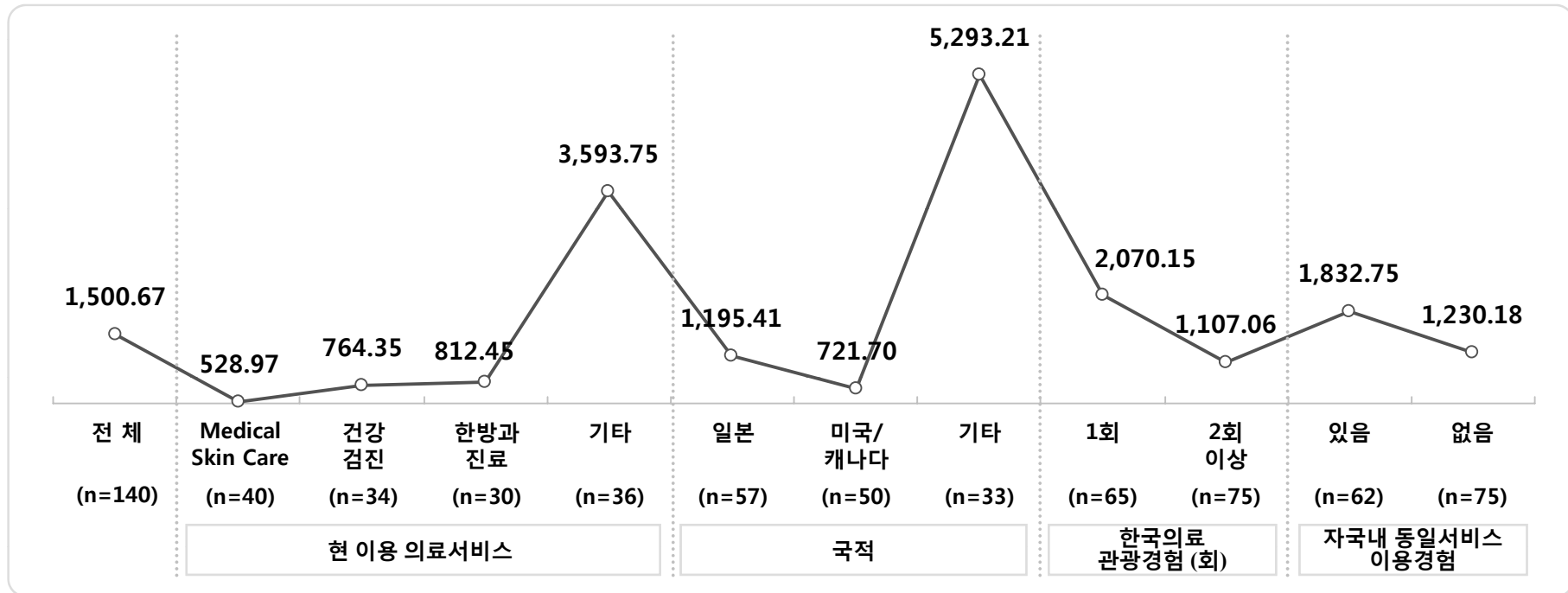
	전체	현 이용 의료서비스				국적			한국 의료관광 경험 (회)	
		Medical Skin Care	건강검진	한방진료	기타	일본	미국/캐나다	기타	1회	2회 이상
사 례 수	(140)	(40)	(34)	(30)	(36)	(57)	(50)	(33)	(65)	(75)
가족	39.3	25.0	<b>79.4</b>	10.0	41.7	31.6	<b>66.0</b>	12.1	<b>44.6</b>	34.7
본인 혼자	30.0	20.0	14.7	<b>40.0</b>	47.2	31.6	24.0	36.4	21.5	<b>37.3</b>
친구/직장동료	21.4	<b>30.0</b>	8.8	33.3	13.9	<b>35.1</b>	12.0	12.1	18.5	24.0
여행사 직원	9.3	20.0	-	16.7	-	3.5	-	33.3	12.3	6.7

# 13. 현재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 지출금액

- 서비스 지출금액은 USD 기준 1500달러 정도로 나타나지만, 이용서비스가 국적에 따라 차이를 보임
- 한국 의료관광경험이 적거나, 자국 내 동일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자의 의료서비스 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최근 이용경험 의료서비스 지출금액 (USD)

(Base: 한국경험자 전체, n=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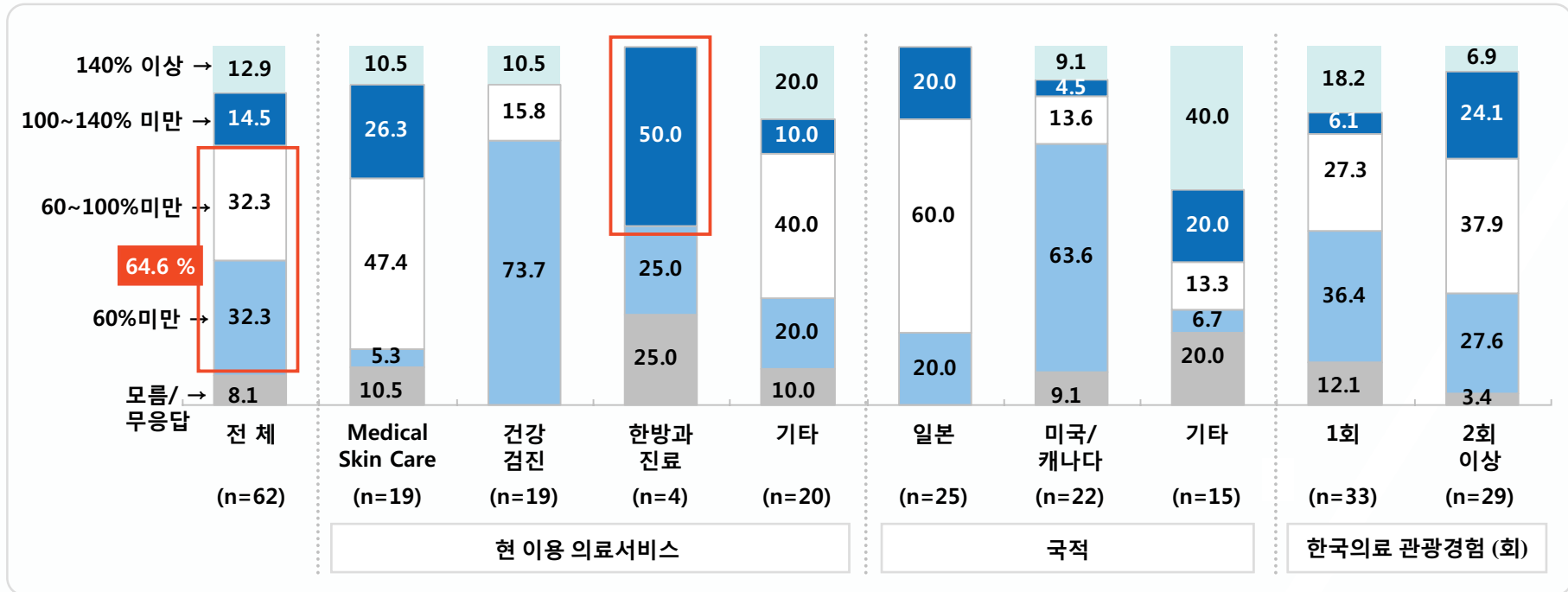


# 14. 현재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의 자국대비 비용 수준

- 자국대비 이용금액은 '100% 미만'이 약 65%로 한국의 의료서비스 비용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보임
- 이용 경험이 많은 상위 3개 서비스 중, 한방진료 경험자의 경우 자국대비 '100%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최근 이용경험 의료서비스 자국대비 이용금액(%)

(Base: 최근 이용서비스 자국이용 경험자, n=6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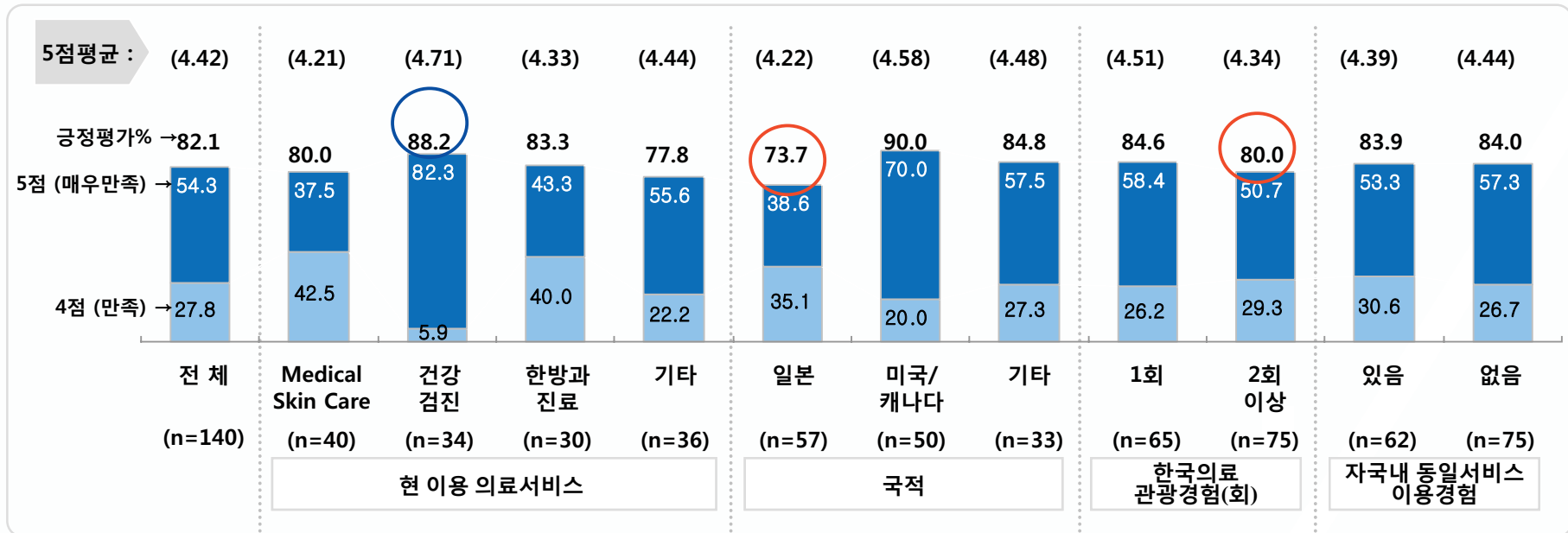


# 15.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는 4.42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건강검진은 '매우 만족' 비율이 82.3%로 매우 높음
- 자국의 의료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일본인의 '매우 만족' 비율이 낮은 편임

### 한국 의료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Base: 한국경험자 전체, n=14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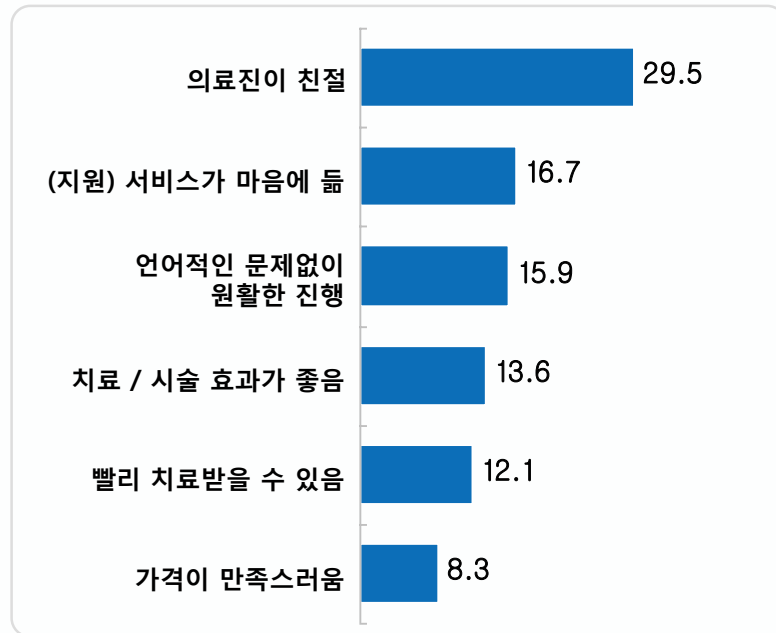
(긍정평가%= 만족도 평가 중 4점(만족), 5점(매우 만족) 응답자의 비율을 말함)

# 16.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 이유

- 한국의 의료서비스 경험자들은 친절한 의료진과 지원서비스 면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Medical Skin Care 및 한방진료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치료/시술 효과 면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

## 만족 이유

(Base: 한국 서비스 만족응답자, n=132, 복수응답,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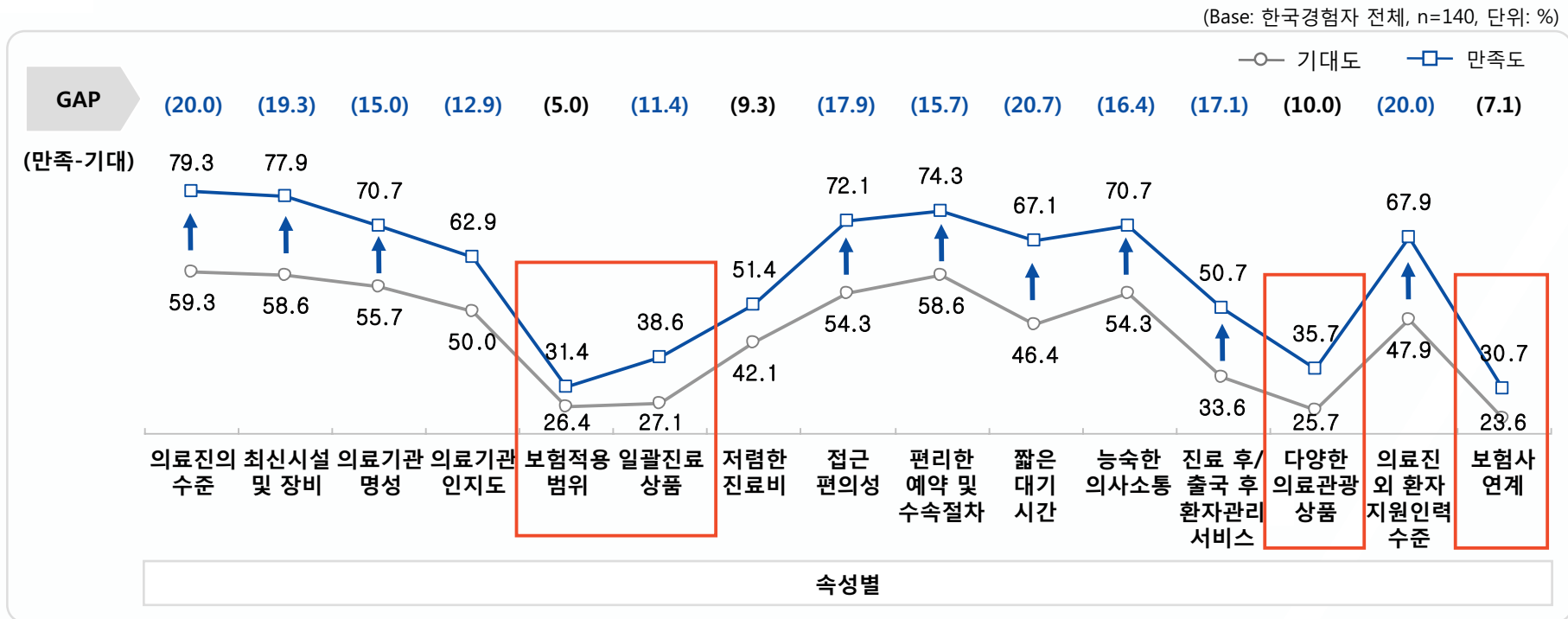
(단위: %)

	전체	현이용 의료서비스			
		Medical Skin Care	건강검진	한방과진료	기타
사 례 수	(132)	(39)	(34)	(27)	(32)
의료진이 친절	29.5	10.3	<b>73.5</b>	14.8	18.8
(지원)서비스가 마음에 듭	16.7	7.7	35.3	11.1	12.5
언어적인 문제없이 원활한 진행	15.9	15.4	14.7	18.5	15.6
치료 / 시술 효과가 좋음	13.6	<b>25.6</b>	-	<b>22.2</b>	6.3
빨리 치료받을 수 있음	12.1	2.6	29.4	3.7	12.5
가격이 만족스러움	8.3	10.3	17.6	-	3.1

# 17. 한국 의료서비스 속성별 기대 및 만족도

- 전반적으로 기대 대비 만족도가 높고, 특히 '의료진 수준'과 '최신 시설 및 장비' 속성은 만족-기대의 갭(Gap)이 큰 편임
- '보험적용 범위', '일괄진료상품', '보험사 연계',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 속성은 기대수준과 만족도가 모두 낮게 평가되어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여짐

한국 의료서비스 속성별 기대 및 만족도 (긍정평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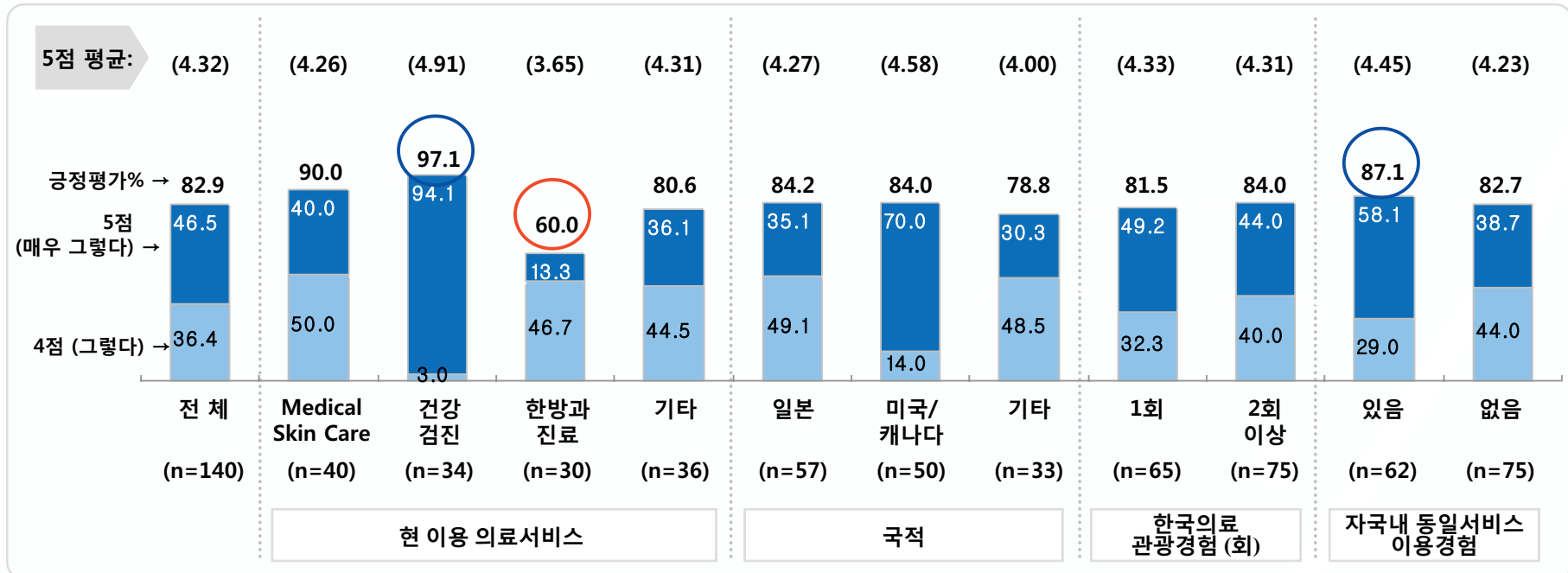
(긍정평가%= 만족도 및 기대도 평가 중 4점, 5점 응답자의 비율을 말함)

# 18. 의료서비스 재이용을 위한 한국 재방문의향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 방문의향은 82.9%로 높은 수준임
-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자의 재 방문의향이 가장 높은 반면, 한방진료 서비스 이용자의 재 방문의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자국 내 동일서비스 이용경험자의 재방문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음

이용경험 의료서비스를 위한 한국 재방문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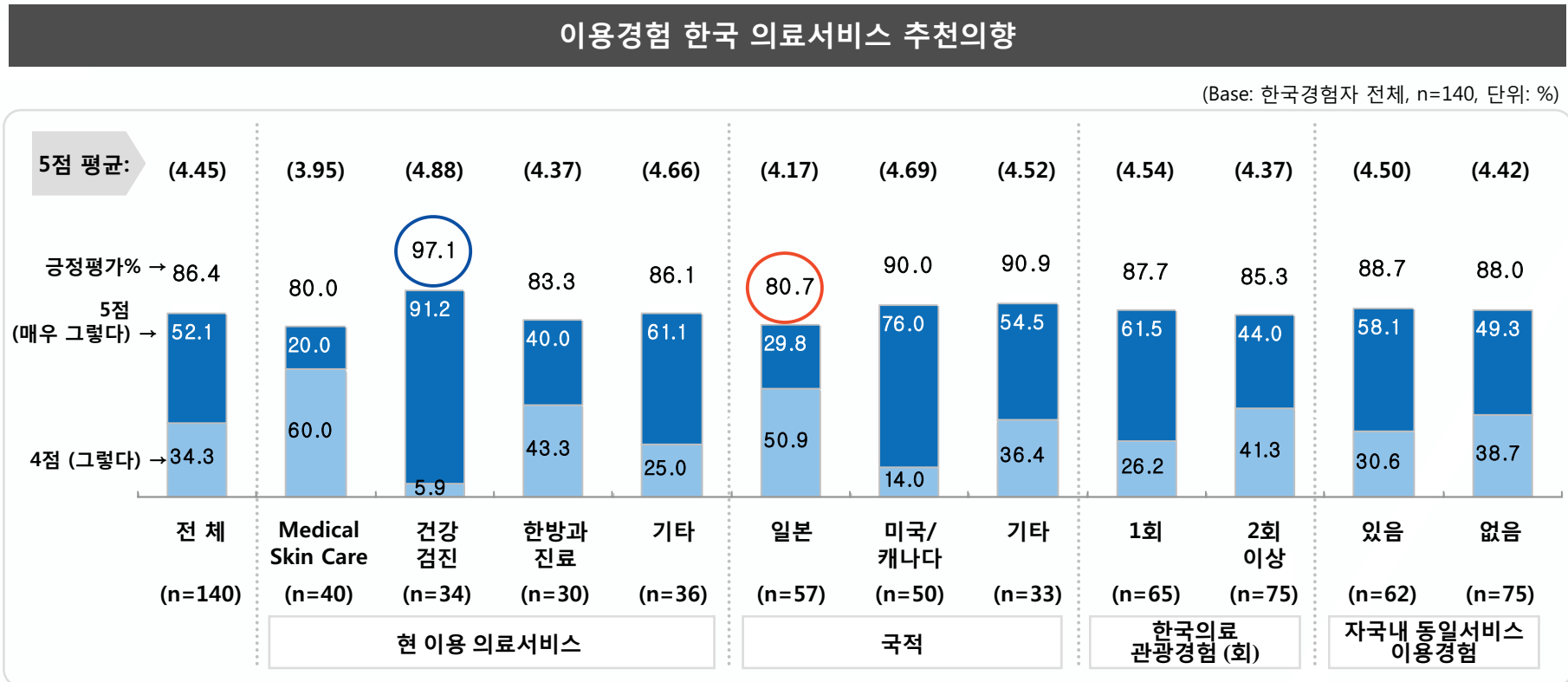
(Base: 한국경험자 전체, n=140, 단위: %)



(긍정평가%= 재방문의향 평가 중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응답자의 비율을 말함)

# 19. 이용했던 한국 의료서비스 추천의향

- 이용경험이 있는 서비스 추천의향은 86.4%로 높은 수준임
- 서비스별로는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추천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일본인의 서비스 추천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긍정평가%= 추천의향 평가 중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응답자의 비율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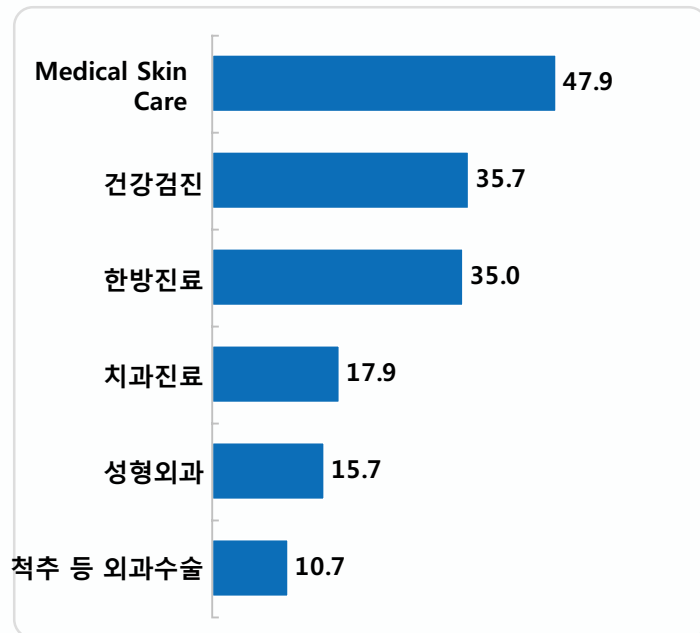


## 20. 향후 한국 방문 시 이용하고 싶은 의료서비스

- 향후 이용하고 싶은 한국의 의료서비스로 Medical Skin Care가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본인은 'Medical Skin Care', 미국/캐나다인은 '건강검진'에 대한 이용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한국 의료관광 2회 이상 경험자와 자국 내 동일서비스 이용경험자는 'Medical Skin Care' 이용의향이 높은 편임

### 향후 이용의향 의료서비스

(Base: 한국경험자 전체, n=140, 복수응답,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단위: %)

	전체	현 이용 의료서비스				국적			한국의료관광 경험 (회)		자국내 동일서비스 이용경험	
		Medical Skin Care	건강검진	한방진료	기타	일본	미국/캐나다	기타	1회	2회 이상	있음	없음
사 례 수	(140)	(40)	(34)	(30)	(36)	(57)	(50)	(33)	(65)	(75)	(62)	(75)
Medical Skin Care	47.9	<b>87.5</b>	20.6	30.0	44.4	<b>71.9</b>	18.0	51.5	38.5	<b>56.0</b>	<b>50.0</b>	46.7
건강검진	35.7	12.5	<b>85.3</b>	26.7	22.2	10.5	<b>70.0</b>	27.3	<b>41.5</b>	30.7	45.2	29.3
한방진료	35.0	25.0	2.9	<b>70.0</b>	47.2	43.9	22.0	39.4	27.7	41.3	33.9	36.0
치과진료	17.9	15.0	17.6	20.0	19.4	12.3	24.0	18.2	12.3	22.7	12.9	22.7
성형외과	15.7	37.5	5.9	6.7	8.3	17.5	8.0	24.2	16.9	14.7	12.9	18.7
척추 등 외과수술	10.7	-	-	26.7	19.4	7.0	4.0	27.3	12.3	9.3	9.7	10.7

## 21. 한국 방문 시 관광활동 및 니즈 (Needs)

- 의료서비스 이용자들 가운데 절반이상이 쇼핑이나 관광지 방문 등을 사전에 계획하고 있어 의료↔ 관광의 연계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른 관광 활동은 계획대비 감소하는 반면, 의료서비스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대조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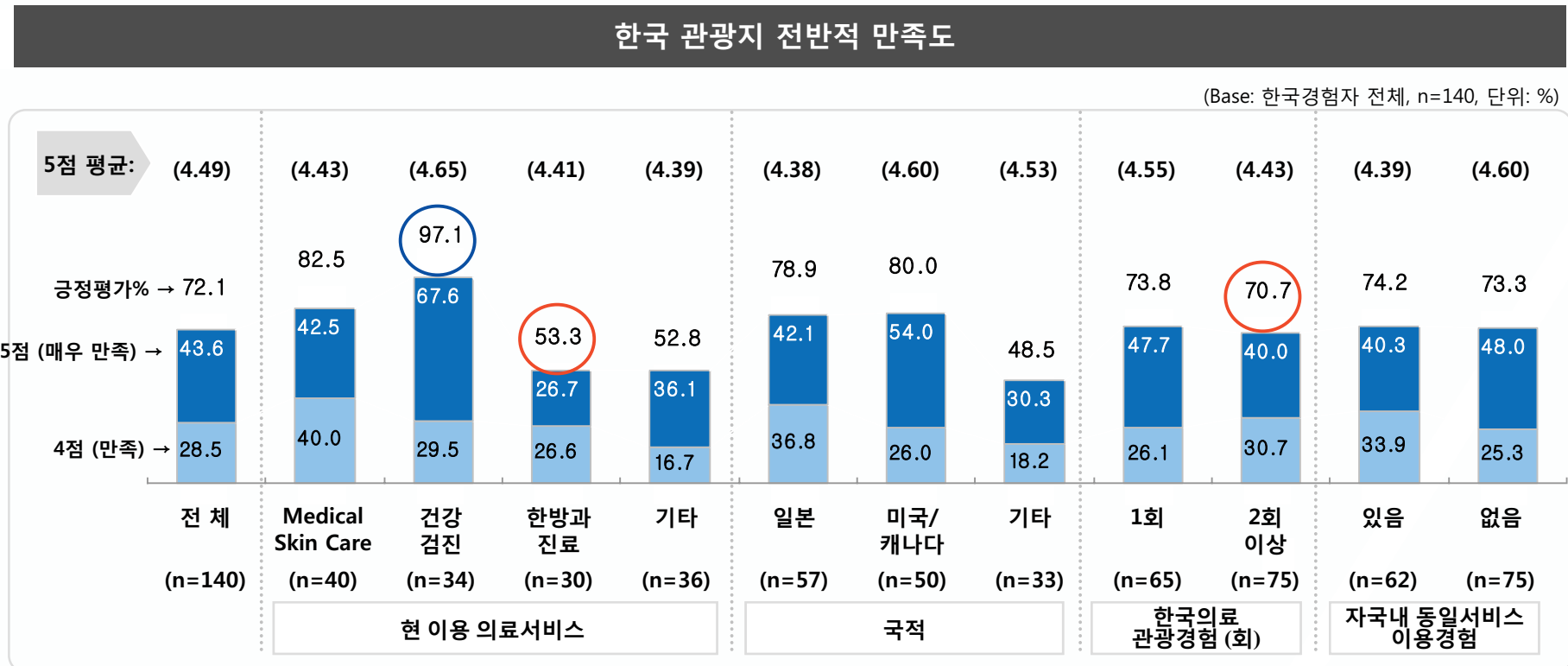
### 한국 방문 시 관광활동

(Base: 한국경험자 전체, n=140, 복수응답, 단위: %)

구분	방문 전 계획활동	방문 시 실제 이용활동	최선호 활동 (단수응답)	비선호 활동 (단수응답)	향후 의향 활동
쇼핑	52.9	42.1 ↓	10.7	5.0	52.1
관광지방문	50.7	35.7 ↓	12.9	2.1	47.1
식도락여행	42.9	30.7 ↓	8.6	4.3	46.4
의료서비스	43.6	46.4 ↑	20.0	1.4	39.3
미용서비스	30.0	32.9 ↑	8.6	1.4	36.4
휴양 및 휴식	25.7	12.1		1.4	25.0
문화체험 (절, 태권도, 한국요리 등)	15.0	12.1	2.9	0.7	20.7
온천	10.7	6.4	2.1	1.4	17.9
스포츠 (골프,스키,수영,해변활동)	7.1	4.3			11.4
공연, 민속행사, 축제참가	8.6	9.3 ↑	0.7		11.4
유흥/오락	12.1	8.6	0.7	1.4	10.0
레저스포츠 (캠핑,등반,트레킹,하이킹)	5.0	5.7 ↑		0.7	5.7

## 22. 한국 관광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한국 관광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72.1%로 긍정적으로 보임
- 건강검진 이용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한방진료 이용자의 만족도는 낮은 편임
- 한국 의료관광 경험이 2회 이상 있는 계층의 만족도가 비경험자 대비 다소 낮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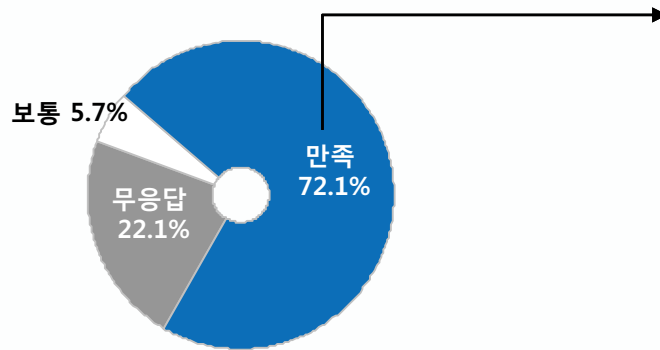


(긍정평가%= 만족도 평가 중 4점(만족), 5점(매우 만족) 응답자의 비율을 말함)

## 23. 한국 관광지에 대한 만족 이유

○ 관광지로서의 한국은 친절한 사람들, 음식, 대중교통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국 관광지 전반적 만족 이유



(Base: 한국경험자 전체, n=14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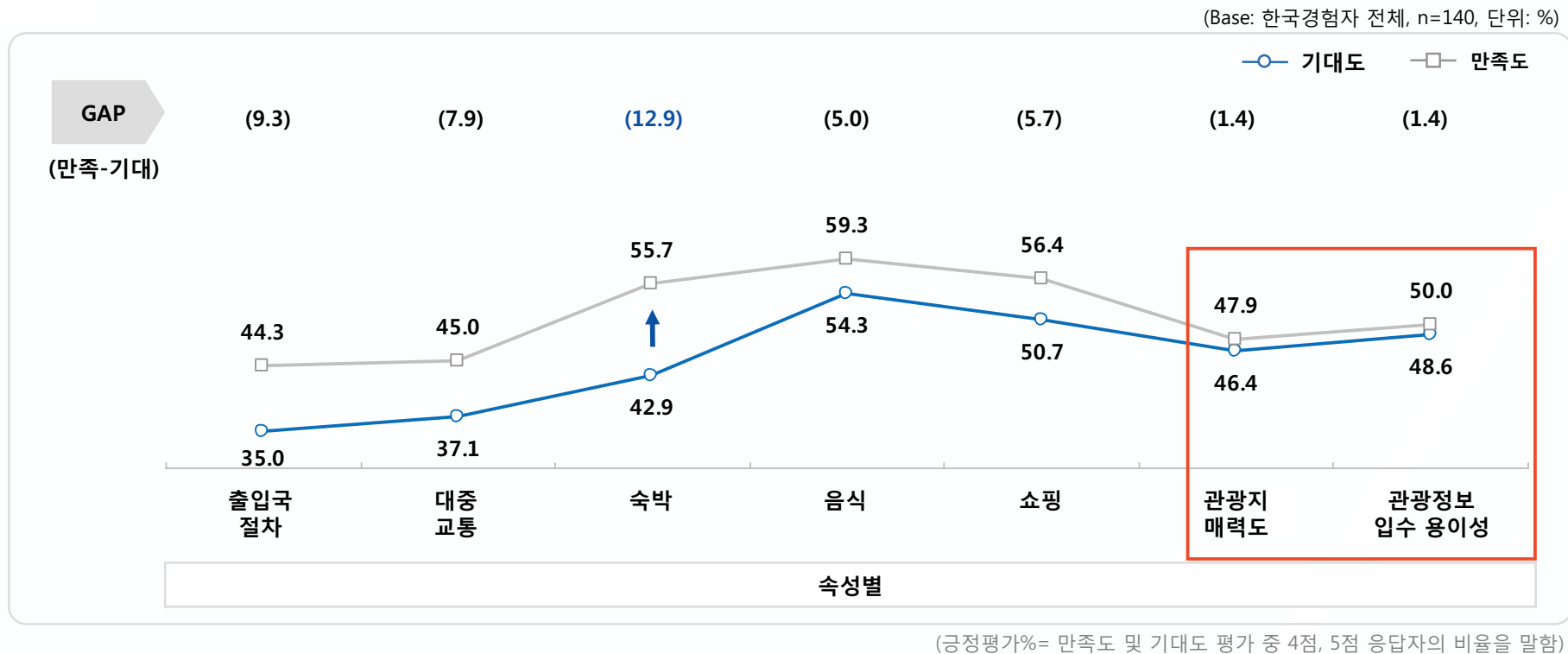
친절함	24.8
맛있는 음식 (일본 ↑)	12.9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편리 (미국/캐나다 ↑)	12.9
날씨가 좋음	11.9
문화가 친근하고 익숙함	9.9
자연환경이 좋음	8.9
쇼핑하기에 좋음	7.9
언어에 대한 불편이 없음	7.9
모국이기 때문에	5.0
지인들을 만날 수 있음	4.0
병원시설이 생각한 것 보다 좋았음	3.0
재미있고 진기한 경험	3.0
물가가 저렴함	3.0

(Base: 한국 관광지 만족응답자, n=101, 복수응답, 단위: %)

## 24. 한국 관광지의 속성별 기대 및 만족도

- 전반적으로 모든 속성에서 기대 대비 만족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관광지 매력도'와 '관광정보 입수용이성' 속성은 기대 대비 만족도 차(Gap)가 매우 적어, 두가지 측면은 기대이상의 만족을 제공하는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한국 관광지 속성별 기대도 및 만족도 (긍정평가 기준)



## 25. 한국 관광지 방문 시 불편사항

- 한국 방문 시 '언어소통불편'에 대한 지적이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Medical Skin Care 이용자는 '언어소통' 및 '상품 구입강요'를, 건강검진 이용자는 '안내표지판'을 불만요소로 응답함
- 국가별로 일본인은 '상품구입강요', 미국/캐나다인은 '교통문제'가 주 불편사항인 것으로 보임

### 한국 관광지 방문 시 불편사항

(Base: 한국경험자 전체, n=140,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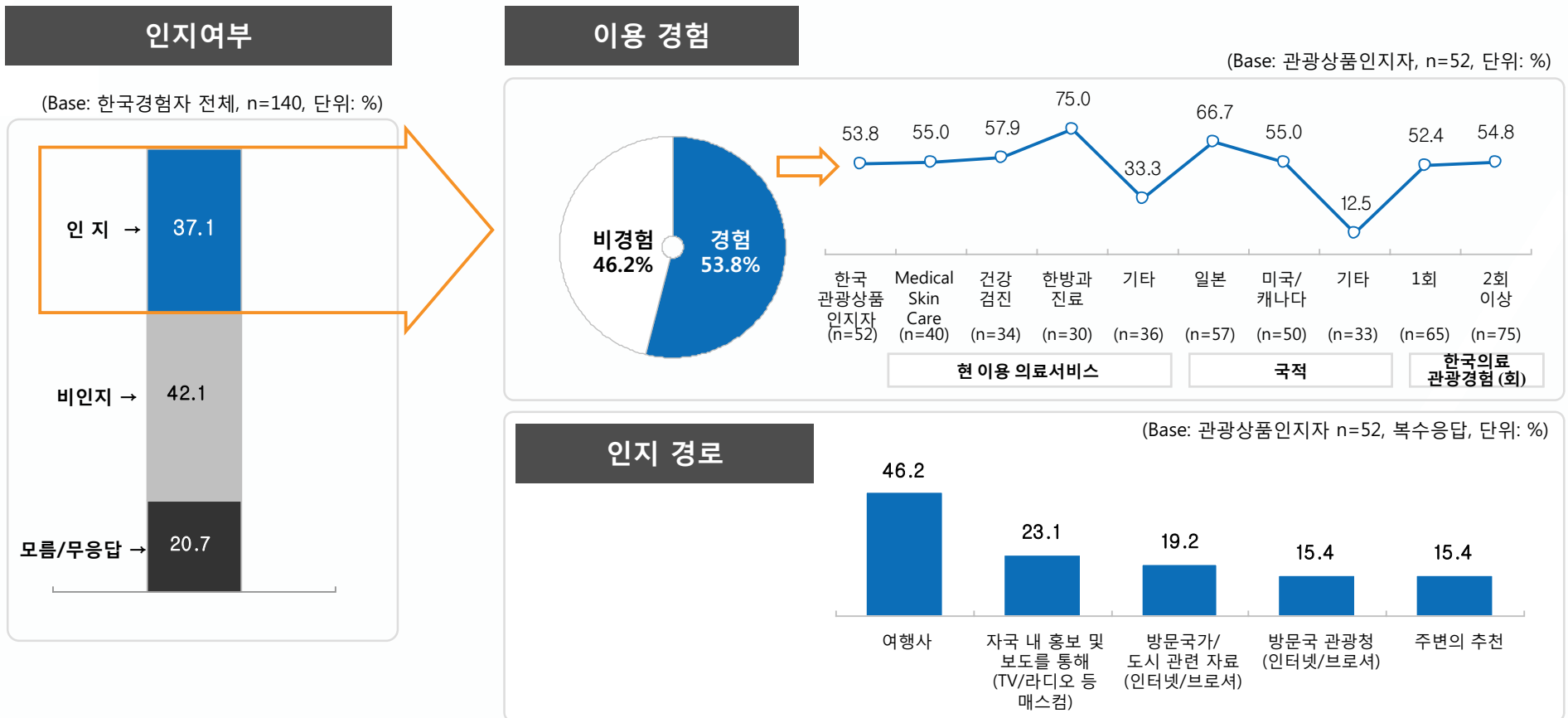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

(단위: %)

	전체	현 이용 의료서비스				국적			한국의료관광 경험 (회)		자국내 동일서비스 이용경험	
		Medical Skin Care	건강검진	한방진료	기타	일본	미국/캐나다	기타	1회	2회 이상	있음	없음
사 례 수	(140)	(40)	(34)	(30)	(36)	(57)	(50)	(33)	(65)	(75)	(62)	(75)
언어소통 불편	22.1	<b>37.5</b>	-	26.7	22.2	26.3	10.0	<b>33.3</b>	20.0	<b>24.0</b>	21.0	22.7
안내표지판	15.0	25.0	<b>17.6</b>	10.0	5.6	21.1	12.0	9.1	10.8	18.7	16.1	14.7
상품구입 강요	15.0	<b>27.5</b>	5.9	13.3	11.1	<b>29.8</b>	6.0	3.0	7.7	21.3	14.5	16.0
대중교통 이용	10.0	12.5	8.8	10.0	8.3	14.0	8.0	6.1	4.6	14.7	16.1	5.3
교통문제	10.0	10.0	8.8	16.7	5.6	1.8	<b>16.0</b>	15.2	9.2	10.7	4.8	14.7
높은 물가	9.3	10.0	2.9	13.3	11.1	10.5	8.0	9.1	3.1	14.7	6.5	12.0

## 26. 현재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광상품 인지

-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37.1%만이 한국 관광상품을 인지하고 있음
- 인지자의 과반수인 53.8%가 이용경험이 있으며, 특히 한방진료 이용 경험자와 일본인의 경험률이 높은 편임
- 주 인지경로는 '여행사', '자국 내 홍보/보도' 및 '방문 국가 관련자료'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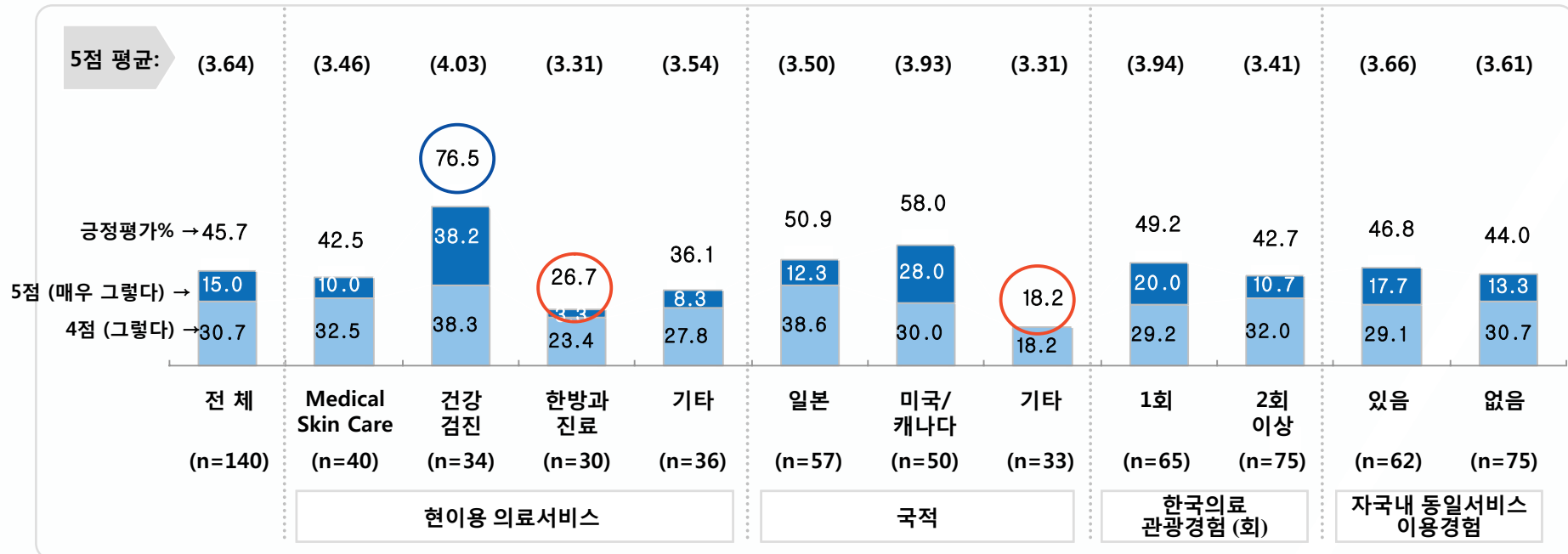


## 27. 현재 이용 중인 한국 의료서비스 관련 관광상품 이용의향

- 이용경험이 있는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한국관광상품 이용의향은 45.7%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한방진료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최근 이용경험 서비스 관련 한국관광상품 이용의향

(Base: 한국경험자 전체, n=140, 단위: %)



(긍정평가%= 이용의향 평가 중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응답자의 비율을 말함)





## Ⅱ . 주요 조사 결과

1. 아시아 의료관광 경험자
2. 한국 의료관광 경험자
- 3. 향후 아시아 의료관광 이용 의향자**
4. 국내외 의료관광 전문가



# □ 향후 아시아 의료관광 이용 의향자 응답자 특성

##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

		전 체	국가		
			일본	중국	미국
사 례 수		(616)	(200)	(215)	(201)
성 별	남	47.7	55.0	42.3	46.3
	여	52.3	45.0	57.7	53.7
연 령	14-19세	2.9	2.0	2.3	4.5
	20-29세	35.9	11.5	70.2	23.4
	30-39세	23.9	21.5	24.2	25.9
	40-49세	17.9	30.5	2.8	21.4
	50-59세	11.9	20.5	-	15.9
	60세이상	7.6	14.0	0.5	9.0
교육수준	전문대 이하	43.8	31.6	28.0	72.7
	4년제 대학이상	56.3	68.4	72.0	27.3

		전 체	국가		
			일본	중국	미국
사 례 수		(616)	(200)	(215)	(201)
직 업	전문직/ 자영업	30.0	25.0	27.0	38.3
	사무/ 서비스/ 생산직	33.4	46.0	36.3	17.9
	학생	10.9	3.0	20.5	8.5
	주부	10.7	16.5	2.8	13.4
	기타	14.9	9.5	13.5	21.9
월평균 가 구 소 득	500 USD 이하	9.6	8.0	19.1	-
	501~1500 USD	20.6	2.5	54.4	-
	1501~3000 USD	25.6	22.6	14.9	41.9
	3001~4500 USD	10.5	17.6	3.3	11.2
	4501~6000 USD	12.6	13.6	0.9	25.7
	6001~7500 USD	6.4	9.5	0.5	10.1
	7500 USD 이상	14.7	26.1	7.0	11.2
한국 방문 경험	있음	21.6	47.0	14.0	4.5
	없음	78.4	53.0	86.0	95.5

## 해외 방문 특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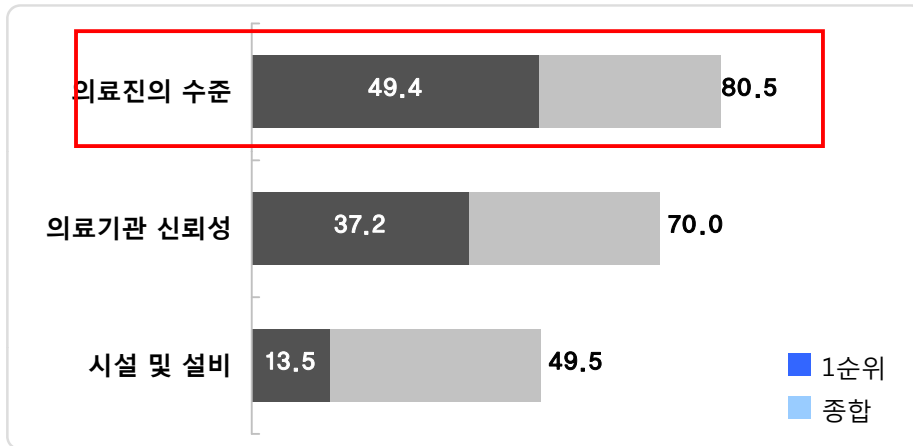
	방문경험 (중복%)	방문횟수 (회)
사 례 수	(616)	(616)
홍콩	21.9	2.1
한국	21.6	1.9
태국	16.9	1.7
중국 (본토)	15.9	2.8
싱가포르	13.0	2.3
대만	11.4	1.8
일본	11.0	1.9
말레이시아	9.3	1.9
필리핀	4.1	1.7
인도	3.9	1.8

# 1. 의료서비스 이용 시 고려사항

- 아시아 의료관광 의향자의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는 '의료진의 수준'을, 서비스 지원 차원에서는 '비용'과 '인적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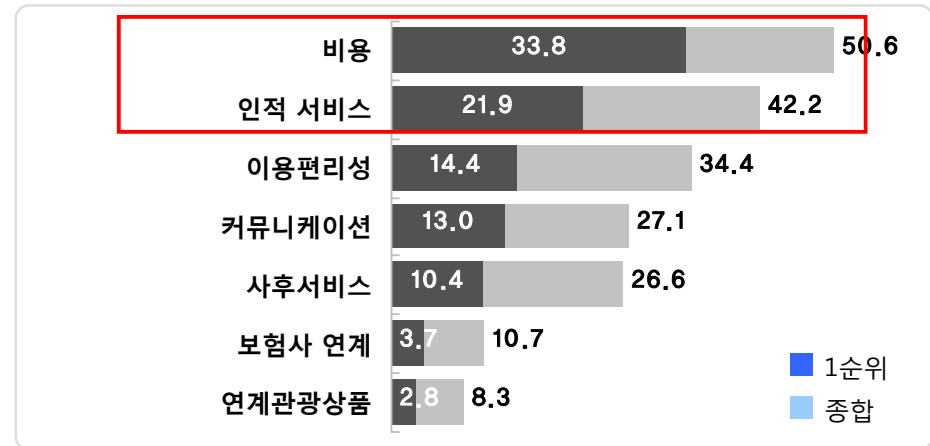
## 서비스 차원

(Base:향후 2년 이내 아시아 의료관광 의향자, n=616, 복수응답, 단위: %)



## 서비스 지원 차원

(Base:향후 2년 이내 아시아 의료관광 의향자, n=616, 복수응답, 단위: %)



	전 체	국가별			월평균 가구소득			
		일본	중국	미국	1500 USD 이하	1501~3500 USD 이하	3501~7000 USD 이하	7001 USD 이상
사 례 수	(616)	(200)	(215)	(201)	(179)	(163)	(144)	(107)
의료진의 수준	49.4	47.0	43.3	<b>58.2</b>	44.1	48.5	52.8	55.1
의료기관 신뢰성	37.2	34.5	<b>43.7</b>	32.8	43.6	35.0	33.3	32.7
시설 및 설비	13.5	<b>18.5</b>	13.0	9.0	12.3	16.6	13.9	12.1

	전 체	국가별			월평균 가구소득			
		일본	중국	미국	1500 USD 이하	1501~3500 USD 이하	3501~7000 USD 이하	7001 USD 이상
사 례 수	(616)	(200)	(215)	(201)	(179)	(163)	(144)	(107)
비용	33.8	31.0	28.8	<b>41.8</b>	29.6	39.3	37.5	27.1
인적 서비스	21.9	23.5	22.3	19.9	20.7	20.9	20.1	28.0
이용편리성	14.4	15.0	18.1	10.0	17.3	11.7	15.3	12.1
커뮤니케이션	13.0	19.0	11.2	9.0	<b>11.7</b>	<b>12.3</b>	<b>12.5</b>	<b>18.7</b>
사후서비스	10.4	3.0	11.6	16.4	11.7	9.2	9.7	8.4
보험사 연계	3.7	4.5	5.1	1.5	5.0	3.7	3.5	2.8
연계관광상품	2.8	4.0	2.8	1.5	3.9	3.1	1.4	2.8

## 2. 아시아 경쟁국간 의료서비스 분야별 비교우위

- 한방진료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서 일본을 의료서비스 강국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한국은 그 다음으로 우수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나, 경쟁국들과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Base:향후 2년내 아시아 의료관광 의향자, n=616, 복수응답, 단위: %)

	Medical Skin Care	한방진료	건강검진	성형외과	치과진료	안과진료	척추 등 외과수술	장기요양	산부인과
한국	42.9	20.1	27.1	51.6	33.4	30.5	38.7	20.8	28.9
일본	54.7	36.0	65.4	60.2	64.0	67.9	62.1	66.4	63.0
태국	18.7	10.4	7.1	14.4	6.3	6.0	10.4	6.2	7.1
홍콩	21.1	28.7	25.8	20.9	25.3	22.7	18.2	26.9	25.3
싱가포르	22.1	7.8	28.4	15.6	23.2	23.1	18.0	27.1	23.4
중국(본토)	22.7	67.4	25.8	20.0	26.0	27.8	31.1	29.2	30.4
인도	4.5	8.3	5.7	3.7	4.9	6.3	5.7	6.7	6.2
대만	2.3	3.2	2.3	2.4	2.9	3.4	2.8	2.3	3.6
말레이시아	5.2	4.2	4.4	4.4	5.0	6.0	5.2	7.8	5.2
필리핀	1.9	1.3	1.6	1.8	1.6	0.8	1.8	1.1	1.3

### 3. 아시아 경쟁국간 의료서비스 속성별 비교우위

- 서비스 속성별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한국은 기타 경쟁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약하게 나타남

(Base:향후 2년내 아시아 의료관광 의향자, n=616,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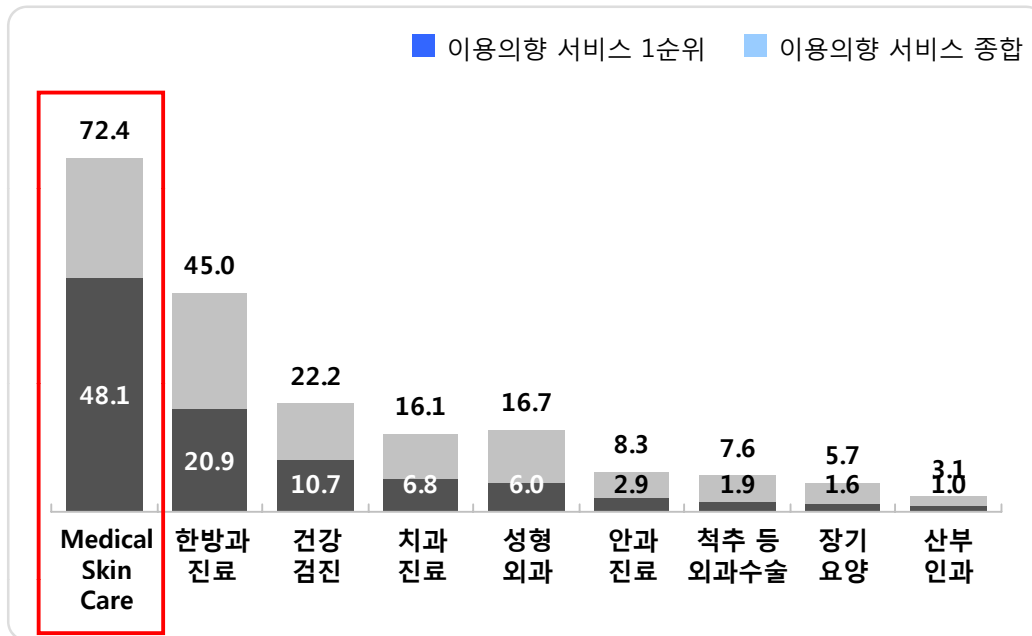
	의료진	시설장비	의료기관 신뢰성	비용절감	이용 편리성	의사소통	사후 서비스	관련상품 다양성	인적서비스	보험사 연계
한국	28.6	31.0	30.8	25.2	34.6	25.2	29.9	33.6	30.7	27.4
일본	68.0	75.8	69.0	31.2	59.6	56.8	61.0	54.5	67.5	64.8
태국	4.9	4.4	5.4	20.6	8.1	7.3	6.0	13.8	5.2	6.0
홍콩	26.9	24.5	24.5	18.2	26.5	32.1	27.6	22.2	26.0	28.6
싱가포르	28.9	27.4	29.2	17.5	21.1	21.1	27.9	29.2	29.1	30.2
중국(본토)	23.1	19.2	24.4	39.3	27.4	31.7	23.9	21.9	20.9	23.2
인도	5.8	5.5	5.4	16.6	5.8	5.4	5.4	6.0	5.4	4.7
대만	2.4	1.9	2.3	3.1	2.3	2.3	1.9	1.8	1.9	2.4
말레이시아	4.1	3.7	3.4	10.1	6.7	5.8	8.0	8.6	6.5	5.4
필리핀	1.6	1.6	1.5	5.0	1.6	3.1	2.3	1.1	1.6	1.6

## 4. 향후 이용하고 싶은 아시아 국가 내 의료서비스

- 아시아 국가 방문 시 'Medical Skin Care'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본인의 'Medical Skin Care' 서비스 이용의향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한방진료'는 일본과 미국, '건강검진'은 중국인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이용의향 서비스

(Base:향후 2년내 아시아 의료관광 의향자, n=616, 복수응답, 단위: %)



\* 기타국가 제외

### 응답자 특성별 분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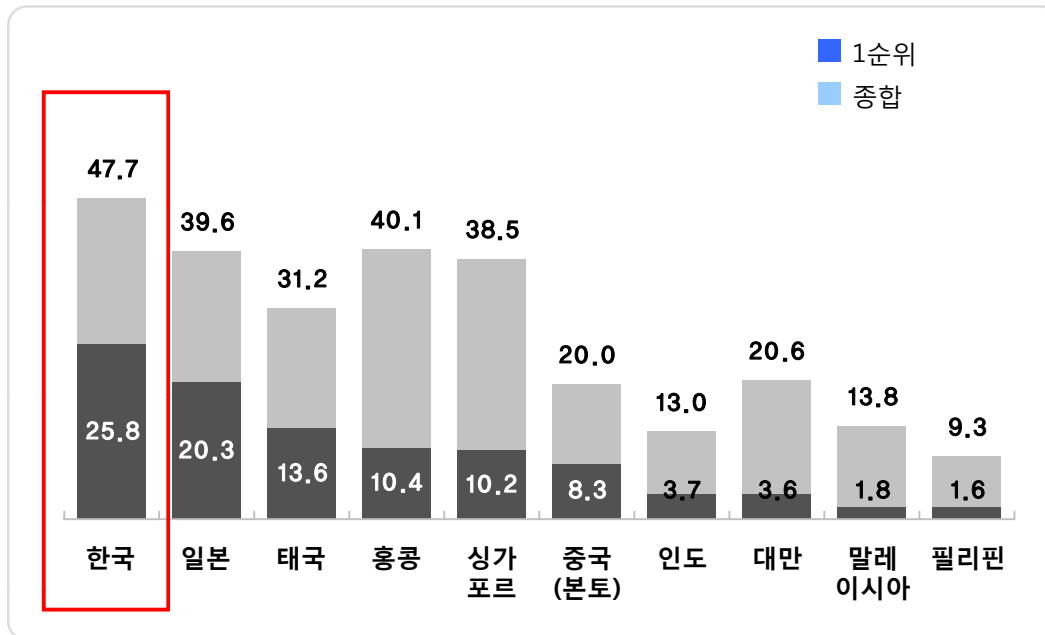
	전 체	국가		
		일본	중국	미국
사 례 수	(616)	(200)	(215)	(201)
Medical Skin Care	48.1	<u>54.0</u>	40.9	49.8
한방진료	20.9	<u>30.0</u>	8.8	<u>24.9</u>
건강검진	10.7	6.0	<u>20.0</u>	5.5
치과진료	6.8	2.0	11.2	7.0
성형외과	6.0	2.5	7.4	8.0
안과진료	2.9	0.5	7.4	0.5
척추 등 외과수술	1.9	3.0	-	3.0
장기요양	1.6	1.5	1.9	1.5
산부인과	1.0	0.5	2.3	-

## 5. 향후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방문 희망 국가

-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방문하고 싶은 국가로는 '한국'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음
- 국적별로 중국인의 한국 방문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은 미국인이, '태국'은 일본인이 상대적으로 선호함

### 향후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방문 희망국

(Base:향후 2년내 아시아 의료관광 의향자, n=616, 복수응답, 단위: %)



\* 기타국가 제외

### 응답자 특성별 분석

(단위: %)

BASE: 의향자	전 체	국가		
		일본	중국	미국
사 례 수	(616)	(200)	(215)	(201)
한국	25.8	33.5	<b>40.9</b>	2.0
일본	20.3	-	18.1	<b>42.8</b>
태국	13.6	<b>20.0</b>	7.9	13.4
홍콩	10.4	7.0	16.7	7.0
싱가포르	10.2	15.0	10.2	5.5
중국(본토)	8.3	12.5	-	12.9
인도	3.7	2.0	2.3	7.0
대만	3.6	6.5	1.9	2.5
말레이시아	1.8	2.5	1.4	1.5
필리핀	1.6	0.5	0.5	4.0



## 6. 향후 의료서비스별 방문 희망 국가

- 한방진료와 척추 등 외과수술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서 한국 방문의향이 높게 나타남
- 한방진료의 경우 '일본'을, 척추 등 외과수술 진료의 경우 '인도'에 대한 선호가 높음

(Base:향후 2년내 아시아 의료관광 의향자, n=616, 복수응답, 단위: %)

서비스 방문의향국 (1순위 서비스기준)	Medical Skin Care (296)	한방진료 (129)	건강검진 (66)	성형외과 (42)	치과진료 (37)	안과진료* (18)	척추 등 외과수술* (12)	장기요양* (10)	산부인과* (6)
한국	24.0 (1위)	17.8 (9위)	37.9 (7위)	32.4	26.2	50.0	16.7	40.0	33.3
일본	20.3 (2위)	23.3 (5위)	19.7	18.9	21.4	22.2	16.7		
태국	17.2 (3위)	11.6	10.6	21.6	7.1				
홍콩	7.8 (8위)	11.6	18.2	8.1	14.3	11.1	8.3	10.0	16.7
싱가포르	11.5 (4위)	7.8	6.1	8.1	9.5	16.7	16.7	20.0	16.7
중국(본토)	8.8 (6위)	13.2 (10위)	3.0	5.4	7.1				16.7
인도	3.0	4.7	1.5	2.7	2.4		33.3	10.0	
대만	2.7	7.0	3.0		2.4		8.3	10.0	
말레이시아	2.4	1.6			2.4				16.7
필리핀	1.7	1.6			4.8			10.0	

(괄호안의 순위는 이용의향 서비스 1순위 %과 방문의향국 1순위 %의 cross 순위임)

(\* 사례수 30 미만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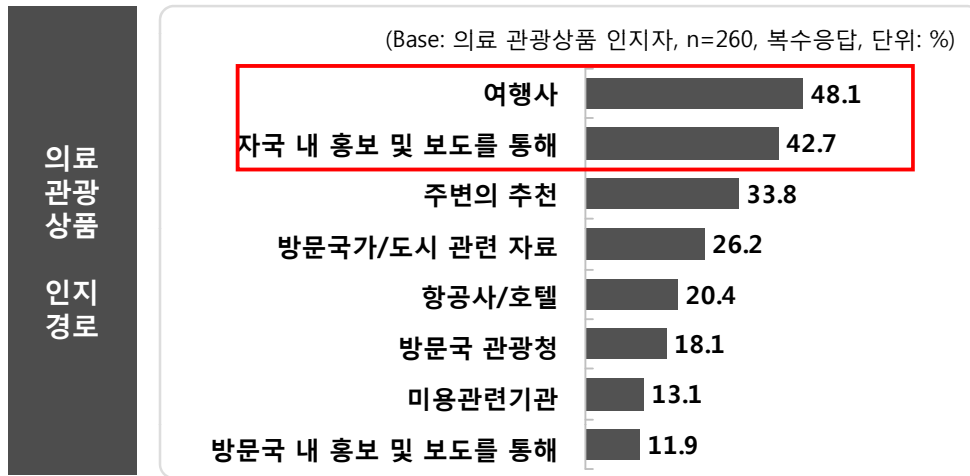
# 7. 의료관광상품 인지도 및 인지경로

- 아시아 의료관광 의향자의 42.2%만이 의료서비스 패키지를 인지하고 있었음
- 의료서비스 인지경로는 '여행사', '자국 내 홍보 및 보도', '주변의 추천' 순으로 나타남

(단위: %)



	전 체	국가		
		일본	중국	미국
사 례 수	(616)	(200)	(215)	(201)
인지	42.2	44.0	<u>50.2</u>	31.8
비인지	57.8	56.0	49.8	<u>68.2</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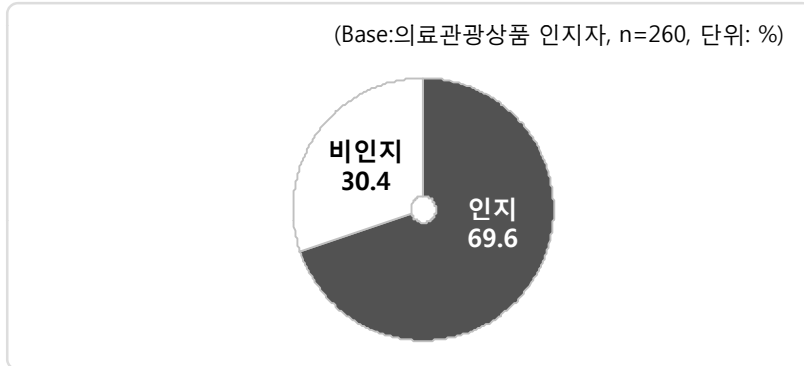
	전 체	국가		
		일본	중국	미국
사 례 수	(260)	(88)	(108)	(64)
여행사	48.1	46.6	48.1	50.0
자국 내 홍보 및 보도를 통해	42.7	38.6	<u>48.1</u>	39.1
주변의 추천	33.8	19.3	45.4	34.4
방문국가/도시 관련 자료	26.2	17.0	37.0	20.3
항공사/호텔	20.4	21.6	23.1	14.1
방문국 관광청	18.1	13.6	21.3	18.8
미용관련기관	13.1	4.5	21.3	10.9
방문국 내 홍보 및 보도를 통해	11.9	2.3	20.4	10.9

\* 기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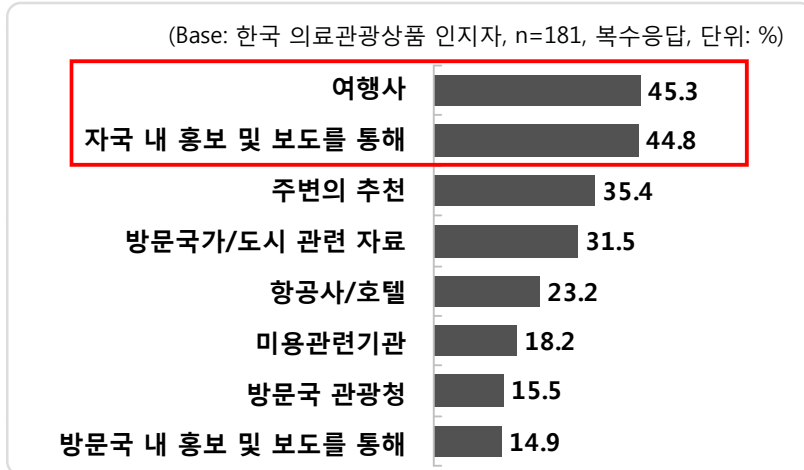
## 8. 한국 의료관광상품 인지도 및 인지경로

- 의료서비스 패키지 인지자의 69.6%가 한국 의료서비스 패키지를 인지하고 있었음
- 한국 의료서비스 패키지 인지경로는 주로 '여행사'와 '자국 내 홍보 및 보도'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 의료관광상품 인지 여부



한국 의료관광상품 인지 경로



\* 기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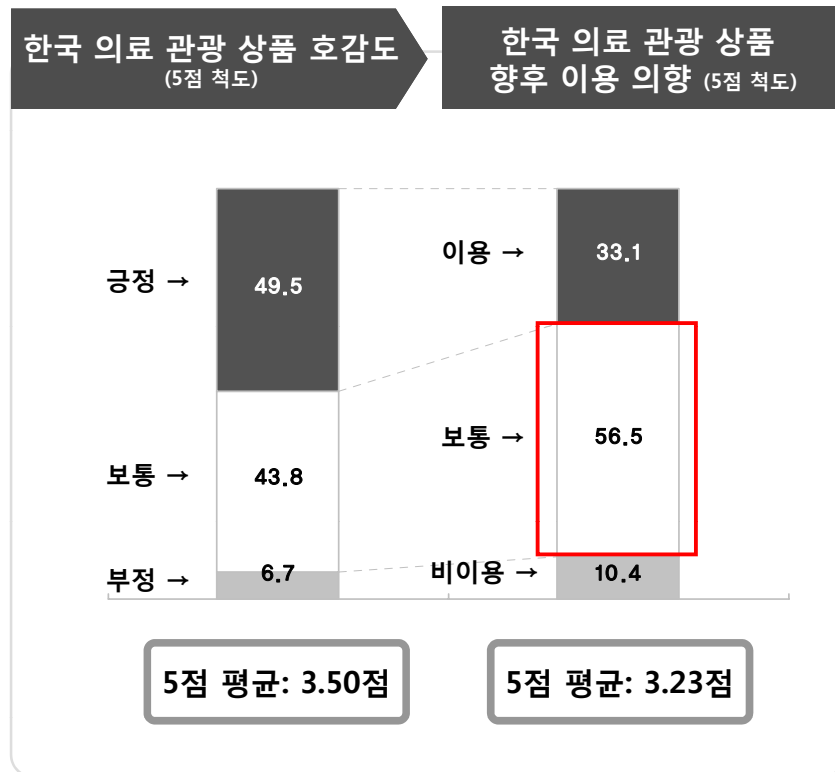
(단위: %)

	전 체	국가			한국 방문경험	
		일본	중국	미국	있음	없음
사 례 수	(260)	(88)	(108)	(64)	(65)	(195)
인지	69.6	79.5	75.0	46.9	84.6	64.6
비인지	30.4	20.5	25.0	53.1	15.4	35.4

	전 체	국가			한국 방문경험	
		일본	중국	미국	있음	없음
사 례 수	(181)	(70)	(81)	(30)	(55)	(126)
여행사	45.3	42.9	44.4	53.3	50.9	42.9
자국 내 홍보 및 보도를 통해	44.8	32.9	55.6	43.3	29.1	51.6
주변의 추천	35.4	25.7	45.7	30.0	38.2	34.1
방문국가/도시 관련 자료	31.5	21.4	40.7	30.0	25.5	34.1
항공사/호텔	23.2	18.6	27.2	23.3	27.3	21.4
미용관련기관	18.2	11.4	23.5	20.0	18.2	18.3
방문국 관광청	15.5	10.0	21.0	13.3	12.7	16.7
방문국 내 홍보 및 보도를 통해	14.9	4.3	24.7	13.3	18.2	13.5

## 9. 한국 의료관광상품에 대한 성향

- 의료관광 의향자의 49.5%가 한국 의료관광 상품에 긍정적이나, 이용의향은 33.1%로 낮은 수준임
- 이용의향 중 '보통' 응답자가 56.5%로 상품에 대한 혜택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미국인의 '보통' 응답률이 가장 높아, 미국 현지의 '한국' 인지도 확대개선 활동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Base:향후 2년내 아시아 의료관광 의향자, n=616, 단위: %)

(단위: %)

한국의료관광 상품 호감도	전 체	국가			한국 방문경험	
		일본	중국	미국	있음	없음
사례수	(616)	(200)	(215)	(201)	(133)	(483)
긍정	49.5	50.0	49.8	48.8	<u>54.1</u>	48.2
보통	43.8	42.5	45.1	43.8	36.8	45.8
부정	6.7	7.5	5.1	7.5	9.0	6.0
5점 평균(점)	(3.50)	(3.46)	(3.52)	(3.52)	(3.48)	(3.51)

한국의료관광 상품 이용의향	전 체	국가			한국 방문경험	
		일본	중국	미국	있음	없음
사례수	(616)	(200)	(215)	(201)	(133)	(483)
이용	33.1	35.5	<u>39.5</u>	23.9	<u>46.6</u>	29.4
보통	56.5	52.5	54.4	<u>62.7</u>	46.6	59.2
비이용	10.4	12.0	6.0	13.4	6.8	11.4
5점 평균(점)	(3.23)	(3.22)	(3.34)	(3.13)	(3.42)	(3.18)

## Ⅱ . 주요 조사 결과

1. 아시아 의료관광 경험자
2. 한국 의료관광 경험자
3. 향후 아시아 의료관광 이용 의향자
4. 국내외 의료관광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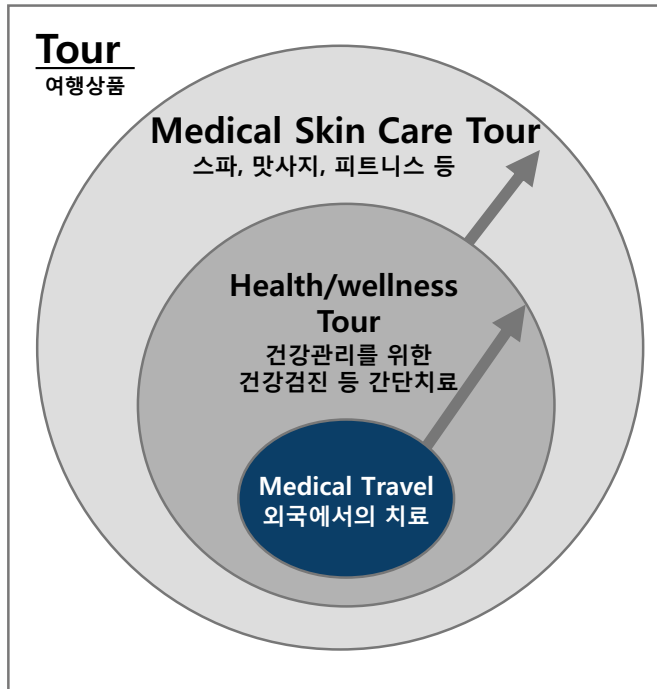
## □ 국내외 의료관광 전문가 응답자 특성





구 분		한국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병원 관계자	대학병원	3명	2명	2명	-	4명
	전문특화병원	4명				
정부 관계자		3명	-	-	-	-
지자체 관계자		3명	-	-	-	-
여행사 관계자		1명	2명	5명	3명	1명
의료 Agent		1명	1명		1명	-
기타		-	-	2명	1명	-
<b>Total</b>		<b>15명</b>	<b>6명</b>	<b>9명</b>	<b>5명</b>	<b>5명</b>

# 1-1. 의료관광 개념에 대한 인식 (해외 전문가)

- 해외전문가들은 의료관광의 개념을 관광상품의 일종으로서, 중증치료 및 수술을 통해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Medical travel(의료행위를 위한 타국 방문 및 이동)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
- 특정 질병이나 증상을 치료하는 의료서비스보다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및 휴식 측면의 서비스 이용이 주 목적임

## Medical tourism 이란 ?



	극동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의료기관	관광 자체보다는 회복 및 휴식의 개념으로 인식	의료 및 진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나, 관광의 비율은 무시할 수 없음 (관광이 50% 이상)	(Medical Tourism Association) Health/Wellness Tour는 의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서비스 (스파, 피트니스, 웰니스 등) 이용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	저렴하고 우수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인해 의료서비스와 여행상품이 결합된 여행산업의 하나로 인식
여행사	관광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으로 인식 : 스파/리조트 등 휴양과 관련된 개념	관광에 대한 의미가 많은 것으로 보임 : 단순한 건강/미용/한방 서비스를 포함한 상품에 대한 비중이 높음	건강검진/미용서비스 이용을 위한 외국방문 관광으로 인식	치료보다는 건강관리 및 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상품으로 인식
기타	-	-	Medical Travel이란 자국민의 외국에서의 응급치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Medical Tourism과는 별개로 인식 (Patient Beyond Border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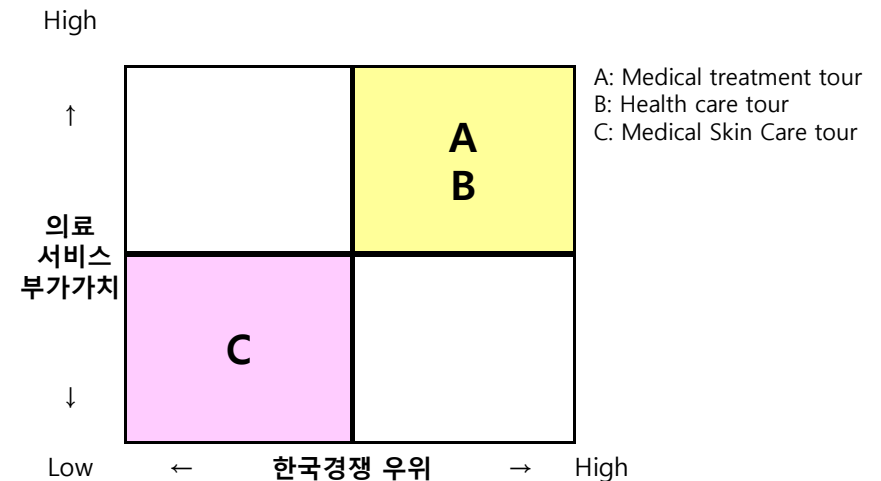
## 1-2. 의료관광 개념에 대한 인식 (국내 전문가)

- 국내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수준에 따라, 의료관광의 성격과 그 대상의 범위가 규정되고 있음
- 의료서비스 관련 정부 등 지자체들은 해외관광객 및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광범위한 Medical Skin Care Tour로 접근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 주체(병원 및 의료Agent)는 치료목적의 중증환자에 무게를 둔, medical treatment tour로 인식하고 있음
- 국내외 의료관광 개념에 대한 인식 차가 존재하고 있으나, 현재 국제적인 Trend는 경증치료 및 Beauty service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음.
- 외래객의 방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영역에서 '관광'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광서비스 및 관광 Infra에 대한 준비가 앞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국내 전문가의 Medical tourism





대상 구분	A Medical treatment tour	B Health care tour	C Medical Skin Care tour
		중증치료 수술 및 완치목적	경증치료 검진 및 외래치료
환자			
환자가족			
해외관광객	← →		
관광비중	의료	비중 %	관광

### 국내 전문가의 의료관광 개념별 포지셔닝







## 2. 각국의 의료관광 시장 현황 및 전망 (해외 전문가)

- 자국 내 의료서비스 제공수준(가격 및 Quality)에 따라 해외의료에 대한 선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의료서비스 인프라(Infra) 수준이 낮은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선진 의료기술에 대한 선호가, 자국 의료기술은 높으나 비용이 비싼 미국의 경우 저렴한 의료비에 대한 선호가, 일본의 경우 자국에서 보험 미적용 분야나 자국에서 이용이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관광 시장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구분	극동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연평균 해외국가 방문 의료 관광객 수	20~30만명으로 추산* (*4년 전 부터 중국 의료관광 붐을 시작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여행agency를 찾는 고객의 50% 이상이 의료관광 고객임)	- ( <u>개별여행이 많은 일본의 해외여행 특성 상 수치화 무리</u> )	연평균 50 만명	3만5천~10만명 추정
작년 대비	20~30 % 증가함	과거 3년간 비슷한 수치유지	연평균 20%의 성장률	두 자리수 성장
해외 의료관광객 profile	•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연금생활자 및 부유층	• 20대 여성 삐띠성형 및 피부관리 • 만성요통에 시달리는 고령자 • 스포츠마사지나 침술치료환자	• 값비싼 성형수술 및 회복기간의 휴가 여유가 있는 부유층 • 저렴한 치료를 위한 비보험자	• 40~60대의 부유층 (월평균 가구소득 5만위안 이상) • 퇴직 간부, 특수직업, 외국에 친척이 있는 자, 사업가
해외 의료관광 주 이유	• 자국의 낮은 의료수준 • 수술 전/후의 휴식 및 요양 프로그램 부재	• 의료수준이 비슷하나 비용이 적게 들거나, 일본내에서 보험적용이 안되는 치료를 위해(성형 등)	• 자국의 고가의 의료시설로 인해 저가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주 목적 • 긴 대기시간	• 우수한 의료서비스 체험 • 긴 대기시간
향후 5년 후 전망	• 여행사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의료기관에서는 여행사들의 전문 서비스 부재로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예상	예년과 비슷하거나 감소 전망 : 자국 의료기술에 대한 자신감, 해외 여행 trend 감소 등	<u>2017년 1700만명 예상*</u> ( <u>Deloitte 보고서</u> ) <small>(*현재 47백만명의 보험 미가입자가 존재하는 잠재시장이며, 그 중 1백 만명 재미교포들임)</small>	현재보다 2~3배 증가 예상






### 3. 국가별 선호 의료관광국 (해외 전문가)

- 러시아는 스파/온천 등의 선호로 인해 스위스, 일본 선호 경향이 나타나며 한국 또한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함
- 일본의 경우, 거리가 가깝고 안정성의 이유로 한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짐
- 미국의 경우, 접근성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영어권 국가에 대한 선호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은 성형에 대한 선호와 접근성 등의 이유로 한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짐
- 한국은 접근성 측면에서 타 경쟁국 대비 비교적 긍정적이거나 '의료관광국'으로서의 인식은 낮은 것으로 보여짐

구분	극동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현 의료관광 선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 고급시설 및 서비스 (상류층이 선호)</li> <li>• 한국: 동서양 의료서비스 가능</li> <li>• 중국 : 출입국 용이, 한방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으로 일본은 자국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어 해외 의료관광에 대한 needs가 높지 않을 것으로 인식(전문가의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독일: 외과방면의 뇌수술, 척추수술, 심장수술</li> <li>• 영국, 프랑스, 미국: 내과</li> <li>• 싱가포르, 태국, 일부 한국 : 미용성형</li> </ul>
향후 '의료 관광지' 경쟁 우위국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위스 &gt; 독일, 오스트리아 (스파, 온천, 마사지 등 서비스와 시설이 좋은 호텔)</li> <li>• 일본 (독특한 스파시설, 아시아 국가내 의료서비스 경쟁력 높음)</li> <li>• 한국 (비용대비 수준이 높음, 한국 정부차원의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가까운 거리, 안전성, 비용 대비 높은 의료수준, 일본어 사용자)</li> <li>• 태국 (국가적 사업 추진중, 일본어 구사 직원이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가까운 거리, 원활한 의사소통)</li> <li>• 인도/싱가포르/태국 (지속적인 의료관광서비스 마케팅 활동)</li> <li>• 한국 (정부차원의 홍보 활동 진행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성형관광 (선진 성형기술, 빠른 회복기)</li> </ul>
의료관광국으로서 "한국"	보통	매우 긍정	긍정	긍정
의료관광국으로 '한국' 선호/비선호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편</li> <li>• 일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인지도와 경험이 높게 형성되어 있음</li> <li>• 중국대비 한국의료관광의 A/S 등이 비싼 것으로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리가 가깝고, 한류, 일본과 유사한 부분/다른 점등이 혼합되어 있어 친근함</li> <li>• 깨끗하고 안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자체의 인지도 및 의료관광국으로서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나, 일반적으로 한국에 대해 선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관광국으로의 한국 인지도 낮음</li> <li>• 합리적인 가격조정으로 더 많은 중국인들이 체험하게 하길 원함</li> <li>• 연계 관광상품/휴식거리/놀이거리 등의 홍보가 필요</li> </ul>

## 4-1. 의료관광 시 주요 고려사항 (해외 전문가)

- 의료서비스 특성 상,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신뢰성, 서비스 이용 후 또는 귀국 후 지속적인 관심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Data) 및 보증에 대한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여짐
- 국가별로 러시아는 비용, 중국과 일본은 의료기관 안전성, 미국은 영어권 문화환경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별	극동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절감</li> <li>✓ <u>의료기관 신뢰성(인지도)</u></li> <li>✓ 의료수준(시설/설비)</li> <li>✓ <u>사후서비스(Aftercare)</u> : 싱가포르의 경우, '병원관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환자의 의료서비스진행 과정을 update해주는 서비스제공을 통해 의료기관 신뢰성을 증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의료기관 및 시술에 대한 안전성</u> : 치료내용/치료실적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의 공개</li> <li>✓ <u>사후서비스(Aftercare)</u> : 현지 의료기관 제후를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수술 후 회복치료, 식사 관리, 운동제안 등)</li> <li>✓ <u>원활한 의사소통</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문화(언어, 식문화 등)</u> : 문화적으로 익숙한 환경조성 (영어사용, 미국식호텔, 식당 등)</li> <li>✓ <u>의료서비스 수준(의료시설)</u></li> <li>✓ <u>비용절감</u></li> <li>✓ <u>높은 인지도(Promotion)</u> : 접근성을 감안, 한국 방문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연계상품개발 등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의료 안전(수술전/수술 후 회복과정)</u></li> <li>✓ <u>의료서비스 수준(의료진)</u></li> <li>✓ <u>비용절감</u> (중국 자국 대비 해외 의료서비스가 고가임을 감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료관광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서비스 불확실성을 제거 하는 것이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신뢰도로 인해, 외국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기부여가 중요 → 일본 현지 의료기관/보험사 제후를 통한 신뢰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영어권 환자 Infra 개선확충</li> <li>• 주류인 (현지인, 영어권 해외교포 등) 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통해 대외인지도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안전에 대한 장치마련이 필요</li> </ul>

## 4-2. 의료관광 시 주요 고려사항 (국내 전문가)

- 자국대비 외국에서의 의료서비스 이용비용 절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인식함
  - 현재, 몇몇의 병원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가이드 없이 현재 병원 자체적으로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중증환자의 경우, 의사 특진료/공항에스코트비용/통역/음식 등을 감안한 비용이 가능하나, 경증 및 Medical Skin care service의 경우, 환자의 정보탐색 및 병원 신인도를 고려, 내국인 비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병원들의 국제수가에 대한 인식이나 실제 case가 적어 의료관광상품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의료진(기술 및 연구) quality의 경우, 경쟁국 및 인접국 대비 임상결과와 수준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외국의 관련인력조차 한국의 의료서비스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팸투어 및 학회활동/PR활동을 통한 인지도 제고노력이 필요함
 

또한 이와 관련 환자의 안전 및 의료기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의 객관적인 신뢰자료가 고려되고 있음

특정 유명 인증기관보다 기존에 활용되는 국내 평가제도 및 기 축적된 Medical Record의 대체가능성이 있어 보임
- 지리적 접근성(비행시간10시간 내외)의 경우, 한국은 미국, 유럽, 중동 등 유리한 입지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언어, 식사 등을 포함한 문화적인 요소의 경우, 개별 병원차원에서 불특정 다수 국가의 환자를 포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지자체별로 특정 언어권에 대한 코디네이터/통역 지원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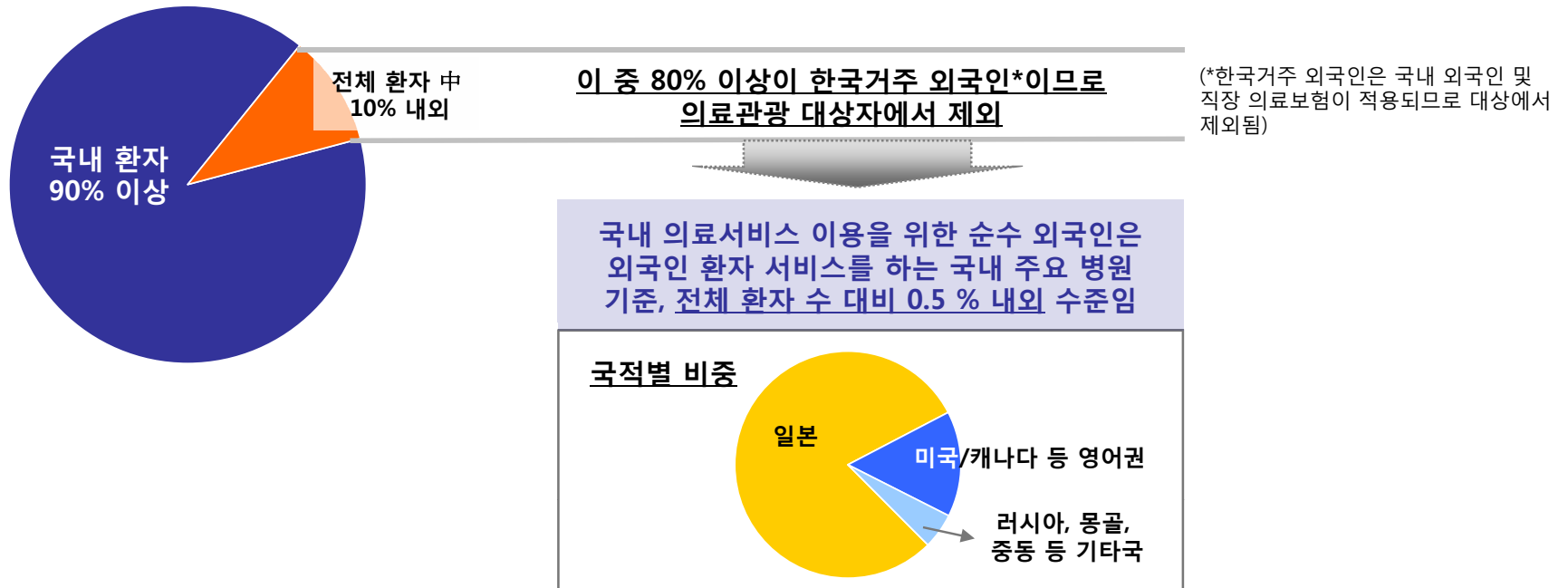
### 외국인의 의료관광 시 주요 고려사항 (KBF: Key Buying Factor)

우선 순위	병원관계자	정부관계자	지자체	의료Agent/여행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절감</li> <li>• <u>의료진(기술 및 연구)</u></li> <li>• 문화(식사, 언어)</li> <li>• 의료기관 신뢰도(환자의 안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의료진(기술 및 연구)</u></li> <li>• 의료기관 신뢰도(환자의 안전)</li> <li>• 높은 인지도(Promo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의료진(기술 및 연구)</u></li> <li>• 비용절감</li> <li>• 관광마인드</li> <li>• 높은 인지도(Promo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인지도(Promotion)</li> <li>• <u>의료진(기술 및 연구)</u></li> <li>• 접근성(거리)</li> </ul>

## 5. 한국 의료관광객 현황 (국내 전문가)

- 국내 외국인 환자 서비스 응대를 하고 있는 병원 기준, 순수 외국인 환자 방문객은 전체 환자수 대비 0.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 의료관광객 중 국적별로는 일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캐나다 등의 영어권, 다음으로 러시아/몽골 등 기타 국가의 비중이 높은 편임
- 일본관광객의 경우, 자국에서 이용이 불편한 한방 및 스킨 케어 등 피부과 서비스 이용율이 높은 반면, 타 국적 관광객의 경우 건강검진 및 자국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치료 이용을 위한 방문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 조사대상 병원의 외국인 환자 비율







## 6. 한국 의료관광 마케팅 활동 (국내 전문가)

- 현재 병원과 지자체 개별 단위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력의 한계 및 병원 내 개별 정책 이슈로 인해 적극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짐
- 또한, 해외 현지에서의 한국 의료서비스 Quality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물리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어, 공통적으로 한국의 의료서비스와 의료관광 전체 이미지에 대한 인지도 제고 활동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함

정부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의 영향력이 큰 의료서비스 특성상 전문가집단 팸투어를 통한 구전(WOM:Word Of Mouth) 확산 (비정기적)</li> <li>• 현지 Presentation 및 설명회 (비정기적)</li> </ul>		
개별 주체 차원	병원 관계자	지자체	의료Agent 및 여행사
적극성	Low (특화병원 High)	Low	Low
현 마케팅 및 홍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적으로 업무과중과 인력부족으로 대부분 환자들의 WOM 경로에 의존 (대학병원보다 전문특화병원의 마케팅활동이 적극적인 편)</li> <li>a. 외국인 대상 인쇄매체 홍보(광고)</li> <li>b. 홍보물에 관련정보 게재 (정기적)</li> <li>c. 현지 사무소 개설 및 현지 Agent 협력</li> </ul> <p>(일부 전문 특화병원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nual report 발행을 통한, Medical Record 게재 및 홍보</li> <li>• 학회 및 연구활동을 통한 의료진과의 Network 구축과 영향력 활용</li> </ul>	<p>(OO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및 마케팅은 개별 병원의 역할이라는 인식</li> </ul> <p>(OO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사, 대기업조직, 현지 개별 Agent를 통한 밀착형 홍보</li> </ul> <p>(OO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대 명품-5대 경증 목표</li> <li>• 의료관광엑스포 개최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의료법규제로 인해 양성적인 활동은 하지 못하는 상황</li> </ul> <p>(의료전문 Agent의 경우, 병원 자회사가 아닌, 별도 사업체로 설립 후 국내외 개별 병원 의료진 Network 구성)</p>
해외 마케팅	x, (일부 전문특화병원은 △)	x, (일부 지자체 △)	-

## 7. 한국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인식

-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들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시아 경쟁국 중 태국 대비 의료서비스에서, 싱가포르와 독일대비 접근성, 비용 및 의료서비스자체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한국을 자국 대비 선진 의료서비스국가로 인식하는 편임
- 반면, 한국방문객이 많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의료서비스국으로서의 '한국' 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국내와 해외 전문가간의 인식의 차이를 보임
- 그러나 미국 의료관광협회 및 의료전문 에이전시에서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잠재시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구분	한국 	극동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병원 관계자	<b>매우 긍정</b> 미국대비 80~90% 수준 : 몇몇의 진료과목에 있어서는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	<b>긍정</b> 비용, 거리, 장비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	<b>긍정</b> 관광공사 주최 병원투어를 통해, 몇몇 의료기관들의 서비스 수준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	<b>매우 긍정</b> (Medical Tourism Association/Patient Beyond Borders)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유럽/미국/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	<b>긍정</b> 성형이나 미용관련 분야에서는 매우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 - 단, 가격이 매우 높음
여행사 및 의료전문 에이전시		<b>긍정</b> 서비스 수준자체는 높은 것으로 평가 정부차원의 support도 긍정적으로 평가 - 단, 가격 및 설명 부족	<b>부정</b> 한국 의료수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	<b>보통</b>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수준은 훌륭하나, 미국 내 홍보가 미흡해서 판단하기 힘들	<b>긍정</b> 한국이 중국보다 의료기술면에서 선진화되었다고 인식 특히 성형/미용기술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




## 8. 한국 의료관광 인프라에 대한 인식

- 한국의 의료관광 인프라 수준에 대한 인식은 러시아를 제외한 국내외 전문가들 모두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러시아의 경우, 아시아 타 경쟁국 대비 서비스 안전성 및 적극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일본, 미국, 중국에서는 전반적으로 한국 의료관광 시장을 도입기로 인식해, 인프라 측면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구분	한국 	극동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반응	<b>매우 부정</b>	<b>매우 긍정</b>	<b>다소 부정</b>	<b>보통</b>	<b>보통</b>
내용	싱가포르를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볼때, 싱가포르의 20%수준으로 인식	비교적 적당한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와 장비 이용이 가능하며, 환자 사후관리(Aftercare) 및 안전성에서 중국보다 경쟁력 있음  : 특히, 자국내 마케팅활동(관광공사)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으로 평가함 단,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다소 불편한 것으로 인식	타 아시아 국가들 대비 늦게 출발한 상태로 인식  : 의료수준은 높으나, 이용 경험과, 홍보활동 접촉 경험이 없어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낮음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높을지 모르나, 의료관광은 시작단계로 인식  • 홍보부족 • 의사소통 • 접근성 (비행시간)  등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  (그러나 타 국가 대비 사회경제적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 및 소개 등 고객 접점에서의 관리가 부족해 실제 이용에 불편을 느낌

## 9-1. 한국 의료관광 인프라 취약점 (해외 전문가)

- 의료진 및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Hardware)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서비스 이용에 있어 언어, 접근성, 이용 및 응대 접점(contact point) 등 외국인의 서비스 이용 환경과 이용편의성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국가별 전문가	극동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한국 의료관광 속성별 평가				
의료진의 수준	●	◐	●	●
시설 및 설비	●	○	◐	●
의료기관 신뢰성(인지도/평판)	◐	○	○	○
비용절감	●	●	●	○
이용편리성(수속 및 접수)	○	○	○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	○	○	○
진료 후/출국 후 환자 사후서비스	●	◐	-	-
보험사 연계	-	○	○	-
전반적인 한국 의료관광 인프라	◐	○	○	○
(공통) 비자문제 사전 정보 탐색 불편 언어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러시아어 사용불편</u></li> <li>• <u>항공권가격</u></li> <li>• <u>비자문제 (병원초청장 필요)</u></li> <li>• <u>호텔과의 거리</u></li> <li>• <u>예약불편 등이</u> 실제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상담안내/고객센터 등 부족</u></li> <li>• <u>사전정보수집 (의료기관 및 서비스 등)의 어려움</u></li> <li>• 한국 내 교통불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환경 (<u>영어권 표기 및 안내 등이 부족</u>)이 가장 큰 장벽(Barrier)으로 인식</li> <li>• 영어 외 모국어 환자에 대한 대응 불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정보 탐색 불편, 언어장벽 (<u>기본적인 영어사용불편</u>)</li> <li>• 비자문제 (싱가폴, 태국대비 복잡)</li> <li>• 음식</li> </ul>

(반응의 크기: ● 높음 > ◐ 중간 > ○ 낮음)

## 9-2. 한국 의료관광 인프라 취약점 (국내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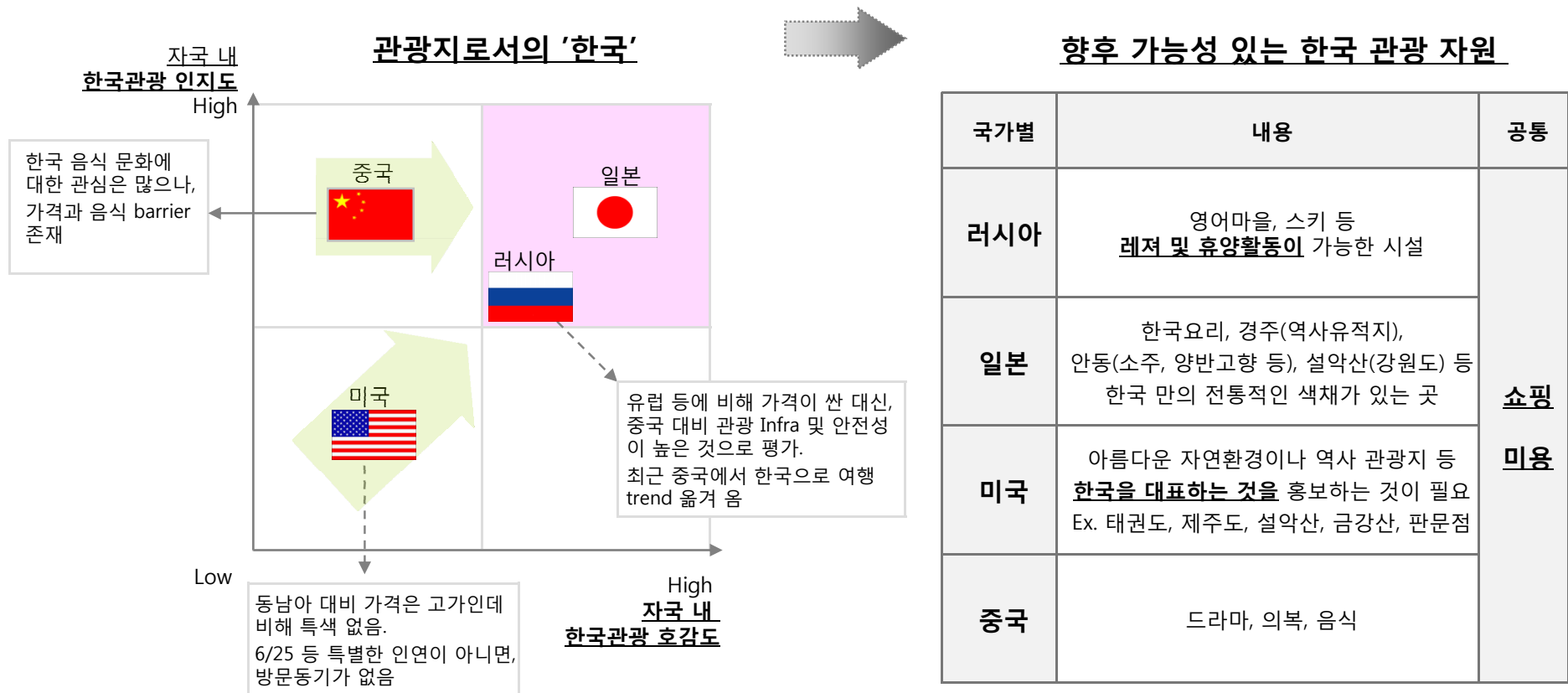
- 국내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의료관광 Business model과 제도적인 발판이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의료관광을 위한 인프라(Infra)면에서는 현재 경쟁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병원 측에서는 전체 환자의 0.5%미만을 차지하는 외국인환자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방문객 응대와 병원이용을 위한 환자응대 업무가 혼재되어 발생하는 인력 및 비용 보전이 우선임
- 정부측에서는 국제환경에 맞는 의료환경 및 서비스에 대해 외국인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개별 병원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여행사 및 의료 Agent의 경우, 환자에게 명확한 혜택(Benefit)을 전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상품화(가격, 서비스, 부가서비스 등) 및 의료 관광주체인 병원의 마인드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한국 의료관광 속성별 평가	국내 전문가				
	병원	정부	지자체	의료Agent	여행사
의료진의 수준	●	●	●	●	●
시설 및 설비	●	●	●	●	●
의료기관 신뢰성(인지도/평판)	○	◐	○	○	◐
비용절감	●	●	●	●	●
이용편리성(수속 및 접수)	○	●	●	○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	◐	◐	●	○
진료 후/출국 후 환자 사후서비스	●	◐	●	◐	○
보험사 연계	◐	●	◐	●	○
<b>전반적인 한국 의료관광 Infra</b>	○	○	●	○	○
(공통) 의료법 규제 까다로운 입국심사	1. 인력부족/취업조건 2. 문화적인 문제 3. 의료사고방지시스템  (대학병원의 경우, 내국인환자 대비 낮은 관여도)	1. 내수에 치중한 의료환경 (Global마인드 부족)  2. 의료진의 관광마인드 부족  3.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정서 강경 (공공재 인식)	한국자체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부족	1. 의료수가 미정립  2. 의료사고방지시스템	1. 관광자원 활용미흡  2. 의료진의 관광 마인드 부족

(반응의 크기: ● 높음 > ◐ 중간 > ○ 낮음)

# 10. 관광지로서의 '한국' 에 대한 인식 (해외 전문가)

- 러시아 및 일본에서는 관광지로서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반면, 중국과 미국에서는 관광지 매력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 방문 동기를 높일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홍보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11. 한국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요소

- 아시아 경쟁국 대비 의료관광시장 도입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전문화된 마케팅활동을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잠재고객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고객맞춤형(Customized)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민감하며 복잡한 서비스라는 의료서비스 성격 상, 정확한 서비스 정보 제공이 중요함



## 12-1. 한국 의료 관광 관련 정책지원 요소 (해외전문가)

- 의료기관에 국가 차원의 안전성 보장 니즈(Needs)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언어를 포함하여 현지 문화/관습을 이해하고 응대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Customized service)에 대한 요구가 높음
- 공통적으로 한국의료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자국 내 인지도 개선을 위한 지원 활동의 필요성을 지적함

구 분	극동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한국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료기관 인증/보증 시스템</b></li> <li>• 비자 및 서류에 대한 지원</li> <li>• 숙련된 통역 필요</li> <li>• 수속절차의 단순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료서비스 인증 시스템</b></li> <li>• <b>한국 의료에 대한 홍보 및 공신력 있는 의료관광 정보제공 창구</b></li> <li>• 정기적인 팸투어 등을 통한 최신 정보 교류</li> <li>• 시내 영문/일본 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공사, 여행사 제휴 및 재외 공공기관 등과의 <b>협약/제휴를 통해 정책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내 팸투어 등 더 많은 체험기회 및 한국의료에 대한 정보제공</li> <li>• 한국의 개성을 살린 차별화된 의료관광상품 개발</li> </ul>
한국여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어된 정보제공 (의료시설 정보 등)</li> <li>• 러시아현지 전문가 및 직원들을 통한 러시아 문화이해 및 응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전문 지식함양 (의료 Agent 및 의료관광전문가)</li> <li>• 공항→ 숙박시설 →의료기관에 이르는 픽업(Pick up) 서비스, 의료도우미(medical assistant)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덤핑관광이 아닌, (미국정서와 의료관광에 맞는) 고객맞춤 상품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국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역민들의 정서와 문화에 대한 이해 필요</b></li> <li>• 다양한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및 홍보(국내 매체 적극 이용)</li> </ul>
한국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학정보 및 환자관련 정확한 용어 및 해석</b></li> <li>• 외국 의료기관과의 제휴 및 연구교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인 직원 배치를 통한 문화차이/관습 이해 필요</li> <li>• 현지(일본 내) 지사 또는 연락 사무소 개설을 통한 contact point 개발</li> <li>• 정확하고 자세한 의료정보 고지 (시술 기록(record), 합병증발병률, 비용 등)</li> <li>• <b>병원내 외국어 시설/안내문 필요</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별, 타겟(Target)시장에 맞는 환자 및 <b>문화별 프로그램 개발 (통역, 음식문화, 취향 등)</b></li> <li>• 해외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 자체의 인지도 제고 (여행사 및 에이전트와의 제휴를 통해, 개별의료서비스 항목 및 정보제공)</li> <li>• <b>* 현재 국내법상 안 됨</b></li> </ul>

## 12-2. 한국 의료 관광 관련 정책지원 요소 (국내 전문가)

- 의료관광 관련 정부 주체들간의 정책목표에 따라 역할 인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수용태세에 대해서는 병원의 개별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특히, 의료관광 경쟁국의 경우 민간차원의 노력이 국가적인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 역시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의료환경 및 해외환자 수용태세와 관련해서는 핵심 서비스제공 주체인 병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반면, 병원 측에서는 해외환자 수용태세 관련 개별병원단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현업간의 입장차이가 나타남.

: 외국인환자 1명당 수익 대비 비용이 큰 현시점에서 내수중심의 인프라(Infra)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며 정부차원의 한국 의료에 대한 홍보지원 요구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 분	정 부		지자체	병원관계자	여행사/Agent	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정책 목표	외래관광객의 증가 및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수익창출	지자체 브랜드 제고 및 산업활성화	<b>필요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Infra구축을 위한 세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지원 (파견가이드)</li> <li>통합 contact point 관리 (call center, online 등)</li> <li>국제수가항목에 맞춘 수가 가이드</li> <li>의료비자</li> <li>국내 거주 외국인 의료 인력 채용</li> <li>의료사고관련 보호장치</li> </ul> </li> <li>2 한국 의료서비스 quality 홍보활동 : 기존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지원 대상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자체에 대한 마케팅활동</li> <li>Business model을 위한 합법적인 테두리마련</li> <li>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마인드를 위한 동기부여(세금혜택 등)</li> <li>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유기적인 가이드라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인 정책가이드 제시</li> <li>지역 특구가 아닌 의료특화로 한국 의료관광경쟁력 확보</li> <li>의료관광 정책 일원화로 혼란방지</li> </ul>
역할	의료관광 해외 마케팅	의료관광 Infra 개선지원	의료관광의 정책중요도에 따라 지자체 관여도 및 역할 상이			
현안	한국의료관광의 인프라 개선 및 해외인지도 향상	관련규제완화	지자체 차원의 의료기관 선정 및 지원			
홍보 차원	해외지사/여행업자를 통한 local 마케팅 활동 지원	책자, 리플릿, 팸투어를 통한 홍보	개별 홍보활동			
비고	세부 수용태세부분은 민간(병원)차원에서 해야 할 일로 인식					







## Ⅲ. 요약 및 결론



# 1-1. 아시아 의료관광 시장 요약 (경험자 기준)

## 주요 발견 내용 (Key Findings)

주요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시아 의료관광 경험자들은 단순한 시설/설비 보다는 의료진의 수준(48.4)과 신뢰성(36.1%)을 중시함</li> <li>또한 비용(27.2%)과 함께 인적 서비스(27.7%)를 중시함</li> <li>사전에 계획하는 비중(58.7%)이 높고, 국가보다는 서비스(76.1%)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li> </ul>
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의 추천(47.7%)이 가장 비중 있는 정보원이지만, 관련 자료(35.2%)나 여행사(33.9%) 또한 중요한 정보원으로 작용하고 있음</li> </ul>
이미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을 제외하고는 서비스 측면에서 Medical Skin Care, 한방, 성형외과와 척추 등 외과수술에서 인식 상의 경쟁력을 확보함</li> <li>반면 의료진이나 신뢰성 측면에서는 경쟁국 대비 뚜렷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li> </ul>
이용 경험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적인 경험은 Medical Skin Care(75.8%)&gt;한방(36.1%)&gt;건강검진(27.4%) 순이며 한국의 경우, 성형외과만 상대적 이용경험(35.5%)이 높고, Medical Skin Care나 한방, 척추 등 외과수술은 경험률이 인식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임</li> </ul>
이용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례수가 확보되는 Medical Skin Care(60.5%)와 한방(63.6%)의 만족도는 경쟁국가 대비 낮은 수준으로, 특히 본격적인 의료관광인 한방에서는 병원수속과 예약처리 및 연계관광상품 부족이 주된 불만 사항임</li> </ul>

## 시사점 (Implication)

- 시설/설비에 대한 일차적 홍보와 더불어 잠재 고객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원활한 인적 서비스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함
- 사전 계획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객들의 고려군(Consideration Set)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신뢰도도 중요하지만 핵심 서비스(Killer Service)의 개발 및 강화 등이 필요함
- 의료관광 전체 시장은 Medical Skin Care를 기본으로 하면서 아시아적인 특성이 반영된 한방과 건강검진, 성형외과 등이 당분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경우 인식 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한방이나 척추/외과수술 등이 실질적으로 경험률에서는 고전하고 있어 “긍정적인 인식→방문 경험”으로 이어지는 연계과정에 취약성을 보임
- 세부적인 측면에서 서비스 지원 인프라와 연계상품 부족이 드러나고 있지만, 인식이 경험(실제 이용)으로 적극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대표 의료관광 서비스(Medical Skin care, 한방 등)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1-2. 한국 의료관광 시장 요약 (경험자 기준)

## 주요 발견 내용 (Key Findings)

정보원/  
고려사항

- 권위 있는 진료/서비스(32.9%)와 유명 저널/잡지 소개(21.1%) 등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Medical Skin Care는 상대적으로 고려사항에서 뚜렷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음

이용  
경험률

- 아시아 의료관광 추세와 비슷하게 Medical Skin Care (47.4%)와 한방(38.2%), 건강검진(34.2%) 경험률이 높은 편임  
- 국가별 선호도: Medical Skin Care(일본), 건강검진(미국), 한방(기타)

이용  
만족도  
및  
만족  
이유

- 전체 만족도는 80.3% 수준이며, Medical Skin Care(87.0%)가 가장 높고 한방(72.2%)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세부적으로는 보험적용(30.3%)과 일괄진료상품(30.3%), 다양한 의료관광상품(32.9%), 보험사 연계(26.3%)에서 불만족이 높음
- '치료/효과가 좋다'(18.1%)는 응답보다는 '의료진의 친절'(31.9%)이 가장 중요한 만족 이유로 나타남  
- 건강검진은 '친절', Medical Skin Care와 한방은 '치료/시술'에 대해 만족

병행  
활동

- 의료 관광 시에 쇼핑(64.5%)과 식도락 여행(50.0%), 관광지 방문(57.9%)을 사전에 계획하고 입국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을 한 비중은 계획 대비 10-20%p 정도 감소함
- 의료서비스와 미용서비스는 방문전 계획에 비하여 방문 시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음  
(의료 43.6%→46.4%, 미용 30.0%→32.9%)

## 시사점 (Implication)

- 의료관광에서 일차적으로 주변 추천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추천이나 유명 저널, 국제적인 인증 등 전문성(Specialty)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국가별로 서비스 경험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시장을 국가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체감 만족도는 긍정적인 수준이나, 의료관광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보험관련 시스템(System)적인 요소에서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 '의료진의 친절'(31.9%)이 서비스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치료/효과' 측면의 강화를 위해 향후 다양한 지원요소를 통해 체감만족도 향상을 이끌어내야 함
- 의료관광 측면에서 관광 연계활동을 고려한 비중이 높지만, 실질적인 연계비중이 떨어지고 있음. 반면, 방문 후의 의료/미용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관광 이용자 및 일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패키지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1-3. 아시아 의료관광 시장 전망 요약 (의향자 기준)

## 주요 발견 내용 (Key Findings)

이미지  
평가

- 전체적으로 Medical Skin Care(42.9%)와 성형외과(51.6%), 척추 등 외과수술(38.7%)에서는 비교대상 국가대비 경쟁력을 보이거나 한방(20.1%)과 건강검진(27.1%)은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임
- 의료진(28.6%)과 시설 장비(31.0%), 신뢰성(30.8%) 측면 또한 경쟁국 대비 뚜렷한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방문  
의향

- 향후 한국 방문의향은 1순위 기준이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2순위까지 종합한 결과에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국가별 의향 : 일본(33.5%), 중국(40.9%), 미국(2.0%)

선호  
서비스

- 향후 이용의향 서비스로는 Medical Skin Care(48.1%)와 한방(20.9%), 건강검진(10.7%)의 선호도가 높은 편  
- 중국은 한방에 대한 선호도가 8.8%로 매우 낮음

세부  
선호도

- 향후 이용의향 서비스별로 방문 국가를 확인한 결과, 건강검진(37.9%)과 성형외과(32.4%)에서는 선호도가 높지만, Medical Skin Care(24.0%)와 한방(17.8%)에서의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한국  
이용  
의향

- 한국 의료관광 상품에 대해 49.5%가 호감을 보인 반면, 이용의향은 그보다 감소(-16.4%p)한 33.1%가 이용의향을 보임
- 향후 한국 방문의향이 2순위까지 종합했을 때 47.7%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이용의향은 낮다고 볼 수 있음

## 시사점 (Implication)

- 이용자에서 우위를 보인 한방과 건강검진이 한국 의향자들에서 약세를 보여 향후 시장확대를 위해 한국의 경쟁력/차별점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 의료진과 시설, 신뢰성 측면에서 경쟁력 약세 또한 향후 서비스 개발/홍보를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임
- 한국에 대한 방문의향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미국 거주자들의 선호도가 낮게 나타나 미국은 교포 등을 공략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이용자들에 비해 의향자들이 Medical Skin Care와 한방 등에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의료관광의 기본이 되는 서비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시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주요 의료관광 서비스국가군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음
- 초기에 지나치게 전문화된 서비스 위주로 홍보하기 보다는 기본 서비스에 차별적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전문 서비스와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함
- 한국 의료관광 상품에 대한 호감도와 이용의향은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지나, 실질적인 이용의향은 감소하기 때문에 “호감도 → 방문의향”으로의 연계성이 취약함

# 1-4. 아시아/한국 의료관광 시장 평가 요약 (외국 전문가 기준)

## 주요 발견 내용 (Key Findings)

<p><b>컨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적으로 의료관광을 의료보다는 관광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음. 기존의 관광개념을 확장하고,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음</li> </ul>
<p><b>시장 전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의료관광 시장에 대해 두 자리수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자국의 의료수준이 높은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한 Medical Skin Care 뿐만 아니라 한방/성형/건강검진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 니즈를 보이고 있음</li> </ul>
<p><b>한국 서비스 인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적으로 의료관광국가로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약한 점이 국가별 선호도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li> <li>• 미국이나 러시아보다는 일본과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형성되어 있음</li> </ul>
<p><b>한국 인프라 평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 관계자들은 최근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한국의 의료수준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행사나 Agency 들은 우리나라 수준에 대해 높게 평가 안 함</li> </ul>
<p><b>한국 의료관광 장·단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인프라와 관련해 의료진의 수준이나 시설, 비용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음</li> <li>• 반면, 의료기관 신뢰성과 이용편리성, 커뮤니케이션, 보험사 연계 등 서비스 지원 측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함</li> </ul>

## 시사점 (Implication)

- 해외에서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의료관광 컨셉에 부합하는 국내 서비스 정의 및 개발이 필요함
  - 의료측면만을 강조할 경우 소구점이 약할 수 있음
- 
- 향후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가능성 및 유망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 조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 1차적으로 의료 관계 종사자들의 구전(Word Of Mouth)이 영향을 미치는 의료진 수준/시설 등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홍보를 통해 개선될 수 있어 보임
  - 2차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이용편리성과 커뮤니케이션, 보험사 연계 등은 여행사/Agency나 경험 고객들의 구전(Word Of Mouth)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의 의료관광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통해서 볼 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 핵심적인 역량에 대한 홍보활동도 필요하지만, 입국부터 출국까지 고객들의 의료관광 프로세스 (Process)전반에서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한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함
  - 장기적인 의료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 역량과 서비스 지원 역량, 부가가치 제공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필요함

# 1-5. 아시아/한국 의료관광 시장 평가 요약 (국내 전문가 기준)

## Ⅲ. 요약 및 결론

### 주요 발견 내용 (Key Fi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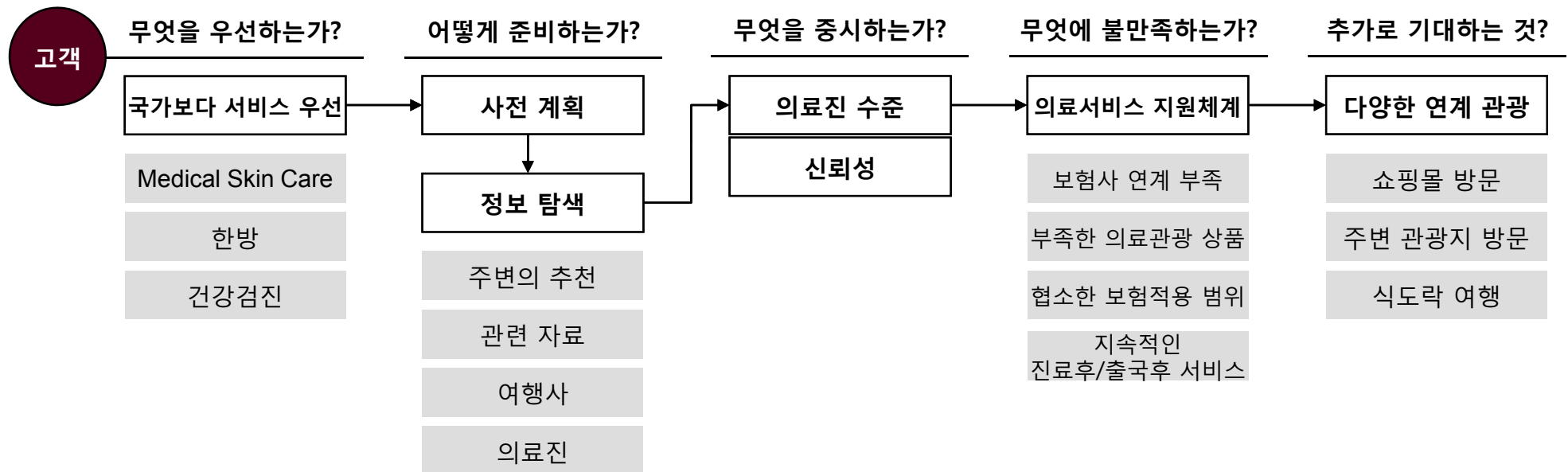
<p><b>컨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주체에 따라 의료관광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li> <li>•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지자체 등의 경우는 광범위한 Medical Skin Care까지 포괄하지만 병원은 Medical Treatment Tour로 인식해 견해의 차이를 보임</li> </ul>
<p><b>한국 인프라 평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진의 수준과 시설 및 설비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해서는 모든 관계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신뢰성과 이용편리성, 커뮤니케이션 등 운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음</li> </ul>
<p><b>마케팅 활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으로 병원과 지자체, 관련 Agent 모두 마케팅관련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li> <li>• 특히 의료관광 서비스의 핵심 주체인 병원의 경우 현실적 업무 과중으로 인해 적극적 마케팅 활동에 한계를 보임</li> <li>• 전문특화병원은 Annual Report 발행이나 해외 의료진과의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li> </ul>
<p><b>정책 지원 방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정부에서는 의료인력관련 지원이나 정부 차원의 홍보활동을 전담하고, 개별병원이 기타 세부적인 사항을 직접 관장하는 구도를 고려하고 있지만 개별병원의 경우 현실적 한계로 인해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기대하는 상황임</li> </ul>

### 시사점 (Impl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관광의 한 축으로 Medical Treatment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관광과의 연계성 측면보다는 의료서비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의 확장성과 다양한 연계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포괄적 시각에서 의료관광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관광의 핵심은 의료진과 시설이긴 하지만 이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가 일차적으로 필요함</li> <li>• 구전에 의한 재방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의 세부적인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기준 마련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병원에서 수익성이 확실한 국내환자에 치중하고 있고, 해외환자에 대한 준비태세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익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병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핵심적인 요소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서 전반적인 환경조성만을 책임지고 운영 등 세부적인 부분을 병원에 일임할 경우 개별 병원에서의 해외관광의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해 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음. 병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관건임</li> </ul>

## 2-1. 종합 결론 - 고객에 대한 이해

- 현재 의료관광에서 국가와 서비스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서비스를 우선하는 고객 특성을 감안할 때, Medical Skin Care, 한방, 건강검진과 같은 경쟁력 있는 서비스 개발을 통해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의료관광에서는 사전계획의 비중이 높고, 주변인과 관련 자료, 여행사 등의 정보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임 구전확대를 위해 1)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적 구전 경로, 2) 진료후/출국 후 고객 사후 관리를 통한 주변 추천 경로, 3) 다양한 형태의 의료관광 관련 자료를 개발하고, 고객의 동선을 최대한 고려하여 공항, 숙박, 의료기관 등 주요 채널을 통해 배포 할 필요 있음
- 의료서비스가 동반되기 때문에 '신뢰성' 요소가 중요함. 신뢰성은 일차로 의료진 수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핵심 의료서비스 외 다양한 지원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을 통해 획득될 가능성도 높음. 의료관광경험 전반을 고려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함
- 의료관광 니즈에 따른 다양한 연계관광에 대한 니즈가 높기 때문에 사전(pre)관광 + 의료+사후(post) 관광에 대한 패키지 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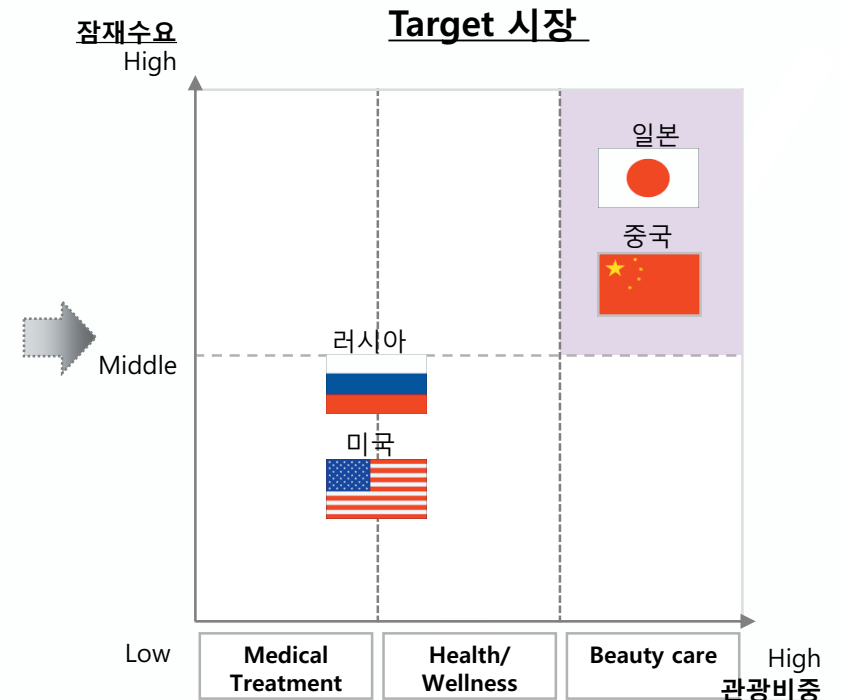




## 2-2. 종합 결론 – Target 시장에 대한 이해

- 일본은 자국의 의료수준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개별단위 여행이 높으며, 의료안전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인식상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Medical Skin Care tour나 한방과목을 중점과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Medical Skin Care tour에 대한 선호도도 높지만, 한국 의료수준에 대한 평가가 높아 다양한 의료관광 영역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일본, 태국, 중국, 싱가포르, 인도 등 경쟁국 대비 낮으므로, 자국과 비슷한 의료서비스 수준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구하는 전략이 효과적임
- 극동 러시아 또한 한국 의료관광 인지도 개선 및 다양한 연계관광 상품 개발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함

	극동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기타 (몽골, 중동 등)
접근성	High	High	Low	High	Middle
보험적용	x	X (일부 사보험)	X (일부 사보험)	x	x
자국대비 한국 의료수가	High	Low	Low	High	High (일부Low)
자국대비 한국 의료수준	High	일부 High	Similar	High	High
의료관광 Needs	우수한 의료기술 체험 및 건강 서비스 needs 높음	안전성 이슈로 간단한 서비스 위주 needs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목적	우수한 의료기술 체험	
현 선호 과목	기타 중증치료/한방	한방/ Medical Skin Care	건강검진/ 기타 중증치료	성형/ Medical Skin Care	기타 중증치료



Ⅲ. 요약 및 결론

## 2-3. 종합 결론 – 연계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

- 의료 관광관련 Medical Skin Care Tour 및 Health/wellness 관련 상품에 대한 요구가 높음
- 한국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일본의 경우, 음식과 미용을 결합한 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임
- 전반적으로 건강지향적인 테마관련 상품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Tour 여행상품					
Medical Treatment Tour		Health/wellness Tour		Medical Skin Care Tour	
치료 및 수술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등 간단치료		스파, 마사지, 피트니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을 통해서 치료를 증진하는 프로그램 (일본) (통원치료를 위한 '의식동원 醫食同源' 패키지) (ex. 치아미용&amp;의식동원)</li> <li>• 근육통/요통환자를 위한 양방치료 패키지 (일본)</li> <li>• 척추 등 외과수술, 장기이식 및 심장수술 등 한국의 기술이 뛰어난 중증치료와 휴양/회복 패키지 (미국)</li> <li>• 성형수술 등 성형시술과 휴양/회복 패키지(중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환자의 휴식과 회복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미국) (ex. 제주도, 부산, 안동 등의 자연관광지)</li> <li>• 한방 및 고려인삼을 이용한 체질개선 프로그램 (일본)</li> <li>• 피부관리/건강진단 패키지(일본)</li> <li>• 고향방문(City 투어)+건강검진 (미국교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쇼핑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단기 Spa 프로그램 (러시아)</li> <li>• 건강식품, 온천, 마사지 등 의료사고발생확률이 적은 상품 (일본)</li> <li>• 웰빙 상품 패키지 (먹는 것, 입는 것, 피부 및 노화 방지코스)</li> <li>• 뷰티 엔 헬스 패키지 (건강검진+스킨케어: 온천, 한방 찜질방, 한국차 활용)</li> <li>• 골프, 시골여행, 템플 스테이 패키지 (일본)</li> </ul>	
여행사	●	여행사	●	여행사	●
의료전문 Agent	●	의료전문 Agent	●	의료전문 Age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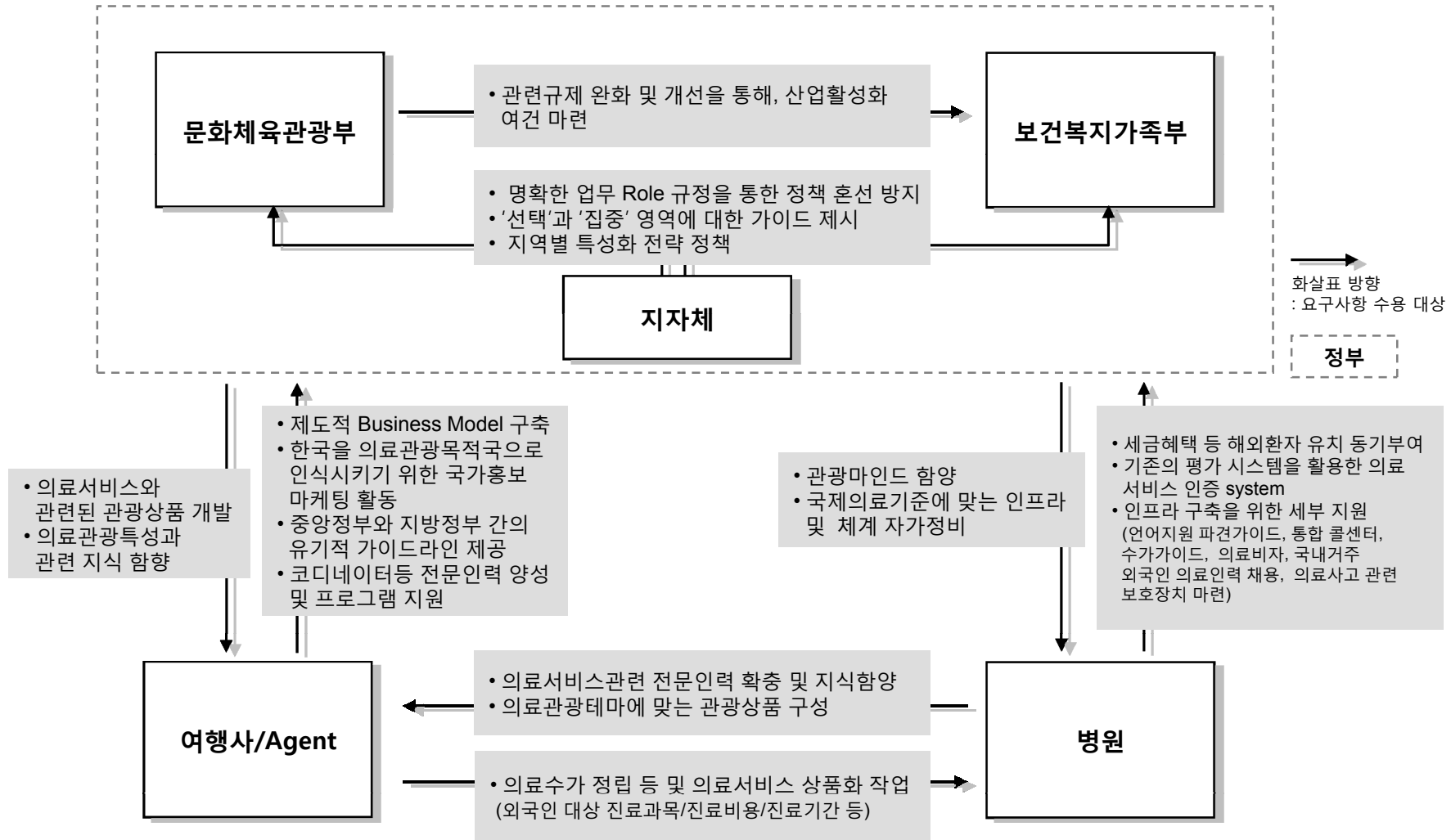
(반응의 크기: ● 높음 > ● 중간 > ○ 낮음)

## 2-4. 종합 결론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향

- 국내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필요한 사항으로는  
1)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2) 종합적인 홍보활동 전담 조직 운영,  
3)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기준 마련, 4) 정부-지자체-병원 간의 명확한 역할 정의
- 장기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홍보활동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초기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민간 수익사업에 정부가 개입하는 수준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료관광과 관련된 성공사례(Best Practice)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자율적 운영보다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정책 지원			서비스 주체	
	정 부		지자체	여행사/Agent	병원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관광 정책 목표	관광수지 개선 및 의료관광객 유치	의료기관의 국제화	지자체 브랜드 제고 및 산업활성화	국내외 관광객의 여행상품 중개 알선	모든 환자에게 적정 진료 제공을 통한 국민보건증진
의료관광 현안	한국의료관광 인프라 개선 및 해외인지도 향상	관련 규제완화 및 인프라 개선	지자체 차원의 의료기관 선정 및 지원	합법적 Business model을 통한 수익구조 마련	인프라 개선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추진

# 2-5. 종합 결론 - 의료관광 주체별 요구 및 개선사항



---

## 의료 관광 시장조사

---

발행일 : 2008년 12월

발행인 : 오지철

발행처 :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번지

[www.visitkorea.or.kr](http://www.visitkorea.or.kr)

담당부서 : 시장조사팀 (Tel. 7299-312)

인쇄 : 웃고문화사 (Tel. 2267-9795)

---

< 비매품 >

세계인의 눈을 호기심으로 반짝거리게 한다

세계인의 가슴을 즐거움으로 두근거리게 한다

세계인의 얼굴에 생기가 넘치게 한다

# Korea Sparkling

코리아, 스파클링 -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관광브랜드!

‘Korea, Sparkling’은 한국관광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한 한국문화관광브랜드입니다.

열정적인 한국인, 활력 넘치는 분위기, 창의적인 한국문화가 가지고 있는 ‘한국 고유의 생동하는 에너지’를 ‘Korea, Sparkling’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국문화관광브랜드의 심볼로고는 한국 전통과 미래의 결합을 ‘창’이라는 모티프로 표현한 것으로 한국관광 특유의 생동감 넘치는 ‘내적 감성’을 전달하고, 전세계 관광객들이 마음 속으로 상상하던 ‘Sparkling’한 한국을 만날 수 있는 열려있는 창을 의미합니다.